정답과 해설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본문 009~010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③

02 ①-ⓐ, ②-ⓓ, ③-ⓒ, ④-ⓑ

03 ③

■ **백석, 「여승」**

해제 이 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를 힘겹게 견뎌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다. 화자가 지금 인사를 나눈 여승이 실은 화자가 언젠가 평안도 금점판에서 만난 적 있는 여인이었는데, 가혹한 시련을 겪은 끝에 그녀는 출가하여 여승이 된 것이었다는 것이 이 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이 작품은 여인의 비통한 삶을 서사적인 틀에 압축하여 담아냄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서정적 감동을 유발하고 있다.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일생

구성

- 1연: 여승이 된 여인과의 재회
- 2연: 평안도 금점판에서 여인을 처음 만났던 일 회상
- 3연: 금점판에서의 만남 이후 여인이 겪은 비극적인 삶
- 4연: 여인이 가족을 잃은 후 여승이 되던 날의 상황

01 ㉠은 기구한 운명에 의해 '여승'이 된 '여인'을 재회한, 관찰자에 해당하는 화자의 감정이 직접 드러난 시적 진술이다. '여인'의 고달픈 삶의 내력을 서술하며 화자는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듯 자신도 서러워졌다고 말하는데, 이 서러움은 여인의 울음이 환기하는 작품 전체의 애상적 분위기와 조응한다. 한편 화자는 이 서러움의 감정을 '불경'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여기서 '불경'은 자신에게 슬픔을 준 세속의 번뇌를 잊으려고 '여승'이 된 여인의 처지를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초월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지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02 1연에서 화자가 만난 '여승'에게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고 한 것은 산속에서 자라는 나물의 향기라는 후각적 심상을 통해 '여승'이 속세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와 관련이 있다.

2연에서 화자가 회상하는 과거 속의 '여인'은 평안도 어느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팔다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서러움 때문에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었다. 이는 '여인'이 우는 소리를 차다는 온도에 대한 감각으로 표현한 감각의 전이, 즉 청각의 촉각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와 관련이 있다.

3연의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여인'의 '딸'이 죽은 것을 일컫는 말로, 감정의 직접적 표출을 절제하는 표현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와 관련이 있다.

4연에서 '산꿩도 섧게 울은'이라는 표현은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되는 출가의 과정에서 '여인'이 느꼈을 서러움을 '산꿩'에 투영한 표현이므로 ⓑ와 관련이 있다.

03 화자는 예전에 평안도 어느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파는 '여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그녀는 '딸아이'를 때리면서 서럽게 울었다.(2연) 그 후 세월이 흘렀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딸아이'는 죽고 말았다.(3연) 그토록 모진 시련을 겪은 '여인'은 '산절의 마당귀'에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4연) 시간이 흐른 뒤 화자는 '여승'이 된 그때 그 '여인'을 다시 만나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은 것을 보고 서러움을 느낀다.(1연) 따라서 이 시에 담겨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연을 재배열한다면 2연 → 3연 → 4연 → 1연의 차례가 될 것이다.

2강 시의 내용

본문 012~013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 (가) ○, (나) ×
㉡: (가) ×, (나) ○
㉢: (가) ×, (나) ×
㉣: (가) ○, (나) ○

02 ⓐ: 하더라, ⓑ: 묘사

03 ③

㉮ 이재, 「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 ~」

해제 이 작품은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농사철 아침의 풍경을 그려낸 시조이다. 화자는 초장에서 시간적 배경과 함께 일하러 나서는 장면을, 중장에서는 논밭으로 가는 길에서 포착되는 장면을, 종장에서는 농사일을 하는 수고로움의 가치를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가곡원류』에 실린 기록을 따랐다. 작자를 이명한으로 명시한 가집도 있다.

주제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는 아침나절의 농촌 풍경

구성
- 초장: 노동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
- 중장: 이슬에 옷이 젖으며 논밭으로 가는 길
- 종장: 노동의 대가로서 좋은 시절에 대한 기대

㉡ 작자 미상, 「시비에 개 짖거늘 ~」

해제 이 작품은 착각 모티프를 중심으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화자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던 임이 오는 줄 알았으나 달이 밝은 밤에 잎이 지는 소리에 개가 짖었음을 깨닫는다. 이에 헛된 기대감을 갖게 했던 개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조금이라도 빨리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착각 모티프와 맞물리며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제 임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과 개에 대한 원망

구성
- 초장: 개 짖는 소리에 밖으로 나감.
- 중장: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임을 확인함.
- 종장: 개에게 속은 상황에 따른 원망

㉢ 작자 미상, 「논밭 갈아 김매고 ~」

해제 이 작품은 농사일을 하는 일꾼의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분주하면서도 한가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초장에서는 논밭갈이, 김매기를 끝내고 귀가한 후에 옷과 신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중장에서는 낫과 도끼를 챙겨 산으로 들어가 땔나무를 구하는 일꾼의 노동과 한가로운 휴식을 묘사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하루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귀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제 농촌 일꾼의 분주하고도 한가로운 하루

구성
- 초장: 논밭에서 일을 한 후에 나무하러 가는 준비를 함.
- 중장: 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하고 식사 후 휴식을 취함.
- 종장: 해 저물 무렵 귀가를 함.

01 ㉠은 (가)의 중장에 있는 '찬 이슬'과 '젖는다'에서 확인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 (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나)의 '개 짖거늘', '잎 지는 소리'에서 확인된다. ㉢은 (가)에서도 (나)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은 (가)의 '아이야'와 (나)의 '저 개야'에서 확인된다.

02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관찰한 인물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자신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하더라'를 통해 확인되는데, '하더라'의 '-더라'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03 (다)에서 일꾼은 석양이 재 넘어갈 때가 되자 귀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석양이 지기 전에도 일꾼은 담배를 피우고 콧노래를 부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석양이 재 넘어갈 때라는 시간적 배경은 동적인 분위기에서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샛별은 저녁의 서쪽 하늘이나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천체인데, (가)에서는 맥락상 후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샛별이 진다는 것은 아침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하루의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명월이 만정'하다, 즉 '달빛이 뜰에 가득'하다는 데서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잎이 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므로 주위가 고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이슬에 베잠방이가 젖는다는 정황만이 나타나 있다. 이슬은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으로서 바람이 없고 맑은 밤에 맺히며 베잠방이는 주로 여름에 입는 옷이므로, 계절적 배경이 여름철임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나)에서 '추풍낙엽'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는 뜻이므로 계절적 배경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⑤ (가)는 농사철의 하루 중에서 이른 아침에 국한된 시간을, (나)는 가을날의 하루 중에서 고요한 심야의 한 시점에 국한된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다)는 아침을 직접 가리키는 시간 표지는 없지만 점심을 먹는 시점 이전부터의 일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하루의 시작 시점부터 석양이 비치는 때까지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성

본문 015~017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 (2) ○, (3) ○

02 ③

03 ⓐ: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 나쁜

■ 양귀자, 「원미동 시인」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로,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여 주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원미동 시인' 몽달 씨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이다. 한편 이 작품은 '나'라는 어린아이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전체 줄거리 올해로 일곱 살인 '나'는 집안 사정과 동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조숙한 아이다. '나'는, 선옥이 언니를 흠모하여 '나'에게 잘 대해 주는 형제 슈퍼 주인인 김 반장과 동네에서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몽달 씨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의 부부 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에 앉아 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겨 김 반장의 슈퍼에 들어온 몽달 씨를 보게 된다. 몽달 씨는 김 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외면당한다.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몽달 씨는 지물포 주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는다. 불량배가 도망간 뒤에야 몽달 씨를 부축하며 불량배들을 성토한 김 반장이 싫어진 '나'는, 이후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에 나와 김 반장을 돕는 몽달 씨를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01 (1) 몽달귀신 같다고 '몽달 씨'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경멸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2)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이라는 '나'의 말에 '까맣고 반짝이는 눈'으로 정색을 하는 것을 보면,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신에게 한 나쁜 일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몽달 씨'가 지은 시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보면 박해받는 존재인 '은사시나무'는 곧 '몽달 씨' 자신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라는 구절을 보면 '나'는 '몽달 씨'가 김 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스물일곱짜리 남자와 친구로 지낸다는 것이 서술자인 '나'가 순수한 시선을 지녔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자신에 대한 정보보다는 몽달 씨와 김 반장 등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찰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② 고흥댁 아줌마가 몽달 씨를 욕하는 말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린아이인 '나'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김 반장이 몽달 씨에게 한 일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봐 친구인 몽달 씨를 쫓아낸 것이고, 그것이 나쁜 행동임을 알고 약 올라하는 모습에서 '나'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나'는 일곱 살의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김 반장이 자신에게 잘해 주는 것이 선옥이 언니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는 것과 자신에 대한 태도 변화가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모습은 '나'가 나이에 비해 조숙한 사람임을 짐작하게 한다.

03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그날 밤' 이전에 '나'는 '김 반장'을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 제시된 '나'의 발화를 보면 '그날 밤' 그가 위험에 빠진 '몽달 씨'를 돕지 않고 쫓아내었다는 점에서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본문 019~021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 / 회산군 댁 부인은 김생보다 광대들의 재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 일행을 집 안으로 들였다.

02 ②

03 연기(연극)

■ **작자 미상, 「상사동기」**

해제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영영전」으로도 불리는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애정 소설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남자 주인공 김생과 사랑이 금지된 궁녀 영영이 맺는 애정 관계의 곡절을 그려 내고 있다. 제목에 있는 '상사동'은 김생을 돕는 노파이자 영영의 이모인 노파가 사는 집이 위치해 있는 동네의 지명이다. 서울 종묘 근처에 있었는데, 이 지명은 발정이 난 상사마가 암내를 맡고 날뛰면 이 동네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붙잡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주제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의 절절한 사랑

전체 줄거리 성균관 진사이자 풍류랑인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을 목격한 뒤 그녀를 깊이 연모하게 된다. 하인 막동의 도움을 받아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모네 집에서 만나 연정을 고백한 후 후일에 회산군 댁에서 다시 만나 깊은 인연을 맺지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헤어지게 된다.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유가 행차에서 회산군 댁을 지나던 중 꾀를 써서 그 집에

들어가 영영을 만나 변하지 않은 연정을 확인한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회산군 댁 부인의 허락을 받아 영영과 인연을 맺고 공명을 버린 채 해로한다.

01 회산군 댁 부인이 김생을 포함한 유가 행렬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은 광대들의 재주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김생에게 차를 대접한 것은 술로 인한 갈증을 염려한 배려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산군 댁 부인이 김생보다 광대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02 김생은 영영에게 술을 따르면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다. 술은 영영에게 관심을 가진 김생을 돕고자 하는 노파의 호의에 의해 제공된 것이고, 차는 술 마신 사람의 갈증을 염려한 회산군 댁 부인의 지시에 따라 영영이 내온 것이다. 따라서 술과 차는 모두 김생에 대한 호의를 담아 대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술은 김생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노파가 미리 계획한 것이고 이를 매개로 김생은 영영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노파에 대한 김생의 감정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 차는 김생의 갈증을 염려한 부인의 배려이다. 그러나 김생은 그 전에 부인을 만난 적이 없고 특정한 감정을 가진 상태가 아니므로, 감정이 바뀌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술로 인해 김생에 대한 영영의 마음이 변했다는 단서도, 차로 인해 영영에 대한 김생의 마음이 변했다는 단서도 없으므로 술과 차는 신뢰감과는 전혀 무관하다.

④ 술상을 핑계로 영영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술이 영영과의 인연에 대한 희망을 안겨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차는 오히려 영영의 존재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좌절감을 안겨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김생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남성과의 결연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영영의 신분 때문이지 대접받은 차 때문이 아니다.

⑤ 영영은 차를 내온 것으로 임무를 다했으므로 영영이 김생이 머물고 있는 방에서 떠난 것을 차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원래부터 김생은 노파와 협력하여 영영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므로 ㉮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김생이 회산군 댁 앞에서 말에서 떨어진 것부터가 의도된 것이었으므로 ㉯와 ㉰는 시치미를 떼고 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보면 김생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설정하여 그 상황에 맞추어 연기를 하듯이 말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본문 023~025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 예시 답안

01 ③

02 인간 부재

03 (가), (나), (라)

■ **윤대성, 「출세기」**

해제 이 작품은 1976년 무너진 갱구에 매몰되었다가 16일 만에 구출된 광부의 실화를 극화한 희곡이다. 작품 속에서 무너진 갱구에서 구출된 광부인 김창호는 대중 언론에 의해 일약 출세를 하게 된다. 하지만 점차 기삿거리로서의 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작품은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간을 상품화하여 효용성만을 추구하는 대중 언론의 상업주의와 허위성을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인간 부재의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주제 대중 언론의 상업주의 비판

전체 줄거리 갱구가 무너져 광부들이 매몰된 탄광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많은 취재와 국민의 뜨거운 열기 속에 16일 만에 구출된다. 이로 인해 유명 인사가 된 김창호는 매니저 미스터 양을 만나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에 취해 가족까지 등지고 유흥에 빠져 돈을 탕진하던 김창호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다시 탄광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김창호는 아내가 사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때 광업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난다. 김창호는 탄광 매몰 현장에서 매스컴에 의해 잠시 주목을 받았다가 광부들이 구출되자 차갑게 외면당한다. 결국 김창호는 땅이 아닌 하늘로 가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겠다며 떠난다.

01 ㉢의 앞뒤 상황을 보면 갱구 매몰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예전의 갱구 매몰 사건의 생존자인 김창호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홍 기자가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지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신이 예전에 취재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쫓아내듯 내보내고 자신이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로 인해 자신의 일에 방해를 받아 귀찮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김창호를 무시하고'라는 지문과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소?'라는 말을 보면 김창호가 홍 기자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김창호도 이를 알고 화가 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은 자신이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말이므로,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뒤이어 나오는 '신이 났다.'라는 지문을 보면 오랜만에 대중의 관심을 받아 상기된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런 걸 특종이라구 취재하다니'라는 말을 보면 특종이라는 기대가 허물어져 홍 기자가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A]에는 현대인들에게 매스컴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음과 함께 그것의 문제점으로서 매스컴의 '인간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

03 (가) 김창호가 홍 기자에게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김창호가 홍 기자를 찾아간 것은 홍 기자가 자신에게 했던 예전의 환대를 기억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 홍 기자는 김창호가 매몰되었다가 구출되었을 때나 또 다른 광부들이 매몰되었을 때, 인터뷰 대상으로 김창호에게 호의를 보이지만 김창호가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매몰찬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홍 기자가 김창호를 기삿거리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구경꾼들이 김창호에게 박수를 친 것은 그가 이전에 갱구에 매몰되었다가 구출된 적이 있으므로, 현재 광부들이 매몰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지 김창호가 매몰된 인부들을 구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라) 예전에 자신이 대중의 환심을 샀던 것은 오랜 시간 매몰되어 있다가 구출된 기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김창호가 하늘로 가자고 하는 것은 '모두 깜짝 놀랄 기록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는 다시 대중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본문 027~029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 교술
㉡: 이스탄불
㉢: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 성찰(반성)

02 중국, 유럽

03 ②

■ **신영복,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의 기행 수필집 『더불어 숲』에 실려 있는 수필로, 세계사의 현장에서 글쓴이가 보고 느낀 바를 '당신'이라는 독자를 설정하여 서간문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중국과 유럽에 비해 생소하게 여겨지던 이스탄불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곳이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제국을 건설한 이슬람이 보여 주었던 관용 덕분이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 종속성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면서, 인류가 강자의 논리를 극복하고 관용과 공존의 역사를 열어 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주제 이스탄불의 유적을 답사하며 떠올린 관용과 공존의 가치

구성
- 처음: 이스탄불에 대한 거리감과 무지
- 중간: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에 깃든 관용
- 끝: 우리의 의식에 대한 반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01 ㉠: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며, 수필은 교술 갈래에 속한다.
㉡: 글쓴이는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파리·아테네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도착'했다면서 자신의 기행 여정을 밝히고 있다.
㉢: 글쓴이는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사이에 앉아 글을 쓴다고 하면서 이 두 장소에 대한 견문을 드러내고 있다.
㉣: 글쓴이는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에 대한 견문과 함께 그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관용을 지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글쓴이는 터키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상태를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가 자신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 벽을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면서, 두 벽이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다른 문화에 대한 시야를 제한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중의 장벽'은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03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이들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이들이 가진 관용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글쓴이는 이슬람의 관용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비잔틴

의 찬란한 문명'을 되살아나게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을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이슬람교도이면서 이교도 문화에 관용을 베푼 마호메트 2세의 행적과, 그러한 관용으로 인해 비잔틴 문명의 유산이 보존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관용의 전통으로 인해 이스탄불이 여러 문화가 서로 대화하고 공존하는 도시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 전통으로 인해 터키가 '아시리아 · 그리스 · 페르시아 · 로마 · 비잔틴 · 오스만 튀르크 등'의 역대 문명을 계승하는 나라로 자부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우리들의 내면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이 간직되어 있으나,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역사를 전개해 왔기에 그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으로 개화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글쓴이는 내면의 애정이 관용으로 구현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블루 모스크에서 보이는 '현란한 빛의 향연'을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와 현재, 동과 서의 거대한 합창'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글쓴이는 이스탄불을 대화와 공존의 도시로 남긴 관용의 정신이 블루 모스크에도 깃들어 있다고 여기면서, 그 정신을 '현란한 빛의 향연'이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본문 031~033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 (2) ×, (3) ○, (4) ×

02 ④

03 보리피리

■ 한하운, 「보리피리」

해제 이 작품은 나병으로 고통받았던 시인의 비극적 삶을 바탕으로 창작된 민요풍의 시이다. 화자는 보리피리를 매개로 고향, 어린 시절,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고독하게 방랑해야 하는 삶의 서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방랑하는 삶의 정한

구성

- 1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
- 2연: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 3연: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
- 4연: 방랑 생활의 한과 슬픔

01 이 시는 '보리피리 불며 / ~ 그리워 / 피-ㄹ 닐리리.'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중 '피-ㄹ 닐리리.'는 보리피리의 소리를 흉내 낸 음성 상징어이다. 한편 이 시에서 의인화나 연쇄법이 구사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보기〉에서 말한 '피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에서 느끼게 된 '설움'과 '원한'일 뿐 '어린 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소산이 아니다. '어린 때'는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03 이 시에서 고향, 어린 시절,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보리피리'이다. '보리피리 불며'라는 행위가 '고향 그리워', '어린 때 그리워', '인간사 그리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본문 035~036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유추, 가족

02 ②

03 ⓐ: 선행(전제) 조건
ⓑ: 태평
ⓒ: 경천근민

㉮ 충담사, 「안민가」

해제 신라 경덕왕 때에 승려 충담사가 왕명에 따라 지은 10구체 향가로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현전하는 향가 작품 대부분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데에 반해 이 작품은 유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경덕왕 때에는 천재지변이 잦아 민생이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권세를 가진 귀족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유교적 정치 이념이 나라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

는데, 이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이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잘 돌보고 임금, 신하, 백성 각자가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잘 유지되고 태평하게 될 것이라는 염원을 담아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제시된 지문은 양주동의 향찰 해독을 현대어로 푼 것이다.

주제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 염원

구성

- 1~4구: 임금과 신하의 책무
- 5~8구: 나라의 유지를 위해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
- 9~10구: 나라의 태평을 염원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제 조선 세종 27년(1445)에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지은 125장으로 된 악장이다. 조선 왕조 창업의 기틀을 마련한 6조(목조 · 익조 · 도조 · 환조 · 태조 · 태종)의 사적과 공덕에 대한 송축과 예찬,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영웅 서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2절 4구의 형식에 주로 전절에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후절에서는 6조의 업적과 관련된 사적을 서술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만든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으로 창작한 최초의 작품이므로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주제 조선 왕조의 창업에 대한 송축과 후대 임금에 대한 권계

구성

- 서사(제1~2장):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함.
- 본사(제3~109장): 육조(六祖)의 업적을 예찬함.
- 결사(제110~125장): 후대 임금에게 권계함.

01 (가)와 (나)는 모두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어떤 속성을 미루어 추측하는 유추의 논리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고, 임금과 신하가 부모처럼 자식과 같은 백성을 돌보아야 나라가 잘 유지된다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속성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한 나라의 역사적 운명과 관련된 이치가 나무, 샘 등에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와 유사하다고 봄으로써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과 같아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결국 번영을 이루게 된다는 국가의 속성을 부각하였다.

02 물생(백성을 비롯한 생물들)이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백성의 평안한 삶을 나라가 유지되는 데에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을 먹여 다스리는 주체는 ㉠이 아니라 어버이와 같은 임금과 신하이다.

③ ㉣과 ㉤은 모두 후대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에게 명령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후대의 임금들로서 '천세' 전부터 ㉥의 전통을 지켜 온 것이 아니라, ㉥을 앞으로 경계해야 하는 주체이다.

⑤ ㉥은 사냥하러 가는 것을 뜻하며 조상의 성덕만 믿고 국정을 돌보지 않는 안이한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복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03 (가)와 (나)는 모두 가정법을 사용하여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나 갖추어야 할 것들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의 경우 바라는 결과로서 나라의 태평을 이루기 위해서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나)의 경우 바라는 결과로서 나라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경천근민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9강 작품의 사회 · 문화적, 역사적 맥락 본문 038~041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②

02 ③

03 ㉠: 가시적인 폭력, ㉡: 비가시적인 폭력

■ 전상국, 「우상의 눈물」

해제 이 작품은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여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의 폭력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합리적이고 날카롭지만 다소 냉소적인 태도의 소유자로, 기표의 폭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표를 제압하려는 담임과 형우의 태도에서 위선을 감지하고 불만을 느낀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기표가 일으키는 물리적 폭력과 기표를 제압하기 위한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하고 위선적인 술책 중 무엇이 더 폭력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폭력성

전체 줄거리 새 학기에 임시 반장이 된 '나'는 메스껍게 굴었다는 이유로 재수파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게 된다. 얼마 후 가정 방문을 온 새 담임은 자신의 뜻을 숨기고 '나'에게 반장직을 맡길 테니 학급의 정보를 자신에게 자주 알려 달라고 부탁하지만 '나'는 1학년 때의 첩자 노릇에 대해 회의를 느낀 데다가 담임의 의도를 파악한 상태여서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임형우를 추천한다. 이후 반장이 된 형우와 담임은 재수파를 해체시키고 기표를 몰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형우는 기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아래,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커닝을 주도하지만 그로 인해 기표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재수파들에게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형우는 기표를 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그 과정에서 기표는 점점 소외된다. 재수파는 임형우를 폭행한 이후 와해되고, 형우와 담임은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밝힌 후 모금 운동까지 벌인다. 기표의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 신문에 실리고 영화 제작까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긴 후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다.

01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 인물인 '나'이다. '나'는 형우, 담임, 기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게 된다. '나'는 사적인 상황과 공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형우의 말과 행동 등을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시점에서 사건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전지적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장면의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달리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④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밖 서술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인물들을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다.

⑤ 이야기 속 인물인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 공간의 시대적 변천, 즉 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특정 공간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심리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02 사과를 하러 재수파가 다녀갔다는 말을 들은 '나'는 기표도 왔었는지를 묻는다. ㉡은 이 질문에 대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후에 나온 형우의 발언이다. 형우는 기표를 '그런 놈'이라고 지칭하며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는 기표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대화 속에 등장하는 기표라는 인물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커닝을 도와준 것이 담임 선생님이 시킨 일인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물음이다.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재수파가 없어졌다는 형우의 말에 대해 근거가 있는지와 같이,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근거 여부를 확인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재수파가 기표를 악마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재수파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직접 경험한 일을 언급함으로써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지금도 재수파가 기표를 무서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 틀린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은 이제 아무도 기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앞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보기〉에서 권력 유지에 필요한 폭력의 유형에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과 규율의 내면화, 위선 등 비가시적인 것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독서 일지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행사하는 폭력의 유형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의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는 면에서 기표는 가시적인 폭력을 보여 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커닝을 계획하거나 기표의 어려운 처지를 학급 친구들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알리고 그를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만드는 형우와 담임은 선함을 가장한 비가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수능 기출의 미래

두꺼운 분량을 벗어난 가장 완벽한 기출문제집
쉬운 문항은 간략하고 빠르게,
고난도 문항은 상세하고 심도 있게

01 고전 시가

본문 044~045쪽

01 ① 02 ⑤ 03 ④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해제 백수 광부(흰머리를 풀어 헤친 미친 사람)의 아내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조선의 노래이다. 원래 노래는 전해지지 않지만, 한역된 시가가 진나라 최표의 『고금주』에 설화와 함께 채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이 『해동역사』, 『청구시초』 등에 옮겨 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 물'을 건너지 말라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하고 '그 물'을 건너다 세상을 떠나 버린 남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주제 임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

구성

- 1행: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함.
- 2행: 물을 건너는 임
- 3행: 물에 빠져 돌아가신 임
- 4행: 사별한 임에 대한 슬픔과 한탄

㉯ 견우 노인, 「헌화가」

해제 신라 성덕왕 때 지어진 4구체 향가로 당대의 미인으로 유명했던 수로 부인과 관련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남편 순정공과 함께 강릉에 가던 수로 부인이 절벽에 핀 예쁜 꽃을 보고 누가 저 꽃을 따 주겠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그 꽃을 따 와서 수로 부인에게 바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향찰로 표기된 작품으로 소박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제시된 지문은 김완진의 향찰 해독을 현대어로 푼 것이다.

주제 사모하는 이에게 꽃을 바치고 싶은 마음

구성

- 1행: 자줏빛 바위 가에서 사모하는 이와 마주침.
- 2행: 하던 일을 멈추고 사모하는 이의 바람을 이뤄 주고 싶음.
- 3행: 사모하는 이의 반응을 떠올림.
- 4행: 사모하는 이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냄.

㉰ 을지문덕,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해제 국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로 오언 고시에 해당하며, 『삼국사기』에 실려 전한다. 612년 수나라가 30만 대군으로 침공하여 왔을 때, 살수까지 진격해 온 적장 우중문을 희롱하기 위하여 지어 보냈다고 한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대첩에서 수나라 대군에 맞서 승리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다.

주제 족함을 알고 싸움을 그만둘 것을 권함.

구성

- 1행: 신기한 계책을 칭찬함.
- 2행: 묘한 계산을 칭찬함.
- 3행: 전쟁에서 이미 공을 세웠음을 인정함.
- 4행: 족함을 알고 그만둘 것을 권함.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임'에게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며, (나)의 화자는 청자에게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라며, (다)의 화자는 청자에게 '그만두길 바라겠소'라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가)~(다) 모두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경우,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와 같이 청자가 화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지만, (나)와 (다)의 경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나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가신 임을 어찌할꼬'와 같이 돌아가신 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는 청자에게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과 같이 자신의 제안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변의 반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의 화자는 청자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을 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⑤ (다)의 화자는 시적 대상을 두고 '싸움에 이겨 공 이미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1행의 '계책'과 2행의 '계산'도 대상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가 대상의 장점이나 대상이 이룬 성취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가)의 화자는 대상의 장점이나 성취에 대해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암소'는 노인이 끌고 가던 노인의 소유물에 해당한다. 작품 속에서 '암소'는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 노인이 잠시 놓아둘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다)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족함을 알' 것과 '그만두'고 포기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다)의 청자가 '족함'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청자인 '임'에게 '그 물'을 건너지 말 것을 요청

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청자를 '자줏빛 바위 가'에서 만나 말을 건네고 있다. 따라서 (가)의 '그 물'과 (나)의 '자줏빛 바위 가'는 화자와 관련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② (가)의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는 화자의 만류에도 '그 물'을 건너고 있는 청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말이다. (다)의 '신기한 계책', '묘한 계산'은 수나라 군대를 이끌던 청자에 대한 화자의 평가로 겉으로 드러난 심리는 예찬에 가깝지만,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는 희롱하는 말이 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3행에서 '임'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게 되어 결국 임과 이별하였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꽃을 꺾어 바치'는 행위를 약속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꽃'을 꺾어 바치고 싶다고 말하며 화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때 '꽃'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청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다)의 화자는 청자를 두고 '싸움에 이겨 공 이미 높'다고 평가하는데, 이때 '공'은 여러 번의 '싸움'에서 승리한 청자가 이미 가진 것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싸움에서 이겨서 청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배경 설화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남편인 백수 광부를 걱정하며 '그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수로 부인을 위해 그 뜻을 이루어 주고자 '꽃을 꺾어 바'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 (다)의 화자도 겉으로는 상대방을 칭찬하며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의 화자는 청자가 느낄 기분이나 감정을 전쟁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는 지은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래서 배경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상황을 활용하여 '백수 광부의 아내', '견우 노인'과 같이 지은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가 백수 광부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이별 상황에 대한 아내의 슬프고 괴로운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라면, (다)는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과의 일전을 준비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가)와 달리 (다)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나타난다.

③ 배경 설화에 따르면 (가)의 청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상태이고, (가)의 화자는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에 비해 (나)와 (다)의 청자는 화자의 바람이나 제안에 대해 나름의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와 다르다.

⑤ (가)~(다)의 화자와 청자는 모두 배경 설화나 창작 배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세 작품은 모두 특정한 상황 속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작품이므로,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표현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고전 시가

본문 046~049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③

(가) 작자 미상, 「동동」

해제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로 『악학궤범』에 기록되어 전한다. 한 해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달거리 형식의 노래로, 열두 달 노래에 서사를 더해 총 13연으로 되어 있다. 1연인 서사는 임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13연은 흘러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과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구성

- 정월 노래: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 2월 노래: 임의 훌륭함에 대한 예찬
- 4월 노래: 무심한 임에 대한 서운한 마음
- 8월 노래: 추석에 느끼는,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쓸쓸함
- 10월 노래: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나) 작자 미상, 「황계사」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불린 십이 가사(十二歌詞) 중 하나로 '황계 타령'이라고도 한다. 병풍에 그려진 황계 수탉이 살아서 울음을 운다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임과의 재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화자의 인식, 임과 이별한 처지에서 오는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정한 어구의 반복, 일정한 문장 구조를 통한 대구, 과장과 해학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창을 고려한 반복과 병렬 그리고 후렴구 등은 이 노래가 가진 구비적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

구성

- 1~3행: 이별로 인한 슬픔과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
- 4~9행: 재회하지 못하는 원인 추측
- 10~16행: 재회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
- 17~22행: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 23~25행: 재회하지 못하는 원인 추측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 보면 '이 아해야 말 듣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데, 이 말의 청자는 임이나 화자가 아닌 제삼의 인물인 '이 아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정월부터 월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춘수가 ~ 못 오던가'(봄), '하운이 ~ 못 오던가'(여름), '추월이 ~ 못 오던가'(가을)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봄 → 여름 → 가을로 계절의 순서에 따라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③ (나)에도 '이 아해야 말 듣소', '지어자 좋을시고', '못 오는가(못 오던가)'와 같은 특정한 통사 구조가 반복 사용되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만,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문답체로 내적 갈등의 심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각 계절의 느낌을 환기하는 자연물이 적절히 사용되어 있다. (가)의 경우 '정월의 냇물', '꾀꼬리 새'가, (나)의 경우 '춘수', '하운', '추월'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의 삶을 이러한 자연물과 대비하여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꾀꼬리 새'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녹사님'과 대비되어 '녹사님'에 대한 화자의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을 심화하고 있다. (나)는 병풍의 그림인 '황계 수탉'이 살아 움직인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과의 재회라는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와는 무관하다. 특히 ㉡은 실제 자연물이 아니고 병풍에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 ㉡은 화자와 임을 이어 주는 매개체와는 거리가 먼 소재이다. 아울러 「동동」과 「황계사」 모두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만 제시되어 있지 둘 사이의 재회라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와 임을 이어 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 '녹사님'과 대비되어 '녹사님'에 대한 화자의 서운한 감정을 부각하는 소재로, 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와는 무관하다. 아울러 ㉠이 제시된 〈4월 노래〉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 임과의 재회라는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소재일 뿐, 화자에 대한 임의 태도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④ ㉠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감정은 임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다. 이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두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 두었다가 자신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찾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은 문제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서 외부 세계로' 전환하게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임과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소재일 뿐, 문제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 꼬꾀요 울거든 오려는가'는 〈보기 2〉에 제시된 다섯 번째 작품인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되 사설시조의 본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표현의 일부에 변화를 주었다. 언어 표현에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표현에 담긴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원작인 사설시조에서 해당 표현은 밤새 놀자는 유흥적 정서를 담고 있지만 「황계사」로 차용되면서 이별한 임을 향한 원망의 정서를 담게 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는 〈보기 2〉에 제시된 첫 번째 작품인 작자 미상의 「상사별곡」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임과의 이별이라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는 〈보기 2〉에 제시된 두 번째 작품인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이는 〈보기 1〉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는 「황계사」 특유의 구성 원리에 따른 것이다. 원작인 사설시조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일부 수정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해당 표현은 원작과 「황계사」 모두에서 이별한 임을 향한 그리움과 원망의 심정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③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 다기봉하니', '추월이 양명휘하니'의 유래는 도연명의 한시 「사시」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한시의 구절이 「황계사」로 차용되면서 읽기의 편리성을 위해 현토(懸吐: 한문에 토를 다는 일)를 하는 변용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와 뒤따르는 후렴구인 '지어자 좋을시고'는 둘 다 유흥적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정한과 그리움이라는 작품의 지배적 정서와 거리가 먼 표현이다. 그럼에도 작품의 지배적 정서와 비교했을 때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이러한 표현들이 차용된 것은 〈보기 1〉에 설명된 내용인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8월 노래〉는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가윗날'(추석)의 상황과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가 처한 결핍의 상황과 상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가윗날'이 되자 결핍감과 상실감이 더 깊어졌음을 나타낸 것이며 임에 대한 사랑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냇물'은 추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할 때도 있어 '얼고자 녹고자'(얼었다 녹았다) 한다. 즉 '냇물'에게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이다. 반면 화자는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로 표현되듯이 오로지 힘들 때만 있다. 이러한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인간인 화자의 결핍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임을 '높이 켠 등불'에 빗대어 예찬하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 임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임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⑤ [E]에서 화자는 임을 비추고 있는 달빛을 빌려 자신도 임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3 고전 시가

본문 050~052쪽

01 ④ 02 ③ 03 ⑤

㉮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

해제 이 작품은 봄날 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평시조이다. '이화'에 비친 '월백', '은한'의 백색 이미지와 '자규'의 울음소리를 배경으로 하여 '일지 춘심', 즉 봄날 밤 화자가 느끼는 고독과 애상감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의 생애를 고려하면, 이 시조는 충신인 작가가 고향에서도 국가와 임금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주제 봄날 밤의 고독과 애상감 / 국가와 임금에 대한 염려

구성

- 초장: 봄날 밤의 아름다운 정경
- 중장: 봄날 밤의 정취의 심화
- 종장: 봄날 밤에 느끼는 다정(多情)

㉯ 박팽년, 「까마귀 눈비 맞아 ~」

해제 이 작품은 단종에 대한 절개를 노래한 절의가(節義歌)이다. 사육신인 작가는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충신 노릇을 하기도 하는 간신의 모습을 흰 듯하면서도 검은 '까마귀'에, 단종에 대한 자신의 '일편단심'을 빛나는 '야광명월'에 빗대고 있다. 이처럼 흑백의 색채 대비를 통해 작가 자신의 절의와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까마귀'와 '야광명월'을 대조하며 당대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임금에 대한 충절

구성

- 초장: 흰 듯하면서도 검은 까마귀의 모습
- 중장: 밤에도 빛나는 야광명월의 모습
- 종장: 임에 대한 일편단심

㉰ 홍서봉, 「이별하던 날에 ~」

해제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낀 비애감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사공'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임과 이별하던 날 자신이 흘린 '피눈물' 때문에 푸른빛의 '압록강'의 물색이 변하였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별의 한을 색채어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의 생애를 고려하면, 이 작품에 작가인 홍서봉이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두 아들을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며 느낀 통탄의 감정이 우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이별의 한

구성

- 초장: 이별하던 날의 슬픔
- 중장: 변해 버린 압록강의 물빛
- 종장: 변해 버린 압록강의 물빛에 대한 사공의 말

㉱ 이덕무, 「농부의 집에 쓰다」

해제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제전사(題田舍)'로, 작가가 직접 체험한 농촌의 정경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한 7언 율시의 한시이다.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묘사와 농촌 생활과 관련된 일상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의 정경이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소박하고 순수한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이는 혼란한 조선 후기 사회에서 회복하여야 할 가치가 농촌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아름다운 농촌에서 살고 싶은 마음

구성

- 기(1~2행): 농촌의 아름다운 아침 풍경
- 승(3~4행): 농촌의 청명한 가을 풍경
- 전(5~6행): 생기 넘치는 농촌의 모습
- 결(7~8행):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다)에서는 '피눈물' 색으로 변해 버린 '압록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화자가 슬픔을 느끼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봄날 밤에 우는 '자규'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푸른빛이 전혀 없'는 '압록강'과 '허여 센 사공'이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을 뿐, 공감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다정도 병인 양하여'에서 비유의 방식이 활용되어 봄날 밤에 느끼는 '다정'을 병처럼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라)에서는 물음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까마귀', '야광명월'에서 '임 향한 일편단심'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에서는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에서 '산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와 (라)는 모두 외면에서 내면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다)에서 화자는 현재 '압록강'의 변해 버린 물빛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공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라)에서 화자는 '아침 햇살'이 퍼지고 '하늘'이 푸르며 '구름'이 깨끗한 농촌의 현재 모습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에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야광명월'은 흑색의 이미지인 '밤'과 대조되는 백색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화자는 '까마귀'와 같이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고 있는 이들로 인해 현재 상황이 '밤'처럼 어두울지라도, 자신은 언제나 빛을 내는 '야광명월'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흑백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불안한 정서와 상황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이화'는 달과 같이 맑고 밝은 백색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정하고 아름다운 봄날 밤의 정경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까마귀'는 '희는 듯 검'은 빛깔, 즉 자신의 본래 빛깔인 검은색과 눈의 흰색을 동시에 지닌 듯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는 '까마귀'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화자는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빛'을 잃은 이유에 대해 임과 이별하던 날에 자신이 흘린 '피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 이미지의 '피눈물'을 통해 임과 이별하던 날에 화자가 느낀 비통한 심정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화자는 '가을 든 산봉우리'를 보고 '푸른 하늘'이 '물들이려는 듯'하다고 생각하며 '산봉우리'를 청색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과 '산봉우리'가 연결되면서 청명한 가을날의 농촌 풍경이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라)에서 화자는 '붉은 아침 햇살', '푸른 하늘', '비 갠 뒤의 구름', 반짝이는 '갈대' 등 아름다운 가을날의 농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데, 이는 〈보기〉에 따르면 농촌의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모습이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가치라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당대 현실의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은둔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봄날 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화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임금 곁을 떠나서 가게 된 고향에서조차 충성심으로 인해 국가와 임금을 걱정했던 작가의 모습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일편단심'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는 〈보기〉에 따르면 단종을 향한 작가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의 '압록강'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에 놓인 강으로, 화자는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청나라에 보내며 신하로서 작가가 느낀 비참한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사공'은 그동안 '압록강'이 '피눈물'의 빛깔을 띠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

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두 왕자를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게 된 상황은, 노인이 그동안 목격하지 못했을 정도로 매우 절통한 상황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고전 시가

본문 053~054쪽

01 ④ 02 ② 03 ⑤

㉮ 작자 미상, 「말은 가자 울고 ~」

해제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는 아쉬움을 드러낸 평시조로, 화자가 타고 있는 말을 붙잡는 임의 모습과 이러한 임을 향해 자신이 아닌, 지는 해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이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구성
- 초장: 이별을 재촉하는 말과 이별을 거부하는 임
- 중장: 시간은 흘러가고 갈 길은 먼 화자의 상황
- 종장: 자신이 아닌, 지는 해를 잡으라는 화자의 말

㉯ 안민영, 「임 이별 하올 적에 ~」

해제 이 작품은 임과의 이별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을 드러낸 평시조이다. 이 시조에서 화자는 다리를 저는 나귀를 이별을 재촉하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저는 걸음으로 인해 상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별을 지연시키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나귀에 대한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오히려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 이별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구성
- 초장: 이별 상황에서 저는 나귀를 탓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함.
- 중장: 저는 나귀를 타고 임과 이별하는 상황
- 종장: 저는 나귀로 인해 이별하는 상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음.

㉰ 작자 미상, 「뒤뜰에 봄이 깊으니 ~」

해제 이 작품은 봄날이 되어 꽃이 만발하고 꾀꼬리가 쌍쌍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설시조이다. 화자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과 이별하였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없으며, 오히려 정답게 지저귀는 새들이 자신의 처지와 다르다는 점에서 자신이 새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화자가 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구성
- 초장: 뒤뜰에 봄이 깊어 심회가 깊어짐.
- 중장: 난만한 꽃과 쌍쌍이 날며 정답게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
- 종장: 새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

해제 이 작품은 화자와 기러기의 대화 형식을 통해 만날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임을 보러 날아가는 기러기와 달리,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임을 만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임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 달라는 화자의 부탁을 기러기가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부각되고 있다.

주제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구성
- 초장: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말을 건넴.
- 중장: 자신에 대한 소식을 임에게 전해 달라는 화자의 부탁
- 종장: 화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러기의 대답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는 '~ 어찌 자세히 보리오'라는 물음을 통해 다리를 저는 나귀로 인해 이별 상황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나귀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다)는 '~ 저 새만도 못하느냐'라는 물음을 통해 자신의 처지가 꾀꼬리만도 못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석양은 재를 넘고'라는 구절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화자의 외양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외양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서는 '울고'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이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어찌하여', '어찌타'와 같은 시어를 통해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을 뿐,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한치 마시오'라는 명령형 표현을 통해 저는 나귀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을 말하고 있을 뿐, 화자의 다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라)에서는 '전하여 주렴'이라는 명령형 표현을 통해 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임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을 뿐, 자신의 다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라)는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독백조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뿐,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화자는 저는 나귀로 인해 꽃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꽃 아래'가 이별하는 이들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석양이 넘어가는 재를 바라보며 갈 길은 천리라고 말하면서, 임에게 말이 아닌 지는 해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재'는 임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다)의 화자는 '뒤뜰'에서 만발한 꽃들과 버들 위의 꾀꼬리와 같이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임과 헤어진 자신의 처지가 새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라)의 화자는 기러기에게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자신이 임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양성 안'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이 있는 곳으로, 화자가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라)의 화자는 '빈방'에 앉아 '한양성 안'에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며 홀로 지내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자신이 쌍쌍이 비껴 날아다니는 '꾀꼬리'보다 못하다며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꾀꼬리'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임과 떨어져 있는 부정적 상황이 '꾀꼬리'로 인해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라)의 화자는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임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외기러기'는 임을 보러 바삐 가는 길이라 그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외기러기'는 임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외기러기' 역시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임과 떨어져 있는 부정적 상황이 '외기러기'로 인해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화자는 '나귀'의 저는 걸음으로 인해 임과 천천히 이별할 수 있어 꽃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귀'는 임과의 이별 상황을 지연시키는 자연물이라 볼 수 있다.

② (다)의 화자는 버들 위에서 쌍쌍이 날고 있는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린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꾀꼬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③ (라)의 화자는 하늘을 날아가는 '외기러기'를 향해 한양성 안에 있는 임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는 화자가 '외기러기'를 임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기러기'는 임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연물이라 볼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말'의 울음소리를 '가자'는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말'을 임과의 이별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할 때 '저는 나귀'를 탓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나귀'를 탓하는 타인의 생각은 '나귀'를 임과의 이별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05 고전 시가

본문 055~057쪽

01 ① 02 ② 03 ④

■ **박인로, 「조홍시가」**

해제 이 작품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총 4수의 연시조이다. 작가의 문집인 『노계집(蘆溪集)』에 실려 있고, 『청구영언』·『해동가요』 등에도 전한다. 〈제1수〉는 육적회귤의 고사를 활용하여 효의 실천 정신을 말하고 있다. 〈제2수〉에서는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 등 『이십사효』의 주인공들을 통해 〈제1수〉에 이어서 효를 더욱 강조하고 효의 지평을 역사적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제3수〉에서는 시간을 더디게 흐르게 한다는 상상력을 통해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제4수〉에는 까마귀를 등장시켜서 '효'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말한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까마귀는 동아시아의 문학 관습에서 효도를 상징하는 새로 규정되는데, '효'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까마귀가 봉황의 무리에 들어가 어울릴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로 평가된다. 요컨대 이 작품은 '효'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역사적·사회적으로, 또한 인간적 차원을 넘어 자연물에까지 해당하는 규범이자 보편적 가치임을 노래한 것이다.

주제 부모에 대한 효심과 봉양의 의지

구성

- 제1수: 부재하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효심
- 제2수: 부모에 대한 효행의 의지와 다짐

• 제3수: 부모의 장수를 기원함.
• 제4수: 웃어른에 대한 봉양의 마음과 자세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제1수〉에서는 유자가 표상하는 가치인 효를 화자가 응시하는 자연물인 조홍감에 대입하여 그로부터 유발되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부모의 부재로 인한 서러움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제2수〉에는 잉어, 죽순과 같은 자연물이 등장하지만 그 자체로서 인간적 덕성을 부각하여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제3수〉의 자연물인 '해'는 끈으로 묶을 수 있다는 상상력에 따라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해'의 외양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로 볼 수 없다.

④ 〈제1수〉에서는 자연물의 색채를 대조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제4수〉에서는 흑백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2수〉에서는 자연물이 등장하지만 그것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반면, 〈제4수〉에서는 '외가마귀'라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봉황과 같은 인물들과 함께하려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는 흐르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하늘에 해가 이동하는 것으로 형상화하여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미각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에게 호감을 유발하고 있다.

③ ⓑ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가 화자의 궁극적인 이상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가 '유자'를 연상하게 하지만 ⓐ와 유자와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와 ⓑ 모두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물이지만 맥락상 상실과 회복의 순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만균'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길게 늘이려고 한 것에는 쇠 끈을 만들어서 해를 잡아매어 해가 가는 것(시간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살아 계신 부모의 노화를 늦추고 싶어 하는 자식의 효심이 담겨 있다. 따라서 생전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못해 갖게 된 심적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품어 가 반길 이 없'는 것을 '설워하'는 모습에서 효의 대상인 부모가 부재하기 때문에 조홍감을 가져다가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를 그리는 마음이 부재하는 부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왕상의 이어'와 '맹종의 죽순'은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기적과 같은 결과물이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효행과 관련한 비현실적인 사건은 효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 것임을 부각할 수 있게 해 준다.

③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겠다는 화자의 다짐은 노래자가 젊을 때는 물론 늙어서까지 효행을 실천한 것을 본받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 이는 또한 노래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효의 실천이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는 화자의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까마귀는 효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봉황'의 무리에 효를 상징하는 동물인 '외가마귀'가 들어와 봉황과 함께 어울려 노는 설정은 효의 지평이 인간에서 자연물에까지 확장된 것이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공동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06 고전 시가

본문 058~061쪽

01 ④ 02 ③ 03 ⑤

■ **조위, 「만분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연산군 때 무오사화에서 죽음을 면하고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간 조위가 지은 유배 가사이다. 억울하게 귀양길에 오른 데 대한 비분강개한 마음을 선왕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초의 유배 가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철의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과 연군의 마음

구성

- 1~10행: 천상 세계에 올라가 옥황 앞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 11~13행: 초객, 가태부와 비슷한 자신의 처지
- 14~19행: 꿈과 같이 행복한 순간이 되어 준 임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
- 20~24행: 임과 헤어진 후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간절한 상황
- 25~32행: 벼슬을 잃고 죄인이 된 신하의 원망과 울분
- 33~39행: 지조 있는 신하가 미움을 받는 상황에 대한 한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40~46행: 유배지에 있는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0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십 년을 유락'하며 지내던 화자는 '백구와 벗'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백구는 화자가 지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물이므로 천상 세계의 존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벗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 굳이 다른 존재로 변신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 제시된 '천상백옥경', '자청전', '옥황 향안 전'은 천상 세계의 공간으로 화자는 이러한 초월적 공간을 언급하며 그곳에 가서 '옥황'에게 직접 '흉중에 쌓인 말씀'을 털어놓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임과 헤어진 화자는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를 떠올리면서 그 넋이 되어 '이화 가지 위'에 가서 울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변신 모티프를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밤낮으로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③ 화자는 자신이 변하여 되고 싶은 대상으로 '저문 하늘 구름'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미궁에 날아'오르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변신 모티프를 활용하여 천상 세계에 도달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⑤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와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는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시구로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거나 신하가 감옥에 갇혀 괴로움을 겪은 일을 의미한다. 초나라나 북송과 같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밝히고, 자신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 또한 결국 지상 세계의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 화자는 임을 위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순수하다는 것을 '백옥 같은'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깃들고 있음을 '쉬파리의 소굴'이라는 시어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어진 부분에서 여전히 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임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꿈조차도 향기롭다'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 함께 지내는 행복한 순간을 표현한 것이고, [B]의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은 임이 나를 찾지 않는 이유를 떠올린 것으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향기와 관련지어 드러낸 것이다.

② [A]의 '임의 옷'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B]의 '서서 끝없이 우는' 상황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④ [A]의 '무서리'는 장안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서리'처럼 차갑고 괴로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B]의 '귀역'은 '귀신과 불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빗댄 말이다. 화자가 지내고 있는 공간을 '귀역이 모여드는 곳'으로 표현한 것 역시 해당 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 것이다.

⑤ [A]의 상황 속에서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염원하며 '임 계신 데'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다. 반면, [B]에 언급된 임은 화자의 상황이나 처지를 '전혀 아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버림받은 화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03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유배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겪으며, '큰 도적'은 '성히 놀고' '백이'는 '굶어 죽'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화자가 스스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수양산'보다 '동릉'에서의 삶을 더 바라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원망과 울분만 쌓'이는 상황을 '초객'에 빗대고 있다. 또한 '상심도 한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굴원을 떠올리며 작품을 짓던 '가태부'의 모습과 비슷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화자는 스스로 자신이 '초객의 후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

은 항시 '고정 의국'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정 의국'은 '유배지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을 뜻하므로 이러한 마음을 임이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④ 화자는 자신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한 눈이 먼 말'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 버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07 고전 시가

본문 062~065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④

■ **작자 미상, 「복선화음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경북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한 규방 가사로 결혼한 여성이 고수해야 할 부덕을 자기 서사의 형식으로 제시한 교훈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격을 띤 규방 가사를 '계녀가'라고도 한다.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부분은 어머니인 화자가 결혼을 하는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인 화자가 결혼을 한 후 부덕을 지키며 부지런히 살림을 하여 가난한 집안을 경제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과거에 급제하게 하여 가문을 빛나게 한 과정을 담고 있다. 제목인 '복선화음가'에서 '복선'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라는 뜻인데 바로 작품의 첫째 부분에 제시된 어머니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둘째 부분은 괴똥어미의 시집살이 이야기이다. 괴똥어미는 성품이 속악하고 사치스러우며 행동거지가 단정하지 못해 집안에 불행을 가져온 인물이다. 어머니인 화자는 결혼하는 딸에게 일종의 반면교사로서 괴똥어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목인 '복선화음가'에서 '화음'은 '무절제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화를 내린다.'라는 뜻인데 바로 작품의 둘째 부분에 제시된 괴똥어미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셋째 부분은 어머니인 화자가 딸에게 자신을 본받고 괴똥어미를 경계하며 여성의 덕목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주제 결혼하는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할 일

구성

- 처음: 어머니(화자)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
- 중간: 괴똥어미의 시집살이
- 끝: 어머니(화자)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좌중부녀 어이 알아 떡 조각을 집어 들고 /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새댁 행실 전혀 없다'라는 표현에서 괴똥어미는 인색해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여기저기 나누어 주며 돈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괴똥어미가 먹을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일이 없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하기 예사로다'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괴똥어미가 자주 남의 물건을 탐내어 훔쳤던 것을 알 수 있다.

② '입구녁에 침이 흘러 ~ 뉘 아니 외면하리'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괴똥어미가 몸가짐과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니 한 말 지어내어 일가 간에 이간질'과 '악한 사람 부동하여 착한 사람 흉보기'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괴똥어미가 일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착한 사람을 흉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금슬 좋자 살풀이며 ~ 사망인들 없을쏘냐'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괴똥어미가 정성껏 기원했지만 마음을 나쁘게 써서 궂은일이 계속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인 화자가 괴똥어미의 거침없는 행동을 희화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괴똥어미의 행실을 비판하고, 자신의 딸이 괴똥어미를 반면교사로 삼아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경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화자는 [C]에서 언급한 '효봉구고', '순승군자', '동기우애', '지친화목'과 같이 여성을 억누르는 가부장적 규범을 도리어 엄격히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에 억눌린 부녀자의 삶에 대해 화자가 비판 의식을 보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신부 행동 그러하니 뉘 아니 외면하리', '달음박질하는 때에 너털웃음 무슨 일고'는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답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것은 아니며, 괴똥어미의 행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한 것이다.

②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희화적 표현은 대상 인물의 어리석음을 부각하여 독자들이 대상 인물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듦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어리석은 면이 희화적으로 묘사된 괴똥어미의 모습은 「복선화음가」를 통해 그 내용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상대적 우월감과 그로 인한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③ 화자는 괴똥어미의 언행을 묘사하면서 '기괴', '용렬', '망측'이란 평가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괴똥어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신부 행실 바이없다', '새댁 행실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괴똥어미의 속악하고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보이고 있다. 이는 괴똥어미에게 비판적인 화자가, 이 글의 독자이자 이제 곧 신부가 될 자신의 딸이 괴똥어미 같은 인물에게 비판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신부 행실', '새댁 행실'을 잘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 화자는 '포진천물', '남용남식'으로 표현된, 괴똥어미의 물질적인 사치와 무절제함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C]에서 화자는 '효봉구고', '순승군자', '동기우애', '지친화목' 등 결혼한 여성이 지켜야 할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B]에서는 물질적인 면에서 경계해야 할 점을, [C]에서는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는 괴똥어미의 행적과 그로부터 얻는 '복선화음'의 교훈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C]는 괴똥어미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B]와 [C]가 모두 같은 인물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B]와 [C]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B]는 인물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C]는 시집가는 딸을 달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③ [B]는 괴똥어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C]는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주는 위로의 말이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B]는 괴똥어미의 행적과 그로부터 얻는 교훈에 관해 언급하고 있을 뿐,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은 오히려 [C]에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C]는 시집간 딸과 친정 엄마가 만나는, 미래의 행복한 상황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통해 교훈을 제시하는 부분은 ㉱가 아닌 ㉰이다. ㉰에서는 괴똥어미라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결혼한 여성이 경계해야 할 행동을 알려 주고 있다. ㉱에서는 '효봉구고', '순승군자', '동기우애', '지친화목' 등과 같이 추상적인 규범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 ㉱로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구체적 인물 형상을 통해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글쓴이인 화자는 '괴똥어미 경계하고 / 너의 어미 살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시집간 여성이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집안이 흥성하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집안을 흥성하게 만든 자신의 사례와 집안을 기울게 만든 괴똥어미의 사례를 대비하고 있으며, 작품의 제목인 '복선화음(선한 행동은 복을 받고, 무절제한 행동은 화를 불러옴.)'도 여기서 비롯한다.

② '저 건너'라는 표현을 기점으로 '괴똥어미의 시집살이'가 서술되기 시작한다.

③ ㉰에 서술된 괴똥어미는 시집살이를 시작할 때 집안의 재산이 넉넉했지만 자신의 무절제한 행동과 그릇된 처신으로 집안을 기울게 했다. 화자가 괴똥어미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이제 막 시집가는 딸에게 해 준 까닭은 자신의 딸이 괴똥어미를 반면교사 삼아 시집살이를 현명하게 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때 괴똥어미가 딸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자의 딸과 괴똥어미 모두 물질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여성이라는 공통점에 있다. 화자의 집안이 성공한 집안이어서 재산을 넉넉히 갖추어 딸을 시집보냈지만, 딸 스스로 시집살이를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괴똥어미처럼 집안을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경계를 화자는 하려고 했던 것이다.

⑤ ㉮의 '딸을 길러 출가하니'로 제시되는 상황은 딸이 함께 지내던 가족을 떠나 시집살이를 하게 된 상황이다. ㉱의 '명년 삼월 화류시에 모녀상봉 하느니라'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시집살이를 하게 된 딸을 위로해 주려는 뜻에서 화자가 엄마로서 해 준 말이다.

08 고전 시가

본문 066~068쪽

01 ⑤ 02 ① 03 ③

■ **김인겸, 「일동장유가」**

해제 조선 영조 때의 문인 김인겸이 쓴 장편 기행 가사로 그 분량이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4,200여 행에 달한다.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한양을 출발해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약

11개월간의 여정 속에서 일본의 자연환경, 문물제도, 인물, 풍속, 일어난 사건 등에 관한 견문과 느낌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개방적인 시선을 보여 주지만, 객관적인 관찰과 함께 주체적 정신과 화이론에 입각하여 문명국인 조선의 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우월 의식에 따라 타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홍순학의 「연행가」와 함께 장편 기행 가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국문학의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역사학 자료로서도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주제 통신사로 일본을 여행하면서 얻은 견문과 감상

구성

- 1~7행: 환송식과 함께 부산에서 일본으로 출항함.
- 8~18행: 항해 중 태풍을 만나 배에서 혼란을 겪음.
- 19~23행: 일출의 장관을 바라보며 얻은 큰 감동
- 24~33행: 태풍을 겪은 후의 배 안팎의 상황
- 34~37행: 배 안에서의 상념과 일본에 거의 당도했다는 소식
- 38~46행: 일본인들의 호사에 대한 감탄
- 47~56행: 왜성의 사치스러운 모습에 대한 감탄
- 57~63행: 일본의 풍족한 자연환경에 대한 부러움과 조선인으로서의 문화적 우월감과 자부심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대마도 가깝다'라는 사공의 말을 인용한 표현은 나타나지만 화자의 독백이 주를 이루며,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인용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배의 출항과 항해, 그 후 일본에 도착하여 통신사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②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 산이 눈썹 같고',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는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을 비유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③ '연해 각진포에 /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는 여정의 경과에 따라 육지로부터 배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배에서 바라보는 육지의 경관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④ '태산 같은 성난 물결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는 화자가 직접 겪은 사건의 상황을 실제 모습보다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물속의 어룡들이' 놀랄 정도라고 한 부분에서 출항할 때 있었던 환송 행사의 성대함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제시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배 안에서 혼란을 겪는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 배가 물결에 따라 상승하고 하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은 화자가 눈으로 직접 본 물속 생물들의 모습이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물결과 파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④ ㉣의 '우는구나'는 배의 널빤지에서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슬퍼하는 동료들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는 무관하다.

⑤ ㉤의 '어와 장할시고'는 문맥을 고려할 때 화자가 태풍을 무사히 견뎌 낸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출의 장관을 보고 감탄하며 보인 반응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왜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없다'고 한 것과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손하니'는 왜황 가문의 사는 모습에 대한 서술이므로, 일본의 미개한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대비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백 필 금안 준마 / 중하관을 다 태우'는 것을 보고 장하다고 하고 '노자들'의 '호사'를 보고 '참람하다'고 한 것은 화자가 일본 사람들의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낸 것이다.

② '여남은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라고 한 것과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취 있네'라고 한 것은 왜성의 문명과 풍물을 보고 감탄하는 화자의 반응이다.

④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생긴 '옥야천리'를 두고 화자가 '아깝고 애달'파하는 것은 그 좋은 자연환경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있다는 것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과 부러움에서 나온 반응이다.

⑤ 일본을 두고 '왜놈'이라 하고, '개돼지 같'다고 한 것은 일본을 야만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그들을 '예의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조선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조선 사람인 화자가 문명인으로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09 고전 시가

본문 069~072쪽

01 ③ 02 ③ 03 ⑤

(가) 허난설헌, 「견흥」

해제 이 작품은 허난설헌이 지은 한시로, 제목인 '견흥'은 '흥에 겨워'라는 의미이다. 허난설헌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총 8수로 구성되어 있다. 〈제3수〉와 〈제4수〉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비단'과 '노리개'와 같은 정표에 의탁하여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며 남편에게 지조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가부장적인 조선 사회에서 적극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사랑

구성

- 제3수: 임에게 정표로 비단을 드림.
- 제4수: 임에게 정표로 노리개를 드림.

(나) 작자 미상, 「방물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잡가 중 하나로,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별 대목을 차용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여성과 여러 가지 방물로 여성을 회유하려는 남성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물이 나열되어 당대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당대인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춘향가」의 내용을 변형시킨 점이 특징이다.

주제 이별 상황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갈등

구성

- 1~4행: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 5~20행: 여러 가지 방물로 여성을 회유하는 남성
- 21~23행: 남성의 제안을 거부하는 여성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주지 마세요.'처럼 부정 표현을 써서 임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상황에 대해 경계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나는 싫소'처럼 부정 표현을 써서 임이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임에게 말을 거는 형태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와 '서방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별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다른 여인 치맛감으론 주지 마세요.',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 주지 마세요.'와 같이 임에게 준 정표를 다른 여인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며 이별의 상황에서 자신이 임에게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의 화자인 '나'도 임에게 '날 다려가오.', '아무것도 나는 싫소.'와 같이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의사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임에게 주는 정표에 대해 '윤이 났었죠.', '눈부셨지요.' 등과 같이 회상하며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임에게 드리니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감정 이입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의 화자는 '반짝이는' '무늬'가 있는 '비단 한 필'과 '순금'으로 만든 '반달 모양 노리개', '다홍 비단 치마' 등 자신이 지닌 소유물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소유물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02 갈래의 특징과 성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는 '샛별 같은 쌍요강'에서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으나, 음성 상징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 빛과 같은지라', '여자의 명심불망 지환 빛과 같은지라'에서 비유적 표현이, '옥지환을 바드드득 벗겨 내어'에서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A]와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어 남녀의 이별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하던 상황에 주고받은 대화 장면이 제시되고 있는데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의 ~ 이별'과 같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어 판소리 가창에 적절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에서도 '날 다려', '날 다려가오'와 같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며 잡가로 가창되기에 적절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 이몽룡은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설워 말고 잘 있거라.'라고 말하며 춘향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다. ㉡에서 여성은 '임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며, 남성이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④ [A]에서는 값비싼 의복들의 명칭이 열거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에서는 값비싼 의복들이 다양하게 나열되며 풍족한 삶을 꿈꿨던 대중의 세속적인 욕망에 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이몽룡은 춘향에게 '대모 석경'을 주고 춘향은 이몽룡에게 '옥지환'을 주며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한다. 그러나 ㉤에서

'밀화불수', '밀화장도 곁칼', '삼천주 바둑실'은 이별의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을 달래기 위해 제시한 물질일 뿐이다. 이처럼 사랑을 물질로 보완할 수 있다는 남성의 생각은, 신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대 사회상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가 '금의옥식'을 준다고 해도 '싫소'라고 ⓑ에게 말한 이유는, '한양 낭군님 날 다려가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 자신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의 사랑에 대한 맹세를 정표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는 '비단 한 필'을 '길 떠나시는 임'에게 건네며 다른 여인을 위해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는 임이 타지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노리개'는 '시집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 ⓐ가 임과 혼인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와 같이 ⓑ를 원망하는 ⓒ의 말을 들은 ⓑ가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치레를 하여나 주랴.'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이별을 고하는 주체인 ⓑ가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는 ⓒ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이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가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노리개 치레를 하여나 주랴.'라고 말한 것은 ⓒ의 슬픔이 큰 것을 이해하고 그만큼 보상해서 ⓒ를 달래 주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10 고전 시가

본문 073~074쪽

01 ⑤ 02 ⑤ 03 ③

㉮ 작자 미상, 「어사용」

해제 「어사용」은 산에서 남성들이 나무를 할 때 부르던 노래로, 이 작품은 경상북도 울진 지방에서 전해 오는 노래를 채록한 것이다. 「어사용」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 노랫말과 곡조가 다양한데, 깊은 산중에서 홀로 나무를 하면서 느끼는 고독감을 신세 한탄의 형태로 풀어낸 것이 많다. 이 노래에서도 화자는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지만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외침과 바늘 같은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들었다는 한탄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나무하는 일의 힘겨움과 자신의 신세 한탄

구성

- 1연: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타게 부름.
- 2연: 힘든 일을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 3연: 병이 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 작자 미상, 「베틀 노래」

해제 이 작품은 강원도 통천 지방의 노동요로, 부녀자들이 베를 짜면서 노래했다고 해서 '베틀가'라고도 한다. 4·4조 4음보의 운율을 활용하여 뽕잎을 따서 실을 뽑고 옷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노래하고 있으며, 대구법과 반복법, 언어유희와 같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힘겨움을 노래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특히 화자는 베틀을 하늘에 놓고 베를 짠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베를 짜는 선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낭만과 여유를 잃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베를 짜는 과정과 그 속에서 즐기는 노동의 즐거움

구성

- 1~2행: 김을 매며 뽕잎을 땀.
- 3~7행: 실을 뽑아 베를 짬.
- 8~10행: 베로 가족들을 위해 버선과 솜옷을 지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짜궁짜궁'은 베틀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일 뿐, 베틀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화자의 '엄마'가 '북망산천 가'셨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엄마'의 부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화자는 '가는 허리 바늘 같은'과 '황소 같은'이라는 어휘를 대비하여 병이 든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화자는 '부르는 건 울 엄마', '찾는 거는 냉수'라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서 화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엄마'와 '냉수'라고 밝히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동일한 음절을 가진 '갈 적'과 '갈뽕', '올 적'과 '올뽕'을 제시하며 뽕을 따는 자신의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는 산에서 품을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게'는 화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베틀로 옷감을 짜서 버선과 옷을 짓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베틀' 역시 화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진자리 마른자리'에서 '진자리'는 축축하게 젖은 자리를 의미하므로, '진자리 마른자리'가 화자를 위해 마련된 장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삼간방'은 누에를 놓고 청실홍실을 뽑는 장소일 뿐, '삼간방'을 화자가 마련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가)의 '키워 놓고'는 화자를 키우던 '엄마'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화자를 향한 애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뽑아내서'는 청실과 홍실을 뽑는 화자의 행위를 나타낼 뿐, 화자를 향한 관심과는 관련이 없다.

③ (가)의 화자는 '팔공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팔공산'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구름'은 베를 짜는 공간의 비유적 표현일 뿐,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장소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의 화자는 자신이 지은 버선을 오빠에게 드린다고 하였으므로, '드리고'는 화자의 미래의 삶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후려잡고'는 산에서 품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화자의 현재의 삶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기심 매러 갈 적에는 ~ 청실홍실 뽑아내서'는 베를 짜기 위해 필요한 재료인 실을 마련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구절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을 마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베를 짜는 노동의 힘겨움과 단조로움을 이겨 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과 산에서 품을 팔며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다른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팔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현실 인식을 노래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산천은 보니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며 늙어 버린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고 원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나무를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노동이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서울과 강릉뿐만 아니라 하늘과 구름에서도 베를 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지상과 하늘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에 빗대어 자신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외씨같이 버선'을 지어 오빠에게 드리고, '겹옷 짓고 솜옷 지어' 부모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베 짜는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11 고전 시가

본문 075~077쪽

01 ① 02 ④ 03 ②

㉮ 김삿갓, 「영립」

해제 이 작품은 방랑 생활을 하는 화자의 벗이 되어 주며 비바람을 막아 주는 삿갓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칠언 율시이다. 욕심을 버리고 소탈하게 살아가는 방랑의 삶을 드러내면서 겉치장에 불과한 속인들의 위선적 삶과 자신의 삶을 대비하고 있다.

주제 자연을 벗 삼은 방랑 생활의 풍류와 멋

구성

- 1~2행: 빈 배와 같은 삿갓을 사십 년 평생 쓰게 됨.
- 3~4행: 자신의 삶을 목동과 어부의 삶에 빗댐.
- 5~6행: 삿갓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유유자적함.
- 7~8행: 속인들의 삶과 대비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 김삿갓, 「원생원」

해제 이 작품은 어느 지방을 방랑하던 작가가 그곳에 모여 있던 마을 유지들의 푸대접을 받은 후 지은 작품으로 오언 절구에 해당한다. 각 구절 끝의 세 글자는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로 발음되는데, 이는 자신을 푸대접한 마을 유지들을 중의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한 것이다.

주제 하루 종일 화자를 괴롭히는 여러 동물들 / 지방 유지들을 동물에 빗대어 희롱함.

구성
- 1행: 해 뜨자 나타나는 원숭이(원숭이 같은 원 생원)
- 2행: 고양이 지나가고 죽어 있는 쥐(쥐 같은 서 진사)
- 3행: 황혼이 되자 나타나는 모기(모기 같은 문 첨지)
- 4행: 밤이 되자 쏘아 대는 벼룩(벼룩 같은 조 석사)

㉣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여류 시인인 황진이의 평시조이다. 당대의 왕족으로 '벽계수'라 불리던 사람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말을 들은 황진이가 그를 유인하기 위해 지어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빼어난 중의법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퇴락하거나 속되지 않게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조하고 있다. 자연과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낭만과 여유를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풍류 생활의 낭만과 즐거움

구성
- 초장: 수이 감을 자랑하는 청산리 벽계수
- 중장: 한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삶(인생무상)
- 종장: 명월을 즐기며 쉬어 갈 것을 권유함.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방랑 시인 김병연이 지은 작품으로, 방랑 생활을 하는 화자의 상황에 도움을 주는 '삿갓'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도 화자가 겪는 다양한 체험이 제시되고 있는데,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소재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감까지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의 화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화자의 괴로운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다)의 경우 시간의 경과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화자와 임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것도 아니다.

④ (가)의 화자는 방랑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나)의 화자는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을 마주친다는 점에서 괴로운 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참아 내는 태도를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의 경우, 권유의 형식을 통해 현재를 즐길 것을 제안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청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가)와 (다)에는 화자가 마주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자연을 감상하는 화자의 태도도 나타나고 있지만, (나)에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찾아 강조하는 상황이나 장면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언어유희는 마을 유지 '원 생원'과 시행 속 '원생원(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이라는 유사한 소리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표면적 의미를 이해한 뒤 이면적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풍자가 이루어지면서 작품을 읽는 재미를 형성하는 것이다. (나)에 제시된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은 부정적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소재들인데, 이러한 소재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마을 유지들이 (나)의 표면적 의미에만 주목했다면, (나)를 시적 화자가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을 연달아 마주치며 겪는 불쾌한 감정이나 부정적 상황 인식을 주로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할 것이다.

② 마을 유지들이 (나)의 각 행 마지막 세 글자에 주목했다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라는 소리가 자신들을 지칭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곧 김삿갓이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시를 지었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③ 마을 유지들이 (나)의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이 부정적 대상임을 이해했다면, 김삿갓이 자신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창작 의도에 대해 화를 냈거나 스스로 민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⑤ 마을 유지들이 김삿갓이 (나)와 같은 시를 지어 준 까닭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면 김삿갓의 진의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김삿갓을 푸대접했던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 있다. 즉 마을 유지들은 자신들이 풍자의 대상이 된 이유를 떠올리면서 과연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목동'과 '어부'는 화자와 비슷하게 삿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뜻한다. 화자는 그들의 삶을 통해 '삿갓'의 용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을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남들 앞에서 얼굴을 감추며 살던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창

작 배경을 고려할 때 (다)의 '수이 감'은 황진이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려 했던 벽계수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과 〈보기〉에 따르면 (가)의 '정처 없는 내 삿갓'은 시인이 선택한 방랑 생활을 응축한 시어로 볼 수 있으며, (다)의 '명월'은 황진이 자신을 뜻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명월이 만공산'한 상태는 황진이가 '서사와 시가에 능한 문인'으로서 당대에 널리 알려진 당시의 상황을 중의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글과 〈보기〉에 따르면 (가)는 방랑 시인 김삿갓의 삶을 드러내고, (다)는 황진이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낸다. (가)의 '술 취하면'과 '흥이 나면'은 자연을 즐기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의 '쉬어 간들'은 풍류적 삶을 즐길 것을 권하는 작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④ (가)의 '속세 사람'들은 작가의 눈에 '겉치레'에만 신경 쓴다는 점에서 (가)의 작가와 대비된다. (다)의 '벽계수'는 '수이 감'을 '자랑'하고 다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황진이가 (다)를 통해 희롱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⑤ (가)의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가 방랑 생활을 하는 작가가 겪었을 시련이나 고통을 함축하고 있다면, (다)의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는 인생에 대한 작가의 깨달음을 응축한 구절로 인생의 유한성과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01 현대시

본문 078~080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④

(가) 한용운, 「거짓 이별」

해제 이 작품은 부재하는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과 재회하고 싶은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임이 부재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로 규정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이별의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언젠가 재회할 수 있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거짓 이별'은 한용운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시구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경어체 어조를 활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

구성

- 1연: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고통
- 2연: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 3연: 임과 재회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

(나) 조지훈, 「맹세」

해제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다. '거룩한 일월'로 표현되는 임은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그 앞에서 우는 행위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영원한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 유사한 구문의 반복을 활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

구성

- 1연: 임에 대한 뜨거운 열정
- 2~3연: 임을 향한 절실한 마음
- 4~5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6연: 마음이 가난한 '나'
- 7~8연: 임에 대한 지조와 절개
- 9~10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는 '귀밑의 푸른 구름'이 '회색'이 되고 '백설'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귀밑머리 색의 변화를 통해 이별의 시간이 무심히 지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에서는 '붉은 마음'이 '숯'이 되고 '재'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 모습은 변해도 임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서는 '가을볕', '백설'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했지만, ⓑ에서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③ ⓐ에서는 귀밑머리를 '푸른 구름'과 '백설'에 비유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에서는 '마음'을 '숯'과 '재'에 비유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는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붉은 마음'과 '숯'을 색채 대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에서는 화자가 청자인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에서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언제나'는 '거짓 이별'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것일 뿐, '당신'과의 이별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언제'는 '당신'에게 '당신'과 '나'가 현재 이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 활용된 표현으로, 이별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다.

③ (가)에서 '얼마'는 이중 부정 표현에 활용되어, 화자가 '당신'과 이별한 시간을 매우 길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활용된다.

④ (나)에서 '어찌하리야'는 설의적 표현에 활용되어,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다.

⑤ (나)에서 '어이하리야'는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겠다는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활용된 표현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활용된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 '창백한 꽃송이'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며, 화자는 이러한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다. 따라서 '창백한 꽃송이'는 임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화자가 아니라 임과의 만남을 위해 화자가 자신을 희생하여 살리고 싶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도화'는 젊음을 상징하고 '낙화'는 늙음을 상징하므로, '도화'가 '낙화'로 변한다는 것은 젊음을 잃어 가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다.

② ㉡의 식어 가는 '피'와 더워 가는 '눈물'의 대비는 시간이 흘러도 더욱 강해져만 가는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④ ㉣의 '사랑하는 것'은 화자에게 소중한 것으로, 이것을 '다 잃고라도' 임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사랑하는 것'은 임에게 다가서기 위해 희생해야 할 소중한 대상을 의미한다.

⑤ ㉤의 '피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서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들었다. 따라서 '피리의 아픈 가락'을 임에게 듣게 하고 싶은 것은 화자의 지조나 절개를 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 것은 임과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며 살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나)에서 '해 돋는 아침에 죽어 가'겠다고 한 것은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절실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한 화자의 절망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이별의 상황인데, 화자는 이를 '거짓 이별'이라고 주관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② (가)에서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안다는 것은 이별의 상황이 끝나고 떠난 임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

③ (나)에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에서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논다는 것은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화자가 임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나)에서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을 보며 운다는 것은 임과 만났을 때에 느낄 화자의 감격을 표현한 것이다.

02 현대시

본문 081~082쪽

01 ① 02 ⑤ 03 ④

㉮ 김소월, 「접동새」

해제 이 작품은 한(恨)의 정서를 바탕으로 고전 설화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시이다.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함께 살던 가족의 행복이 깨어지고, 의붓어미가 들어와 전처의 자식들을 구박하고 시기를 한다. 결국 의붓어미의 시샘에 시집을 가려던 누나는 죽고,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해 접동새로 환생한다. 의붓어미는 누나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죽어 까마귀가 되는데, 접동새는 까마귀를 피해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만 동생들의 주위를 맴돌며 슬피 운다. 이 작품은 고전 설화의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점과, 전통적인 주제와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현실의 비극적인 삶을 초월한 애절한 혈육의 정

구성

- 1연: 접동새의 슬픈 울음소리
- 2연: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누나
- 3연: 의붓어미 시샘에 죽은 누나
- 4연: 누나가 접동새로 환생
- 5연: 애절한 혈육의 정

㉯ 김광균, 「수철리」

해제 이 작품은 누이동생이 묻혀 있는 묘지를 찾아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노래하는 시이다. 누이동생이 잠든 묘지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함으로써 누이동생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누이동생의 무덤을 살아 있는 화자와 죽은 누이동생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함.

구성

- 산비탈엔 ~ 젖어 있었다: 묘지 주변의 풍경
- 흰나비처럼 ~ 속삭였는지: 비석 앞에서 누이동생의 모습을 그림.
- 한줌 흙을 ~ 스몄다: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3음보로 행과 연을 구성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는 산문적 형식을 띠는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는 감탄사 '오오'를 활용하고 있으나 (나)는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색채가 대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의 주제를 암시한다고 할 수 없다. (나)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다.

④ (가)에서는 '진두강 앞마을'과 '이 산 저 산'이라는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누이동생이 묻힌 묘지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고 있지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는 행의 길이가 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시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도 묘지 주변의 사물들이 나열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적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 '야삼경'은 접동새가 우는 시간으로 동생들을 걱정하며 서러운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는 시간적 배경인 반면, ㉡ '적막한 황혼'은 화자가 누이동생의 무덤가를 찾아가 생각에 잠기는 시간으로 누이동생이 죽고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 모두 시적 대상인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애절함과 관련이 있으나, 화자가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기대하게 되는 원인은 아니다.

② ㉠과 ㉡ 모두 화자와 시적 대상이 이별하게 된 이유를 상징하고 있지 않다.

③ ㉠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로 접동새에 관련된 설화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누나를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개인적인 체험이 설화라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은 일반적인 인식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다.

④ ㉠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죽은 누나를 떠올리는 시간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은 화자가 시적 대상인 누이동생의 부재를 깨닫는 시간이므로 시적 대상이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는 누이동생의 무덤 위에 떠올라 무덤을 비추는 별들을 형상화하며 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죽은 누이동생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붓어미 시샘'은 누나가 죽은 원인을 드러내는 것으로 억울

한 죽음을 당한 누나가 한이 맺혀 접동새로 환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에서는 동생들에 대한 걱정을 거두지 못하는 누나의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③ 아득한 공중을 향해 '여윈 가지를' 내젓는 '밤나무'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죽은 누이동생을 연상시키고 있다.
⑤ '서러운 생각'을 하는 것은 화자이며 '옷소매에 스몄다'는 것은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에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았다는 의미로 화자의 서러움이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3 현대시

본문 083~084쪽

01 ③ 02 ③ 03 ③

㉮ 박용철, 「싸늘한 이마」

해제 이 작품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암울한 상황에 놓인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화자는 가정의 형식을 활용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는데, '산꽃', '귀또리', '별'은 외로운 처지의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대상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와 시상의 점층적 전개를 통해 외로움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고립된 자아의 외로움과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은 바람

구성

- 1연: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산꽃을 통해 위로받고 싶음.
- 2연: 심화된 외로움을 귀또리를 통해 위로받고 싶음.
- 3연: 극한의 외로움을 별을 통해 위로받고 싶음.

㉯ 박용래, 「월훈」

해제 이 작품은 적막한 산골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노인이 사는 곳은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의 '외딴집'으로, 노인이 외부와 단절된 채 살고 있음을 알려 준다. 노인은 한밤에 잠에서 깨어 무나 고구마를 깎아 먹기도 하고, 귀를 모으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는 모두 외로운 처지의 그가 느끼는 무료함,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에서 '짚오라기', '이름 모를 새', '귀뚜라미'는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소재이다. 또 달무리라는 뜻의 '월훈'으로 시상을 종결한 것도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

구성

- 1~2행: 첩첩 산중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
- 3행: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노인
- 4행: 노인이 잠든 후 들리는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
- 5행: 달무리가 진 밤의 적막한 풍경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라도 ~면 얼마나 한 ~이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도 '~을/를 ~고 ~지요.'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면'이라는 형식을 세 연에 걸쳐 활용하여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고독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여 노인이 사는 집, 방 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④ (나)에서는 '후루룩 후루룩', '펄펄'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노인이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는 '외로움', '인광'처럼 명사로 행을 마무리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나)도 '마을', '월훈'처럼 명사로 행을 마무리하여 고독과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까만 귀또리'는 외로운 화자에게 기쁨, 즉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나)의 '겨울 귀뚜라미'는 아무도 찾지 않아 고요하기만 한 노인의 방을 시끄럽게 만드는 존재로, 노인이 느끼는 고독과 슬픔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까만 귀또리'는 화자를 위로해 줄 존재일 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아니다. (나)의 '겨울 귀뚜라미'는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존재일 뿐, 노인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자연물은 아니다.
② (가)의 '까만 귀또리'는 화자의 결핍감을 채워 줄 존재일 뿐, 화

자에게 삶의 충만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는 아니다. (나)의 '겨울 귀뚜라미'는 고독한 노인의 슬픔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 노인에게 삶의 결핍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④ (가)의 '까만 귀뚜리'는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줄 수 있는 존재일 뿐, 도래할 밝은 미래를 연상하게 하는 존재는 아니다. (나)의 '겨울 귀뚜라미'는 노인의 현재 처지를 나타낼 뿐,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⑤ (가)의 '까만 귀뚜리'는 외로운 화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심리를 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겨울 귀뚜라미'는 노인의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노인의 긴장된 심리를 이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얼마나 한 위로이랴'는 '산꽃'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는 외딴집의 노인이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일 뿐,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노인의 절망감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큰 어둠'은 암울한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 속에 홀로 앉아 '눈덮개 고이 나리'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을 감고 고독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② (나)에서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 '갱 속 같은 마을', '후미진 외딴집'은 노인이 사는 마을과 집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곳임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노인의 외로움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은 극한의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고, (나)에서 '홀로 잠이 깨어' 무나 고구마를 깎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무료함을 달래는 노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노인이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⑤ (가)에서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은 외로움으로 신경이 매우 예민해진 화자의 상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나)에서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는 것은 외로움으로 인해 외부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04 현대시

본문 085~087쪽

01 ① 02 ⑤ 03 ④

㉮ 정지용, 「그의 반」

해제 이 작품은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구도적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화자가 경외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불', '달', '금성', '고산 식물'은 '그'를 고결하고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그'는 '머언' 곳에 있는 존재로 화자가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그럴수록 화자는 '수그'리며 두 손을 '여미'며 경외감을 드러낼 뿐이다. '그의 반'은 '그'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절대적 존재인 '그'에 대한 존경과 경배

구성

- 1행: '그'에 대한 '나'의 경외심
- 2~6행: 고결하고 고고한 존재인 '그'
- 7~10행: '그'에게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의 처지
- 11~14행: 절대적 존재인 '그'에 대한 '나'의 존경심

㉯ 강은교, 「사랑법」

해제 이 작품은 상징적 시어를 활용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화자는 사랑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명령하듯 말하고 있다. '침묵'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행위로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침묵과 관조의 자세로 사랑을 기다릴 때 사랑의 절대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서술어의 생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참된 사랑에 이르는 방법

구성

- 1~3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침묵할 것
- 4~6연: 사랑하는 사람을 관조하는 자세로 기다릴 것
- 7연: 침묵과 관조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절대적 경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서 '이마에 비추는 달', '나래 떠는 금성', '고산 식물' 등의 자연물은 공경의 대상인 '그'의 특성을 비유한 것이다. [B]에서 '흐르지 않는 강물', '누워 있는 구름', '잠깨지 않는 별' 등의 자연물은 무기력하고 활력을 잃은 '그대'의 특성을 비유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와 [B]에는 모두 열거법이 사용되었지만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A]에만 나타나 있다.

③ [A]와 [B]에는 모두 자연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연과 합일하

려는 자세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④ [A]와 [B]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형상화할 뿐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⑤ [A]의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에는 동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B]의 '굳은 날개', '흐르지 않는 강물'에는 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가장 큰 하늘'로 표현되는 진정한 사랑의 경지가 '그대'가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까이 있었지만 미처 찾지 못했던 사랑의 절대적 경지는 긴 침묵과 관조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감히 이름을 붙이거나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를 경외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 '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한탄과 스스로에 대한 책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은 화자와 '그'와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어려움을 나타낼 뿐, '그'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③ ㉢은 본원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의 한계 의식을 나타낸 것일 뿐, 절대적 존재인 '그'에게 다가갈수록 괴로움이 심화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④ ㉣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관조하는 자세를 지니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 뿐, '그대'가 소망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꽃', '하늘', '무덤'은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는 소재로, 화자가 서둘지 말아야 하고 침묵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서둘지 말'라는 시구에 담긴 의미는 사랑을 얻기 위해 조급해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롭고, '항상 머언' 곳에 있다는 것은 '그'가 고고하고 깨끗한 성품을 지닌 절대적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다.
② (가)에서 '그의 반'은 화자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드러낸 것으로, '고이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절대적 존재인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③ (나)에서 '침묵할 것'과 '실눈으로 볼 것'은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존재와 자신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⑤ (가)에서 '오로지 수그릴 뿐'은 절대자인 '그'를 경외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그'에 대한 사랑의 방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떠나게 하고', '잠들게 하고'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는 모습으로 화자가 '그대'에게 알려 주는 바람직한 사랑의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05 현대시

본문 088~090쪽

01 ③ 02 ⑤ 03 ①

㉮ 유치환, 「학」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학'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학'의 모습은 고고하고 지조 높은 전통적인 대상이 아니라 슬픔과 향수에 젖어 남루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학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화자의 처지와 자기 인식은 '마르는 학'이라는 표현을 통해 집약되고 있다.

주제 슬픔과 향수에 젖어 있는 처량한 자기 인식

구성

- 1연: 학과 같은 화자
- 2연: 슬픔에 잠긴 화자
- 3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
- 4연: 아득한 꿈을 꾸는 화자
- 5연: 남루하고 고독한 화자의 처지
- 6연: 마르는 학과 같은 화자

㉯ 김용택, 「저 새」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산속에 갇혀 우는 '저 새'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표현하고, '깃쳐 오를 새하얀 새'와 어둠을 태우며 타오를 '산'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

구성

- 1~3행: 암울한 현실에서 울고 있는 새
- 4~10행: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 11~14행: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
- 15~18행: 암울한 현실 인식과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

0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화자는 '저 남산 꽃산에 / 우우우 꽃 피러 가세'와 같이 부정적 현실이 개선된 세상을 지향하고 있으며, '저 어둠 태우며 / 타오를 산아'와 같이 언급한 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쇠잔한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바람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3연에서 화자가 자신과 다른 타인의 모습을 대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초라하고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관찰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화자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그러한 고향으로 가는 복된 길을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향의 평화로운 모습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나)의 화자 역시 고향의 평화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곳이 고향의 모습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은 화자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쇠잔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활용한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은 '저 산'에 갇혀 울고 있는 존재로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외롭고 남루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대상일 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환기하거나 화자가 겪는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짐작하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은 '저 산'에 갇혀 울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을 환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자가 겪는 문제의 원인과도 관련이 없다.

③ ㉠은 부정적 현실 속에 있는 초라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대상일 뿐 화자의 변화하는 심리를 나타내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 역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대상일 뿐 화자의 일관된 심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이 일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화자가 느끼는 삶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4연에 제시된 '솔바람 소리'는 긍정적 상징성을 지닌 시적 대상으로 청량함의 이미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요원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솔바람 소리'가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올빼미'는 밤에 시력이 온전해지는 동물로 계절에 관계없이 다른 생명이 잠든 밤마다 두 눈을 밝히고 밤을 지새우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가)에서는 '올빼미처럼 춥고'라는 표현을 통해 '올빼미'가 겨울밤에도 잠들지 않고 추위를 견디는 시적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올빼미'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남루하고 고독한 자신을 '한 오래기 갈대'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갈대'는 마르고 연약한 외형을 지닌 대상으로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쇠잔해져 가는 화자를 형상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꽃'은 아름다운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꽃산에 / 우우우 꽃 피러 가세'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새하얀 새'는 어둡고 캄캄한 산이 아닌 '꽃산'에서 '깃쳐 오를' 대상이다. 그러므로 '새하얀 새'는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동경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된 시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06 현대시

본문 091~094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②

㉮ 윤동주, 「참회록」

해제 이 작품은 암울한 시대 상황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러난 시로 평가받는다. 과거 자신의 삶을 욕된 것으로 인식하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와 같은 탄식으로 참회를 갈음하던 화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전망하면서 그때 자신이 '부끄런 고백', 즉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 즉 치열하고 처절한 자아 성찰이 요구됨을 인식한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결과 자신이 '홀로', '슬픈' 희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닫고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숙연함을 느낄 수 있다.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

구성

- 1~2연: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참회
- 3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새로운 참회의 필요성
- 4~5연: 치열한 자아 성찰을 통해 확인하는, 희생과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겠다는 의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해제 이 작품은 암울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직시를 통해 희망적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민중이 구속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먹구름', '쇠 항아리'를 하늘로 착각하고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으며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실 직시를 통해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명령형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1연과 9연에서 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 억압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과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의 의지

구성

- 1~3연: 자유와 민주가 억압된 부정적인 삶
- 4~6연: 부정적인 현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 촉구
- 7~8연: 부정적 상황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
- 9연: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 욕될까', '~ 살아왔던가', '~ 했던가'와 같은 의문문 형식의 문장을 통해, (나)에서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와 같은 의문문 형식의 문장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1연과 9연에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동일한 시구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에서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의 '줄이자', '닦아 보자'는 타인에게 함께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닦아라', '찢어라'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어조로, 함께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어조가 아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는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외경'을 알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하늘'을 본 사람은 삶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 자기 변화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리라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 이다지도 욕될까'라는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이다지도'를 통해 부끄러움이 강조되고 있다.

② '그때 그 젊은 나이'는 미래의 시점에서 화자가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때에 쓴 참회록의 내용이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라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③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는 구속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먹구름', '쇠 항아리'를 하늘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서럽게 / 눈물 흘려'는 진정한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취하는 연민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진정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관련 있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사람'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미래의 어느 날 도달하게 될 화자의 모습이다. ㉡의 '사람들'은 억압된 현실에 대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의 '사람'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달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 '사람들'은 억압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집단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③ ㉠의 '사람'은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의 '사람들'은 부정적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변하는 세태에 대해 회의할 수 있는 존재라 할 수 없다.
④ ㉠의 '사람'은 자기반성을 통해 희생과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려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다. ㉡의 '사람들'은 자유나 민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존재이므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려 했던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⑤ ㉠의 '사람'은 타자의 생각이나 가치를 외면하려 했던 존재가 아니다. ㉡의 '사람들'은 타자의 생각이나 가치를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을 몰랐던 존재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그 어느 즐거운 날'은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는 날이며, 여태까지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맞이하게 되는 날이다. 따라서 주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반성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가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고 쓰는 '참회의 글'은 주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자신은 무엇을 바랐기에 무기력하게 살아왔는지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는 것이다.
③ (가)에서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 '밤마다 나의 거울'을 '닦아 보'는 행위로 대응하며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사람들'이 본 것을 '먹구름'과 '쇠 항아리'라고 하며 진정한 하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억압적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⑤ (나)에서 화자는 '누가 ~ 하는가'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공론화하고 있다.

07 현대시

본문 095~097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 박목월, 「층층계」

해제 이 작품은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화자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던 화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들어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층에 올라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며 팽팽한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낀다. 글은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공허감'으로 몰려와 화자는 스스로를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의 '곡예사'와 같다고 느낀다.

주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구성

- 1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씀.
- 2연: 자신이 초라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함.
- 3연: 잠들어 있는 자식들을 바라봄.

㉯ 이대흠, 「동그라미」

해제 이 작품은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노래한 시이다. 어머니의 말투에는 'ㅇ'이 들어 있으며, 어머니의 모습은 허리가 굽어져 동그라미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그라미에 가까운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시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과 닮아 있다.

주제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

구성

- 1연: 둥글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투
- 2연: 어머니의 말투에서 동그라미를 발견함.
- 3연: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
- 4연: 자신의 것을 다 나누며 허리가 굽어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
- 5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당부
- 6연: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어머니의 사랑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어느 것은 어린것의 공납금. / 어느 것은 가난한 시량대. /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과 같은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열거되고 있다. (나)에서는 '~ 말은 ~가 된다'와 같은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열거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자식인 화자가 어머니의 사랑과 삶의 태도를 생각하며 예찬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반면, (가)는 아버지인 화자가 깊은 밤 잠든 가족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상념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늦은 밤이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으나 (나)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특정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포름쪽쪽'이, (나)에서는 '푸르딩딩'이 활용되고 있으나 대상이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유리창을 통해 만난 수척한 얼굴은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이는 가족을 위해 늦도록 일하지만 넉넉해지지 않는 형편으로 걱정과 근심, 자괴감을 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지 글을 쓰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는 태도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적산 가옥의 이 층에서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늦게까지 글을 쓰며 노력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② 글을 써서 받게 될 '지폐'는 '가난한 시량대'가 된다. 시량대는 땔감과 식량을 마련할 비용으로 '가난한 시량대'는 땔감과 식량을 구입할 돈이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화자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향한 말에서도 '한사코 ㅇ'으로 '떠받들고 있'는 어머니의 말은 3연에서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진술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항상 남들을 존중하며 살아오셨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식을 향해 '오손도순' 살라는 어머니의 당부는 당신이 평생을 주변 사람들을 받들고 살아오셨던 것과 같이 자식들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담고 있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막다른 골목 끝'은 화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끼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한 공간이다. '흙 속'은 어머니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는 농사를 지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음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공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생계를 위한 자신의 노력을 가족이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다.

② '흙 속'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을 드러내는 공간이지, 화자와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 아니다.

③ '막다른 골목 끝'과 '흙 속' 모두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대상에 대한 부러움과는 관련이 없는 공간이다.

④ '막다른 골목 끝'은 화자의 절박한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공간이다. '흙 속'은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공간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는 자식의 목소리를 통해 진술된다. 자식으로 설정된 화자는 허리가 굽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시고 함께 살기를 당부하시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있으며, 화자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나 감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허리가 굽게 되는 습관을 고치시기를 희망하는 애처로운 목소리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인 '나'가 생계를 위해 쓰는 글은 '가랑잎'에 비유되고 있다. '가랑잎'은 마른 잎으로, 가벼움과 적은 부피감을 연상시켜 공허감으로 이어진다. 이 정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벌이가 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담긴 것이다.

②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사다리의 네모 칸과 원고지의 네모 칸이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③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은 'ㅇ'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착안한 표현으로, 어머니의 허리가 동그라미에 가깝게 굽은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이 층으로' '올라'가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허리가 완전히 굽도록 자식을 위해 '살리는 것들'을 쏟아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08 현대시

본문 098~100쪽

01 ④ 02 ⑤ 03 ④

㉮ 구상, 「초토의 시 1」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전쟁을 목도한 시인이 자신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열다섯 편의 연작시 중 하나이다. 초토(焦土)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우리 조국을 일컫는다. 연작시의 1편인 이 시에서 화자는 초토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발견한다.

주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구성
- 1연: 전란 후 폐허 속에 있는 아이들을 봄.
- 2연: 전쟁의 비극을 인식하며 괴로워함.
- 3연: 잿더미 속에서 개나리를 발견함.
- 4연: 언덕을 내리닫는 순수한 소녀의 미소를 봄.
-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봄.

㉣ 곽재구, 「새벽 편지」

해제 이 작품에서 화자는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쓰는 행위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는 가운데 사랑과 희망의 시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기대와 관련하여, 새벽은 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아침은 화자가 지향하는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주제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소망

구성
- 1~4행: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 5~14행: 아침을 맞이할 준비
- 15~18행: 사랑과 희망의 세계에 대한 기대

01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아이들', '개나리', '소녀'를 바라보고, 이를 통해 촉발된 슬픔, 희망, 순수 등의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 (나)의 화자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촉발된 희망과 기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일부 확인되지만, (나)에서는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는 여러 가지 시적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만 대상이 지닌 속성이 열거된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가)는 화자의 공간 이동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자의 표정과 위치 등이 변화하고 있어 정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고 볼 수 없다. 또 (나)에는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화자의 희망과 기대가 드러나고 있을 뿐 역동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상 전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화자가 처한 현실과 화자의 내면 세계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아무 죄 없이 고생하는 '아이들'과 이를 안쓰럽게 마주하고 있는 화자에게 비추는 햇발을 의미한다. 이때 눈부시어 돌아서는 주체는 화자가 안쓰럽게 여기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 해바라기처럼 걸려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비추고 있는 햇발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본 화자 역시 돌아서고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 '아이들'에 대한 화자의 안쓰러운 마음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맞이하게 되는 따뜻한 햇살이다. 따라서 ㉡은 부정적 현실이 종식된 상황의 긍정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쓰러운 마음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은 화자 또는 햇발 자신을 돌아서게 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에 이상적 세계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쓰러운 마음을 환기하는 대상일 뿐, 화자의 내면적 성숙을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④ ㉠은 어린아이 앞에 있는 어른, 즉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 화자가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일 뿐 화자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망각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개나리'를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지만, 골목에서 멈추는 행위 자체를 고통스러운 현실의 극복을 위한 화자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 (나)에 제시된 '깊숙한 뜨거움'과의 만남은 고요한 새벽에 화자가 갖게 되는 정서를 표현한 것일 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분신인 '그림자'는 처음에는 울상이 된 채 화자의 뒤를 따르지만 화자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흥그러워지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서게 된 것은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새벽 편지를 쓰'는 행위는 화자가 동경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밝아 올 아침'을 기다리며 행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새벽 편지를 쓰'는 행위에는 '밝아 올 아침'을 맞이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는 '아이들'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천진함을 잃지 않은 대상이지만 6·25 전쟁이라는 부정적 현실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또 (나)의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개나리'는 부정적 상황에서 화자와 마주하게 되면서 화자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게 하는 소재이다. 또 (나)의 '반짝이는 별'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으로 화자는 이를 보고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개나리'와 (나)의 '반짝이는 별'은 모두 화자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발견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09 현대시

본문 101~103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②

㉮ 신경림, 「폐촌행」

해제 이 시는 폐광으로 인해 황폐화한 광산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저기 빈집들이 있는 쓸쓸한 마을을 둘러본 화자는 그 정경을 담담히 묘사한 뒤, 마을에 남아 있는 노인에게서 들은 옛 동무들의 근황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의 직접적 노출을 자제하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주제 퇴락한 광산촌의 쓸쓸한 정경

구성

- 1연: 폐촌이 된 마을의 어느 빈집 안마당
- 2연: 빈집의 부엌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와 편지
- 3연: 어떤 노인에게서 전해 들은 옛 동무들의 소식

㉯ 고재종, 「세한도」

해제 이 시는 힘겨운 농촌 현실과 그 안에 존재하는 희망에 관한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화자는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마을 회관, 비닐하우스, 까막까치 얼어 죽는 아침 같은 소재들과, 현실 극복의 의지나 희망을 표상하는 청솔 같은 소재를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 청솔의 푸른 색채와 아침 해의 '꼭두서니빛'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주제 농촌의 힘겨운 현실과, 그것을 견디게 하는 희망

구성

- 1연: 기울어 가는 마을 회관과 꼿꼿이 서 있는 청솔
- 2연: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마을 회관과, 아픔을 간직한 청솔
- 3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련을 견디는 청솔
- 4연: 퇴락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이들의 의지
- 5연: 시련으로 인한 서러움을 어루만지는 청솔
- 6연: 가혹한 상황에서 발견하는 미래의 희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상의 반전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 보아라.'라는 명령형 문장을 통해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가)뿐 아니라 (나)도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의 서술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복사꽃'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부각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2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대문짝마저 떨어져 나간 폐가 안마당에 핀 복사꽃의 색깔인 것은 맞지만,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퇴락하여 '폐촌'이 되어 버린 마을 모습을 묘사하면서 화자는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작품 속에 묘사된 풍경과 조응하는 화자의 감정을 짐작해 보면 분노보다는 서글픔과 쓸쓸함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오래 방치된 가마솥에 슨 녹의 색깔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취사를 위해 솥을 사용한 일이 없었을 폐가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은 둥치가 터지고 갈라진 아픔을 겪으며 마을 회관 옆에 꼿꼿이 서 있는 청솔이 뜨고 있는 눈의 색깔이다. 따라서 아픔을 견

디며 마을을 응시하는 굳은 의지와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청솔을 스치고 지난 바람, 즉 청솔이 풀어내는 숨결의 색깔인데, 그 숨결은 청솔이 '삭바람마저 빗질'하고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 슬픔을 정화하는 청솔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아침에 동녘에서 떠오르는 해의 색깔이다. 화자는 자신이 희망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아침 해의 빛깔을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해가 '까막까치 얼어 죽는' 추운 아침에도 어김없이 뜬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구에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가 올 것을 기대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는 폐촌이 된 마을에 남아 있는 이로, 화자가 궁금해하는 옛 동무들의 소식을 들려주는 존재이다. 그러나 ⓑ는 화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화자나 화자의 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떠나 폐촌이 된 마을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노인으로 볼 수 있다.
② ⓐ와 ⓑ 모두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④ ⓑ가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다고 한 것은 때때로 슬픔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는 화자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을 뿐 현실 극복의 의지를 일깨운 것은 아니며, (나)의 화자로 하여금 현실 극복의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가 아닌 '청솔'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앰프 방송'은 과거에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것이므로 생산 증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의 '편지'는 그 집에 살고 있었을 여인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친정어머니한테 쓰다 만' 것이 폐가 안마당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촌을 떠나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한 소회를 담고 있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부엌 바닥'에 '잡초가 우거진' 것은 그곳에 살던 이들이 향촌을 떠나 집이 버려졌기 때문이고, (나)에서 '마을 회관'이 '날로 기우듬해 가는' 것도 황폐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함의하는 것이다.
③ (가)에서 '폐광'은 문을 닫은 광산을 의미하므로,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광업의 쇠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광산촌에서 활기가 사라졌으므로 '빈집'이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옛 동무들이 서울의 '산동네'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다. 이는 그들이 〈보기〉의 설명대로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하여 빈민층에 편입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⑤ (나)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마을은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이자 '난장 난 비닐하우스'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농촌이 새마을 운동 같은 국책 사업을 통해 생산 증대와 향촌 발전을 꾀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영속적이지는 못했다고 한 〈보기〉의 설명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10 현대시

본문 104~106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 장석남,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

해제 이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감상하다가 떠오른 상념들을 차분하게 들려주는 시이다. 화자는 혼자 그림의 제목을 바꾸어 보기도 하면서 그림에 빠져 있다가, 문득 박수근 화백의 일화를 떠올린다. 그것은 저녁 무렵 외출을 앞둔 박수근 화백이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 놓곤 했다던 이야기이다. 이 시는 박수근 화백의 일화를 '할머니', '손주' 같은 제목이 어울릴 듯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배치함으로써, 박수근과 그의 그림 사이에 존재하는 소박함이나 소탈함 같은 공통점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어 '성자', '장엄', '멋쟁이' 같은 시어들을 동원해 소박했던 박수근의 삶과 예술을 예찬한다. 한편 '그러나'부터는 시상이 전환되어 '성자'처럼 느껴졌던 박수근 화백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있던 '햇빛', '뻐꾹새 소리', 그림의 주제로 삼았던 '가난'이나 '그리움' 같은 애잔한 것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그것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고 또 무엇이 되어 오는지 궁금하다며, 그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의 한계에 대한 근원적 애상감과 통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주제 소박한 삶과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존재의 한계에 대한 근원적 애상감

구성

- 1행: 박수근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에 관한 일화를 떠올림.
- 2행: 박수근을 따라 떠났을 것들을 떠올리며 서글픈 궁금증을 갖게 됨.

김명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여 쓴 시이다. 김정호는 이전에 편찬된 지도들을 집대성하여 조선의 국토 정보를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인은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 끝까지 홀로 걸으며 느꼈을 고단함과 외로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을 상상하여 노래하고 있다.

주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감과 그리움

구성

- 1연: 바다 끝에 도달하여 마주한 풍경
- 2연: 바다를 보며 느끼는 고독감과 '모래벌'의 풍경
- 3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의 모습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나)에서는 '파도로서 풀어지느냐'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선의 이동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② (가)는 그림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 보는 행위를 하고 있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고 볼 수 없다. 또 (나)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피얼룩'과 '파도', '어둡고 외진 길목'과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 등이 대비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가)에서는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지 않다.

④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는 박수근은 죽고 없지만 그와 함께했던 순수했던 존재들의 행방이 어찌 되었을까 궁금해하며 '햇빛들'이 다시 어느 예술가의 장엄한 손길 위에 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해 보고 있다. 이는 감동적인 작품을 다시 창작하겠다는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쇄한 박수근의 그림을 사다가 걸어 놓고 우두커니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시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② '~ 했다는 것입니다'로 진술되는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화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③ 박수근 화백의 커다란 손 위의 햇빛들을 '꼼지락거렸을 햇빛들'이라고 상상하며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죽고 사라지는 것들에서 존재의 유한성을 느끼며 슬퍼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화자는 박수근의 그림의 제목을 달리 붙여 보는 행위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애써 왔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만족감을 느꼈던 때도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공존할 수 없는 과거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으나, ⓑ에는 공존할 수 없는 과거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② ⓐ와 ⓑ 모두 생활고에 따른 괴로움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③ ⓐ에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어 내면을 성찰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에서는 박수근의 그림에 가족과 관련된 이름을 붙여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가족을 회고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에서는 만족감을 느꼈던 때도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어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서글픔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보기〉에서 박수근 화가는 서민들의 소박한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려고 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박수근 화가가 서민들의 일상적 생활에 주목하며 할머니, 손주 등 일상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들의 가난을 표현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에서 박수근이 가지고 갔을 '가난'이나 '그리움' 같은 것이 박수근 작품의 주된 주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을, 서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가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본 그림은 박수근 화백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 볼 수 있으며, 화자가 박수근 화백이 빨래를 걷어다 개어 놓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박수근 화백의 삶에 대해 상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아득히 헤맨 날들'을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헤진 발바닥', '감발에 번진 피얼룩'은 먼 길을 걸으며 생긴 상처들로 김정호가 겪었을 고난을 상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나)에 사용된 배의 이미지를 김정호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덩그렇게' 남겨진 '폐선된 목선'은 지도를 제작하고자 했던 김정호의 외롭고도 쓸쓸한 처지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에 사용된 배의 이미지를 김정호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는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길 위를 떠도는 김정호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현대시

본문 107~109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③

㉮ 송수권, 「나팔꽃」

해제 이 시는 나팔꽃 줄기가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삶의 교훈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이제 더는 휘감고 뻗어 나갈 데가 없어서 그만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팔꽃 줄기가 굽히지 않는 의지로 허공을 향해 뻗어 나가며 바지랑대를 찾고 기어이 예쁜 꽃까지 피우는 것을 본 뒤, 우리의 삶도 한계 상황에서 슬픔과 절망을 이겨 낼 때 진정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 끊임없이 뻗어 나가는 나팔꽃을 보며 깨달은 삶의 가치

구성

- 1~9행: 예상과 달리, 멈추지 않고 뻗어 나가는 나팔꽃 줄기
- 10~11행: 나팔꽃 줄기로부터 깨달은, 시련을 이겨 내는 삶의 참된 가치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해제 이 시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그 의미를 통해 제약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와 협력의 가치를 탐구한 작품이다. 화자는 '~은/이 아니었을 것이다', '~ 아니었으면', '~ 못했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 진술들을 활용하여 가지가 담을 넘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 준 존재들을 부각하면서, 심지어 가지에게 장애물로 작용했을 것들, 즉 비나 폭설, 그리고 담 자체마저도 가지가 신명 나게 담을 넘는 시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제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의미

구성

- 1연: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내적인 원동력
- 2연: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외부의 시련들
- 3~4연: 가지에게 담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의 반복을 통해, (나)에서는 '가지가 담을 넘을 때'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작품이 아니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가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다.

④ (가)는 '~ 나는 법일까.'라는 의문형 진술로 시상을 마무리했지만 회의적 태도와는 무관하며, (나)는 의문형 진술로 시상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현되어 있는 작품은 아니며, (나)의 화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비'를 '고집 센' 존재로 그린 것이므로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줄기차게 내린 비가 가지에게는 오히려 담을 넘는 일을 신명 나게 느끼도록 해 주는 외적 요인이었다는 의미일 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두세 개의 종'은 줄기에 피어난 두세 송이의 나팔꽃을 의미하는 은유이다.

② ㉡에서 '푸른 종소리'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된 것인데, 이는 강인한 의지로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면 고양

된 삶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 즉 나팔꽃 줄기를 보며 느낀 바를 우리의 삶에 대한 것으로 확장하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에서는 '목련 가지', '감나무 가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 등을 열거하며, 용기를 내어 담을 넘는 일이 비단 '수양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어형(語形), 즉 단어의 형태가 유사한 '도박'과 '도반'을 이용한 시구이다. 이 시구는, 가지에게 있어서 담을 넘는다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일이겠지만, 애초에 담이 있었기에 가지가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가 보기에 더는 감아쥘 바지랑대가 없는 나팔꽃 줄기의 성장은 그만 멈출 것 같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보게 되는 나팔꽃 줄기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를 통해 부각되어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뿌리', '꽃', '잎', '비', '폭설' 등보다 '담'의 역할이 더 컸음을 강조하는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다음 날 아침'에 대한 언급에 사용되었으므로 화자가 인지하는 시간의 경과와 관련이 있으나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 ⓑ는 화자가 처한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는 화자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다음 날 아침'에 전개되었음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는 동일한 상황의 지속적 반복에 대한 회고와 관련이 없다.

③ ⓐ는 화자의 감정 이입과 관련이 없다. 또 (나)에서 화자와 대상의 위치가 뒤바뀐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④ ⓑ는 '담'의 역할에 주목하게 하므로 화자가 의도한 시상 전개의 방향으로 초점을 유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응시하는 방식으로의 시상 전환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화자가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팔꽃 줄기가 감아쥘 바지랑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처럼 우리의 삶이 절망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시련을 극복하고 삶이 고양되었다는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나팔꽃 줄기가 맞닥뜨린 '바지랑대 끝'은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화자가 '끝이다 끝 하고' 생각하게 되는 한계 상황을 환기하는 것이다.

② (가)의 화자는 더는 감아쥘 바지랑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꽃을 피워 내는 '나팔꽃 줄기'를 보며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는 삶의 교훈을 떠올린 것이다.

④ (나)의 화자는 뿌리, 꽃,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는 '한없이 떨기만' 했으리라고 짐작한다. 이는 만일 다른 부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었다면 가지는 담을 넘으려는, 즉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⑤ (나)에서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 담 밖을 가둬 두는' 존재인 '금단의 담'은 자연물, 즉 '가지'가 의지를 통해 이겨 내야 하는 현실의 제약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01 고전 산문

본문 110~114쪽

01 ④ 02 ③ 03 ③

㉮ 작자 미상, 「이야기꾼 오물음」

해제 이 작품은 흔히 '이야기꾼 오물음'으로 불리는 문헌 설화로서 『청구야담』에 실려 있다.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인색하고 아집이 강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거나 나눠 주는 법이 없는 어느 종실 노인을 재담가인 오물음이 재치 있는 이야기로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제 이야기꾼 오물음의 뛰어난 이야기 솜씨

전체 줄거리 이야기꾼 오물음은 옛이야기를 잘하여 두루 재상가에 출입을 했다. 큰 재산을 지닌 종실 노인 하나가 연로하였음에도 성품이 인색하여 자손들에게 재산 분배를 할 기색이 없었다. 그 종실 노인이 오물음을 불러 이야기를 청하자 오물음은 이야기 하나를 꾸며 내어 들려주었는데, 이야기의 내용인즉 인색한 삶을 살면서 이승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승을 떠나더라는 것이었다. 종실 노인은 그 이야기가 자신을 일깨우려는 것임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생각과 행동을 고쳤다.

㉯ 작자 미상, 「이야기 주머니」

해제 이 작품은 흔히 '이야기 주머니'라고 불리는 구비 설화이다. 여기에는 『한국구비문학대계』 2-2에 수록된 박광철 구술본을 가져왔다. '이야기 주머니'는 이야기와 이야기하기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의 메타 설화이다. '이야기 주머니' 설화가 말하려는 바는 들은 이야기는 반드시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해지고, 더해지고 재구성되어야 이야기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된 지문은 1980년 8월 11일, 박광철(강원도 춘성군 북산면)이 구술한 내용을 서대석이 기록한 것이다.

주제 이야기와 이야기하기의 본질적 특성

전체 줄거리 글공부하는 젊은 도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어만 두고, 남에게 전하지 않았다.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은 사악한 귀신이 되어 자신들을 주머니에 가둔 도련님을 결혼 날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다. 도련님의 하인이 그 계획을 엿듣고는 결혼을 위해 떠나는 도련님을 따라나서고,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부터 도련님을 구한다. 하인이 도련님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니, 도련님이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 주어 이야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오물음'은 자신이 종실 노인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그 이야기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꾸미었다. (가)에서 '오물음'이 종실 노인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끝부분에 보면 '소인이 아까 노상에서 우연히 상행을 만나 ~ 곧 이동지의 유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 이야기가 직접 목격한 일임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오물음'은 '사람은 모름지기 너그러워야 한다.'라든가 '사람은 인색해선 안 된다.'와 같은 관념적 설명을 통해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안 갑부 이동지'라는 구체적 인물의 자세한 행적을 통해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글쓴이가 '오물음'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외부 이야기를 이루면서 그 안에 '오물음'이 '종실 노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다.

③ (가)는 자기 생각이 강하여 남의 의견을 수용할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종실 노인'을 오로지 이야기의 힘만으로 변화시킨 오물음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지어낼 수 있는 '오물음'의 탁월한 이야기 능력이다.

⑤ (가)에서 고집스러운 '종실 노인'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오물음'의 이야기였다. 여기서 독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이야기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은 억압받는 구술 문화의 상징으로, 글공부하는 젊은 도련님은 문자 문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이 젊은 도련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은 구술 문화의 지배에 대한 문자 문화의 저항이 아니라 문자 문화의 지배에 대한 구술 문화의 저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도련님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남에게 다시 이야기로 전파하지 않고, 문자로만 기록해 두는 인물이다. 이는 도련님이 글공부를 해 온 양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 문화 속에서 성장해 문자 문화에 보다 익숙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구술 문화는 사람들 사이에 구비 전승될 때 생명력을 얻고 더 발전한다. 그런데 구비 전승되던 이야기가 도련님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고 주머니에 가두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은 문화사의 맥락에서 구술 문화가 생명력을 잃고, 문자 문화가 발달해 가던 역사적 상황이 상징적으로 표

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 전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볼 때 도련님은 문자 문화를,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은 구술 문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인은 그 신분이 구술 문화에 가까운 하층민이지만 도련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문자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하인이 도련님을 살리고 아울러 도련님에게 말해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를 풀려나게 했다는 내용은, 그가 문자 문화와 구술 문화 양쪽을 모두 수용하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문자 문화를 상징하는 도련님이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었다는 내용은, 문자 문화가 주도권을 갖게 된 문화적 상황에서 구술 문화 또한 소멸하지 않고 공존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이야기와 이야기하기의 본질적 특성에 관해 설명하는 메타 설화로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될 때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보편적 윤리 규범을 이야기의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나)가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공적 지혜로서 보편적 윤리 규범을 주제로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가)는 '오물음'이 지닌 이야기꾼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에 대한 글쓴이의 높은 평가를 제시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의식을 일깨우고,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의 힘에 관한 글로도 읽힐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글로 쓰여진 이야기인 문헌 설화로서 문자 문화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가)는 그 내용이 '행위의 계기 → 행위의 실행 → 행위의 결과'라는 논리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논리적 구성은 〈보기〉의 'ㄱ'에 언급된 문자 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② (나)는 말로 전승되는 구비 설화를 채록한 것으로 구술 문화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나)에서 구연자는 옛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동네서 살 꺼 같음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라고 말하며 구연자가 현재 놓여 있는 시·공간적 상황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보기〉의 'ㄴ'에 언급된 구술 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④ (나)에 '겨우 나는 그놈엣걸 줏어듣다 보니깐 그저 한 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라는 내용에서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밖'의 구연자이고, '그놈엣걸'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의 존재(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이다. 여기서 작품(이야기)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구술 문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특징은 〈보기〉의 'ㄹ'에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 보면, 같은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표현이 장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보기〉의 'ㄱ'에 언급된 내용인 구술 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02 고전 산문

본문 115~117쪽

01 ⑤ 02 ③ 03 ⑤

■ **작자 미상, 「조신의 꿈」**

해제 이 작품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신라 하대의 설화이다. 승려 조신이 태수 김흔의 딸과의 결연을 소망하나 꿈속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정토사'라는 절을 세우고 수행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꿈–현실'이라는 환몽(幻夢) 구조와 액자식 구성 방식이 드러나는데, 이는 인물이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보여 주며 동시에 '인생무상(人生無常)'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이 작품은 '정토사'라는 절이 건립된 과정을 보여 주는 사찰 연기 설화라는 점, 혼란한 신라 하대의 상황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

전체 줄거리 세달사의 장원을 관리하던 승려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연모하게 되어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녀에게 배필이 생기고 이에 욕망이 좌절된 조신은 슬피 울다 잠이 든다. 꿈속에서 만난 김 씨의 딸은 조신을 사모하여 찾아왔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오십여 년의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조신의 가족은 가난으로 인해 유랑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김 씨의 딸은 조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조신은 김 씨의 딸과 헤어져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조신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우고 수행에 정진한다.

01 내용의 전개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조신이 현실 세계에서 '돌미륵'을 발견한 곳은 꿈속에서 굶주려 죽은 큰아들을 묻었던 장소와 동일하다. 이는 조신의 꿈과 현실을 이어 주며, 조신의 꿈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야기에 등장하는 '논평'은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나, '논평'에서는 세속적 욕망의 헛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인물의 발화는 조신의 꿈속에서 김 씨의 딸이 말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씨의 딸은 자신이 조신을 찾아온 이유, 이별을 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자신과 조신의 상반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이야기의 마지막에 인용된 노래의 전반부에는 서술자가 '책'에서 읽은 조신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다. 또한 노래의 후반부에는 조신의 이야기를 읽고 서술자가 얻은 깨달음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노래 가사에 서술자가 직접 조신에 대해 목격한 사건들을 압축하여 그려 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꿈이 내화이고 현실이 외화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액자식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 주는 것일 뿐,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따뜻한 옷감'을 조신과 함께 해 입은 것은 김 씨의 딸이 조신과 처음 만났던 시기로, 서로에 대한 정분이 두터웠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때는 두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았으므로 화목한 가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락과 다름없이 인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신이 김 씨의 딸과의 결연이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낙산사의 관음보살'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조신과 같은 당대 백성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적 믿음에 의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는 조신 부부를 대신하여 구걸하다 개에 물리게 된 딸아이의 상황을 통해 경제적 궁핍이 당대인들의 비참한 삶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조신과 김 씨의 딸이 함께한 시간 동안 가난으로 인해 불행을 겪었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행으로 인식한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조신이 지은 절의 이름이 '정토사'이고 여기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극락세계인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당대인의 믿음이 이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꿈에서 깬 조신이 고달프게 사는 것이 싫어진 까닭은 꿈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품었던 세속적인 욕망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조신이 꿈속 세계의 체험을 후회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승려인 조신이 태수의 딸과 인연을 맺는 것은 당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조신의 욕망이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현실 세계에서 조신은 김 씨의 딸과 인연을 맺기를 소망했으나, 김 씨의 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조신의 꿈속에 나타난 김 씨의 딸은 조신을 찾아와 조신을 사모하였고, 부부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꿈속 세계의 김 씨의 딸은 현실 세계에서 조신이 지녔던 욕망이 투영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꿈속에서 조신은 자신과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김 씨의 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자식을 낳고 살게 된다. 이는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서 빌었던 조신의 소망이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현실 세계에서 조신은 김 씨의 딸과 인연 맺는 것을 소망하였고, 이를 꿈속 세계에서 이루었지만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조신이 지녔던 욕망은 꿈속에서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고전 산문

본문 118~121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 **임춘, 「공방전」**

해제 이 작품은 고려 무신 집권기 때의 문신인 임춘이 돈을 의인화하여 지은 가전으로, '공방'은 엽전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공방이 생겨난 유래와 공방의 생김새, 그리고 공방이 정계에 진출한 후 사회에 미친 악영향 등을 전의 형식을 차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고 있다. 작가인 임춘은 돈으로 인해 인간이 그릇된 길에 빠지게 되어 사회의 폐단이 생긴다는 점에서 공방을 없애 그 후환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돈에 대한 임춘의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돈의 폐해에 대한 경계와 비판

전체 줄거리 공방의 선조는 수양산 동굴에 은거하다 황제 때에 와서 조금씩 쓰이게 되었고,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의 태재가 되어 나라의 세금을 담당하였다. 공방은 그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하였다. 공방은 한나라의 홍려경이 되었음에도 오나라 비를 도와 이익을 취하는 등 성질이 탐욕스러웠으며, 돈을 중하게 여기고 곡식을 천하게 여겨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게 하였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였다. 공방은 원제 때 공우의 글로 관직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훗날 당나라와 남송 시절에 그의 제자들이 다시 쓰였으나 그 폐단이 드러나고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하여 쫓겨난 후 그의 제자들 역시 다시 쓰이지 않게 되었다. 공방의 아들인 윤은 경박하여 세상의 욕을 먹었고, 수형령이 되었음에도 장물죄가 드러나 사형을 당했다. 이에 사신은 공방과 그의 무리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졌다며, 뒷날의 근심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방의 무리들을 모두 없앴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D]에서 왕안석이 나랏일을 맡아보면서 청묘법을 실시하여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곤궁해졌는데, 사마광이 재상이 되어 그 법을 폐하기를 아뢰고 소식을 천거한 이후 공방의 무리가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왕안석이 나랏일을 맡아보던 때 세상이 시끄럽게 된 원인이 공방의 무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황제는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공방의 선조를 살피게 하였으며, 황제가 관상 보는 사람의 말을 들은 후부터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황제가 관상 보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 염철승 근은 공방을 가형이라 부르며 함께 조정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염철승 근이 공방의 아버지를 믿고 따랐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관들이 공방을 두려워하여 그에 대한 상소를 올리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C]에서 곡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기에 공방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곡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군비 마련을 위해서 공방의 업무를 줄일 것을 간청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B]에서 공방은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며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귀었다고 하였다. 이에 [C]에서 공우는 이러한 공방의 잘못된 처신을 비난하며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해 달라고 글을 올리며 ㉠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우가 ㉠을 인용한 이유는 중요한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만 신경 쓴다는 점에서 공방은 소인에 불과하므로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인인 공방의 관직을 삭탈하여 처벌할 것을 주장하려 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우의 말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공우는 공방을 관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공방의 직분에 적합한 새로운 관직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④ 공우는 공방이 관직에 있으면서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써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방의 관직을 파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우는 관직에 등용되기 전의 공방의 행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공우는 공방의 파면을 주장할 뿐, 공방의 청탁을 받고 등용된 이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03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에서는 공방이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인 원제로 인해 관직에서 쫓겨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직에서 쫓겨난 공방은 문하의 사람들에게 자연에 머물며 한가롭게 지낼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C]에서 정치에서 물러난 이후 공방이 겪는 고초를 소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공방의 자가 '관지'라는 점과, 공방의 선조가 황제로 인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며, 강가의 숯 화로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공방의 선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B]에서는 공방이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하였으며,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음에도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다는 점과 조그만 이익을 다퉈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는 등 그 폐단이 심했음을 언급하며 벼슬아치로서의 공방이 보인 모습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D]에서는 당나라가 일어난 후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공방의 문도들이 쓰이게 되었다는 점과, 송나라 때 사마광과 소식에 의해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방의 아들이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음을 밝히면서 공방의 후손들의 행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E]에서 사신은 '충'의 관점에서 공방과 그의 무리들은 충신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후세를 위해서 그들을 모두 없앴어야 했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C]에서 공방은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하였으나,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으며,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나 손해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방은 관직을 이용하여 악행을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으며 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상과 해고와 관련된 공방의 말을 돈이 없어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방이 한나라의 벼슬을 하면서도 오나라의 비를 도운 것은 국가의 공익보다 자신의 사익 추구를 우선시한 태도에 해당한다. 공방이 '돈'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방의 모습은 '돈'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공방은 호제 때 부민후로 있으면서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겨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을 잊고 농사를 짓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는 백성들이 곡식보다는 돈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으로,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며 공방을 비판하는 것은 돈을 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았는데, 이는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돈이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방의 모습을 통해 돈이 벼슬하는 사람들의 청탁의 대가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안은 국가 재정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공방의 계책을 쓰고자 공방의 문도들을 등용하였고,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크게 실시되었다. 이는 돈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 정책에 활용한 역사적 사례에 해당한다.

04 고전 산문

본문 122~125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①

■ **작자 미상, 「숙향전」**

해제 이 작품은 국문본과 한문본이 모두 전하는 조선 시대의 소설로 '이화정기(梨花亭記)'라고도 한다. 소설 속 남녀 주인공은 원래 선인들이었지만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 지상으로 적강(謫降)하여 인간으로 환생한 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천상계의 도움으로 시련을 모두 극복하고 천생연분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상계로 복귀한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애정 소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서사의 구성을 보면 주인공 숙향이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고, 고아가 되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이를 극복한 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는 특징을 지닌다. 「춘향전」을 비롯한 다른 고전 소설 작품에 「숙향전」의 인물과 내용이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이를 통해 「숙향전」의 인기가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운명적 사랑의 성취

전체 줄거리 송나라 때 김전은 명산에 지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딸 숙향을 피난길에 잃는다. 부모와 헤어진 숙향은 장 승상의 수양딸이 되어 큰 사랑을 받으며 지내지만 이를 시기한 악한 여종 사향의 모함으로 장 승상 댁에서 쫓겨나게 된다. 숙향은 죽으려고 포진강 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화정에서 술을 파는 할미를 우연히 만나 그녀와 함께 살게 된다. 한편, 숙향과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적강한 이선은 천상의 운명에 따라 노력 끝에 숙향과 만나고 부모 몰래 성례를 치른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선의 아버지 이 상서는 노하여 낙양 수령 김전에게 숙향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김전은 숙향이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숙향을 문초한다. 그러나 이화정 할미와 청삽사리의 도움으로 숙향은 이 상서 부부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는다. 이선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숙향과 재회하여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숙향은 친부모인 김전 부부와 만난다. 이후 이선은 선약을 구해 병들어 죽게 된 황태후를 살린 공으로 초나라 왕이 되고 숙향과 행복하게 살다가 천상으로 돌아간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여 부인이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한다고 하자 이생은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 주소서.'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 부인이 혼사를 주관해 주면 혼례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할미는 숙향의 혼례 의지를 타진해 가면서 이생의 요청에 따라

혼례를 추진한다.
② 혼례는 할미가 숙향에게 의사를 물어 가며 추진하고 있었으며, 숙향은 난관에 봉착해서가 아니라 이생이 준 진주를 보고 결혼 상대자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할미에게 혼례 추진을 맡기게 된 것이다.
③ 이생은 할미로부터 숙향이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는 '빌어먹는 아이'라는 말을 듣고도 주저함 없이 혼례를 추진한다.
⑤ 여 부인은 숙향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염두에 두면서 종들을 통해 예물을 잔뜩 준비해 신부 집으로 보냈다. 숙향의 살림살이에 대해 못마땅해하면서 종들에게 유감을 표하지는 않았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옥가락지의 진주'는 요지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증표로, 숙향이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는 남녀가 재회하여 인연을 이어 가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매개로 작용한다.
③ ⓑ는 여 부인이 밤에 꾼 꿈으로 이생과 숙향의 혼인을 암시해 준다. 여 부인은 이생의 혼인을 도와주려고 하므로 ⓑ가 해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이생과 숙향의 혼인을 여 부인에게 암시해 주는 꿈으로, 서사의 흐름으로 볼 때 과거에 여 부인이 범하였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는 숙향에게 이생이 요지에서 만난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해 주고, ⓑ는 여 부인에게 이생의 혼례와 관련된 미래의 일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 ⓑ가 한 인물이 특정 인물의 부유한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매개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생은 할미의 경제적 형편이 혼례를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황금 오백 냥을 주지만 할미는 사양하고 혼례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할미가 부담하게 될 혼례 비용과 관련해서 이생이 할미보다 정보를 우월하게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할미는 숙향과 함께 지내며 대화하고 있으므로 숙향의 혼례 의중과 관련하여 이생보다 정보를 우월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할미는 이생에게 거짓말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할미는 숙향의 현재 외모에 대해 이생보다 정보를 우월하게 가지고 숙향의 얼굴이 너무 추하여 이생의 배필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할미는 이생이 숙향과 혼인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진심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③ 이생은 할미에게 숙향과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르는 것은 이생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미가 이생보다 정보를 열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숙향은 할미와 함께 지내고 있다. 따라서 숙향의 실제적 건강 상태에 관해서는 할미가 이생보다 정보를 우월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이생은 할미에게 거짓말을 하는 데에 불리한 입장임을 추리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숙향이 '내 배필이 될 분'을 선계에서 만났던 이생으로 한정해 놓은 것은 당시의 지배적 윤리에서 벗어나 독립적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이루고자 했던 의식과 관련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부장인 부친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생의 말은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적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생이 자기의 소원을 풀기 위해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고모의 도움으로 숙향과의 혼례를 추진하는 것은 남녀 간의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이생이 목격한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사물들은 선계의 것들이다. 이런 신비한 체험은 선의 세계를 작품의 현실 세계 안으로 끌어들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⑤ 이생이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선계와 속계가 각기 다른 세계임에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05 고전 산문

본문 126~130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④

■ **작자 미상, 「방한림전」**

해제 이 작품은 여성인 주인공 방관주가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가문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는 등 여성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성끼리 혼인을 한다는 모티프가 삽입되어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임을 감추기 위해, 영혜빙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당시의 남녀 부부 관계에 대한 거부감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영혜빙의 내면 의식을 통해 당대 남녀 관계의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제 남성으로 살았던 여성 영웅 방관주의 일대기

전체 줄거리 명나라 태학사 충렬공 효유의 후예인 방씨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가 노년에 일몽을 얻고 관주가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보였던 방관주는 스스로 남복하기를 청하고, 이에 방씨 부부는 딸이 바라는 대로 남장을 하게 하여 기른다. 일찍 부모를 여읜 뒤 방관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영 공(영혜빙의 아버지)의 강권으로 영혜빙과 혼인하게 되는데 영혜빙이 영민하여 방관주가 여성임을 먼저 알고 평생지기(平生知己)가 되어 함께 지내기로 한다. 이후 형주 안찰사가 된 방관주는 우연히 낙성을 얻어 양자로 삼는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적에게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방관주가 마흔이 될 무렵, 도인이 나타나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자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임을 천자에게 밝히고 생을 마감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어의는 병세가 위중한 승상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천자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나 어의가 승상의 병을 돌보는 과정에서 승상의 본색(승상이 본래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천산도사가 승상의 관상을 보고 한 말 중에 '재주는 많으나', '재기가 넘치고', '말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는 승상의 재능을, '수명은 사십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는 승상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헤아려 말한 것이다.

③ 승상이 천자에게 그동안 자신의 본색을 숨겨 온 사실을 아뢰면서 하는 말 가운데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 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작품에서 낙성은 승상(방관주)의 아들로서 '(중략)' 이후 첫 문장의 '상서 내외는 망극하여 천지신명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에 나오는 '상서'가 바로 낙성이다.

④ 승상이 그동안 천자에게 자신의 본색을 숨긴 사실을 말하였지만 천자는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밝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며 승상을 벌하지 않았다.

⑤ 방관주(승상)는 '신과 영녀는 한낱 지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라고 말한다. 방관주는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남성으로 살아야 했는데 영녀(영혜빙)가 방관주의 정체를 알고서도 이를 발설하지 않고 외관상 남녀 부부의 생활을 지속했던 것은 방관주가 생물학적 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삶을 마음껏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영녀는 여성 영웅 방관주에게 중요한 조력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서 '음양을 바꾸어'라는 말은 승상(방관주)이 본래 여성임에도 남장을 하고서 남성인 척하며 살아왔던 것을 뜻하는 것이다. 태을이 행한 농간은 천상계에서 남성이었던 문곡성을 벌주어 지상계로 보낼 때 여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천상에서 여성이었던 상아성은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도 여성인 영혜빙으로 태어났으므로, '그 둘의 성별이 뒤바뀌게 된 사실을 뜻하는 것이겠군.'이라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에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라는 말은 승상이 본래 여성임에도 남장을 하고 남성으로서 살아온 것을 뜻한다. 승상이 남장을 하고 남성의 삶을 살아왔던 것은, 〈보기〉에 서술된 것처럼 승상이 본래 천상에서 남성인 문곡성이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③ [A]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끊은 것이니'라는 말은 승상과 영녀(영혜빙)가 둘 다 여성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지기(知己)로 지냈던 까닭에 남녀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랐던 것을 뜻한다. 이는 천상계에서 남성이었던 문곡성과 여성이었던 상아성이 상제에게 벌을 받아 지상계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문곡성이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서 비롯한 일이다.

④ [A]에서 '그 죄를 아는가?'라고 물을 때 '죄'는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했던 죄인데, 〈보기〉에 따르면 천상에서 문곡성과 상아성이 부부간의 정이 너무 깊어 맡은 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일을 가리킨다.

⑤ [A]에서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라는 말은 방관주가 지상의 삶을 다하고 천상의 문곡성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이다. 천상의 문곡성이 지상에서 태어나 방관주로 살게 된 것은

상제가 내린 징벌의 결과이므로, 방관주가 다시 천상의 문곡성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은 상제가 이제 그를 용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벽사창 굳게 닫고 침선만 잡고 앉아'라는 표현에는 규방에 갇혀 부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여성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방관주가 죽음에 이르러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유는 규방의 삶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자 해서가 아니라 천자를 속이는 일이 신하로서 옳지 않다는 공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인간 남자 되었던들 성현호걸 배우리라'라는 표현에는 남성이어야만 이룰 수 있는 배움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다. 이는 결국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욕망과 다르지 않으며, 작품 속 방관주가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남성으로 사는 인물로 형상화된 것은 당대 여성들의 그와 같은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의 '일인지하 만민상에 부귀영화 함도 할샤'라는 표현에는 출세를 통해 부귀공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여성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인지하 만민상'은 '단 한 사람, 황제의 아래이고 다른 모든 사람의 위'라는 뜻으로 재상의 지위를 의미한다. 작품 속 방관주는 '출장입상(出將入相: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하여 만인지상이 될' 관상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 형상에는 출세에 대한 당대 여성의 바람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의 '위로는 충효 돕고 아래로 만민치정'에 담겨 있는 당대 여성의 공적 성취에 대한 욕망은 작품 속 방관주가 한 나라의 승상으로서 천자의 인정을 받는 모습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에서 여성 화자는 '어찌하여 중문 밖을 일생을 못 보는고'라고 말하며 여성을 옭아매는 부자유한 현실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 욕망하는 바를 자유롭게 실현해 나가는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 당대의 여성들은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천자는 방관주의 키가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는 했으나 방관주가 실토하기 전까지는 방관주가 여성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천자가 이상하게 여긴 일이 여성 영웅의 일대기 중 (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방관주는 영 공의 강요로 영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는데 이는 여성 영웅의 일대기 중 (사)에 해당한다.

② 방관주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문의 몰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는 여성 영웅의 일대기 중 (나)에 해당한다.

③ 방관주가 열두 살 때 천자가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나갔다가 천자의 성은을 입어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기회를 얻은 것은 여성 영웅의 일대기 중 (마)에 해당한다.

⑤ 방관주가 뛰어난 용기와 지혜로 전장에서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여성 영웅의 일대기 중 (바)에 해당한다.

06 고전 산문

본문 131~13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④

■ **조성기, 「창선감의록」**

해제 작품의 제목인 '창선감의록'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널리 읽혔던 가문 소설이다. 사대부 가문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이들이 겪는 갈등은 유교적 이념인 '효'와 '열'의 실천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한편 이 글에서는 진채경이 겪는 고난과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진채경과 혼인을 약속한 윤여옥은 훗날 화진의 부인이 되는 윤 소저의 동생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화진과 관련된 인물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도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권선징악과 충효 사상의 고취

전체 줄거리 화욱은 심 씨, 요 씨, 정 씨 세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심 씨는 아들 화춘을 낳고, 요 씨는 딸 화빙선을 낳고 일찍 죽으며, 정 씨는 아들 화진을 낳는다. 화욱은 맏아들인 화춘이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화진을 편애하는데, 이러한 화욱의 처사로 인해 심 씨와 화춘은 불만을 갖고 화진을 미워한다. 화욱이 죽자 심 씨와 화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화진과 그의 아내들을 학대한다. 화진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지만 화춘의 무고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고, 화진의 아내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다. 귀양을 간 화진은 병법을 배운 후 백의종군하여 해적을 토벌하고, 남쪽 지방의 어지러움도 모두 평정한다. 이에 황제가 화진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심 씨와 화춘은 개과천선하게 된다. 이후 쫓겨났던 화진의 아내들도 돌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기로 하자, 조문화는 엄숭에게 청탁을 넣었고, 이로 인해 황제는 진 공을 죽이지 않고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다. 따라서 황제가 진 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옥에서 나온 진 공은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몹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라고 말하며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② '조문화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숭에게 청탁하여 진 공을 산서성 노안부의 제독으로 좌천시켰다. 그런 후 다시 양석을 시켜 진 공이 태원전 삼천만 냥을 사사로이 착복하였다고 무고한 후, 금의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얽어매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양석이 진 공을 무고한 것이 조문화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오 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네네' 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 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 주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오 낭중이 오 부인에게 조문화의 말을 전달한 것이, 오 낭중이 조문화의 권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아는구나.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돋우지 말자꾸나. 이후로는 매일 문밖에서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라는 말을 통해, 조문화가 채경의 몸이 완쾌될 때까지 자신의 아들과 채경의 혼인을 미룬 것이 채경의 성품에 감복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를 통해 채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시를 통해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채경이 쓴 시에서 화자는 '학'으로, '학'은 날개가 있기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백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왕자진을 위해 구산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 부인이 이 시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것은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 밖을 그리'워한다는 구절이 채경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람들 놀랄까'라는 구절은 학이 큰 울음을 그친 이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채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 공의 노심초사하는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② 진 공은 옥에서 나온 후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낸다. 따라서 '큰 울음은 그쳤지만'이라는 구절을 진 공을 안심시키기 위한 채경의 선택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시에서 '학'은 날개가 있어 삼청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삼청에 이를 날개 어이 없으리'라는 구절을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자신의 혼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채경은 윤여옥과 혼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진 공을 살리기 위해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왕자진과 약속'이 있다는 구절을 윤여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채경이 회남으로 떠난 다음 날, 조문화의 하인은 채경과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에게 채경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그 사람은 채경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채경이 조문화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집을 나온 시간과 떠나는 장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트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 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라는 말을 통해, 채경이 조문화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버지인 진 공을 살려 준 은혜를 잊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채경이 부모님과의 이별로 인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음을 핑계로 혼인을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 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라는 말을 통해, 채경이 병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시 열흘이 지나자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라는 구

절을 통해, 채경은 부모님이 조문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남장을 하고 마을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조문화는 자신의 아들과 혼인할 것을 채경에게 강요하고, 채경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문화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는 채경이 권도를 통해 효를 실천하는 것(ⓑ)에 해당하며, 조문화는 이러한 채경의 말을 믿었기에 진 공에 대한 청탁을 엄숭에게 넣게 되었다. 이후 진 공이 귀양을 간 이후에도 조문화는 채경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출입을 삼가 달라는 채경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이를 통해 조문화는 채경이 ⓑ를 선택한 것이라 믿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채경이 권도를 통해 윤여옥과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거짓으로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한 후 진 공 부부가 멀리 떠난 후에 자신은 회남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입을 삼가 달라는 채경의 뜻을 조문화가 따른 것이 채경이 ⓒ를 선택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문화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자신의 아들과 혼인할 것을 채경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화의 태도는 상황에 맞게 효를 실천하라는 것이므로 채경에게 ⓑ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채경이 아버지인 진 공을 살리기 위해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거짓으로 허락한 것은 효와 열을 지키기 위해 권도를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 부인은 평소 채경이 옥처럼 맑고 서릿발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했기에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한 채경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오 부인은 평소 채경이 ⓐ와 ⓓ를 중히 여긴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진 공은 윤여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데, 이는 채경이 진 공 자신 때문에 ⓓ를 지키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⑤ 채경은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하는 척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인 진 공의 목숨도 구하고, 자신과 혼인을 약속한 윤여옥과의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회남으로 떠날 수 있게 된다. 이는 권도를 통해 효와 열을 모두 실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07 고전 산문

본문 136~140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③

가 홍세태, 「김영철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인물인 김영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드러내며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제시한 한문 소설이다. 17세기 동아시아 삼국, 즉 조선–명나라–후금(훗날의 청나라)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전쟁 속에서 하층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고 있다.

주제 전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초와 애환

전체 줄거리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과의 싸움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후금 장수 아라나가 영철을 살려 자신의 집이 있는 건주로 데려간다. 영철은 아라나의 주선으로 혼인도 하고 두 아들도 얻게 된다. 고향을 그리워하던 영철은 전유년 등 명나라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등주를 향하게 되는데, 다시 이곳에서 전유년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자식 둘을 얻는다. 이후 조선의 외교 사절의 일원을 만나 14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다. 고향의 가족들과 재회한 김영철은 조선의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넷을 두고 살아가지만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과의 전쟁에 세 번이나 참전하게 된다. 영철은 네 아들과 함께 산성을 지키며 살다가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나 「김영철전」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인식

해제 「김영철전」은 17세기 초 후금과 명나라, 조선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로,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인생 역정을 다루고 있다. 「김영철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낮추어 보는 당시 지배층들의 인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후금(청나라)이 동북아의 신흥 강국으로 자리 잡던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주제 17세기 명청 교체기를 마주하는 조선 백성의 고달픔과 당시 지배층의 인식적 한계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전유년이 영철을 반기면서 명나라에 있는 처자식에 대한 소식을 알려 주는 것은 맞지만 영철에게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 아라나 또한 영철의 아들이 자기 군중에 있음을 알려 주지만, 득북을 위해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영철은 처음 포로로 잡혔을 때 명나라 지역으로 도망가 지내면서 두 명의 자식을 둔다. 전유년은 명나라의 병사로, 영철이 물어본 '처자식 소식'은 명나라 등주 지역에 남겨 두고 왔던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에 대한 소식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② 득북은 영철이 후금의 장수인 아라나 밑에서 8년 가까이 지낼 때 얻은 아들로 북쪽 건주 지역에서 태어났기에 오랑캐 군대, 즉 후금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 영철은 득북을 포함하여 '두 곳의 처자식' 모두가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았을 거라 추측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③ 영철은 전유년에게 '베 20필'을 주면서 남쪽에 두고 온 처자식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북쪽의 자식인 득북은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아버지를 다시 만난 후 '술과 밥, 반찬과 과일' 등을 내어놓고 있다. [A]와 [B]를 통해 각각 아버지의 염려와 아들 득북의 효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영철은 '두 곳의 처자식'을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다는 것에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A]와 [B]를 통해 '남쪽으로 등주'와 '북쪽으로 건주'에 남겨 두었던 자식에 대한 영철의 마음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영철이 처자식과 함께 사는 것보다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 꾸짖은 것은 영철이 자신을 배신하고 명나라로 도망치며 자신의 천리마까지 훔쳐 갔기 때문이다. 영철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한 것일 뿐 명나라에 협력하며 조선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유림이 아라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명나라 장수와 조선 장수는 서로의 생각을 편지로 교환한 후에 전투 중에 총알 없는 총과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사용하여 서로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명나라 장수가 영철에게 포상을 내린 것은 조선 장수의 이러한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조선 장수 임경업은 후금의 구원병으로 차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담겨 있는 편지를 후금(오랑캐)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소교는 임경업의 신호를 보고 거짓을 연기하여 조선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 낸다. 이는 후금과 명나라가 벌인 전쟁에 억지로 동원된 조선의 병사들이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유림은 후금의 명령을 받는 조선의 구원병을 이끄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림이 아라나에게 '잎담배 200근'을 치른 것은 후금의 장수인 아라나의 심기를 해치면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재를 하려는 행위라 볼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정예병'은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동원한 조선의 병사들이지 후금의 병사들이 아니다. 또한 (나)에 따르면 조선이 명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상황이 아니며, (가)를 통해 후금의 편에 서기로 한 조선 장수에 대한 후금의 신뢰가 예전보다 깊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선의 병사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 장수의 생각을 전달하고 돌아온다. 이것을 본 '오랑캐 두 사람'이 임경업을 의심하고 몰아세운다는 점에서 '작은 배'로 인해 오랑캐의 의심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총알 없는 총'은 명나라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선 장수의 생각이 전쟁 상황 속에 투영된 것이다. 후금의 구원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후에도 명나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려 했던 당시 지배층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④ '10만 군사'는 후금과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명나라가 보낸 구원병 부대이다. 이들은 결국 후금에게 크게 패배한다는 점에서 명나라의 시대가 저물고 청나라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소재가 된다.

⑤ '성'은 김영철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했던 조선의 땅이다.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다.

04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글의 작가이자 서술자라 할 수 있는 '외사씨'는 김영철의 생애를 두고 '사지를 넘나들면서 힘을 다해 애썼으'나 '손톱만큼의 상도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영철과 같은 '천하의 충성스러운 선비를 격려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작가는 김영철과 같은 선비의 삶을 소개하면서 전란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 애를 쓴 선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영철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된 것은 맞지만 그가 전투를 승리로 이끈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주인공의 행적 전체에 대해 칭송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② 당시 지배 계층이나 무능력한 집권층이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더욱 궁핍한 삶으로 내몬 것은 맞지만, 그것이 탐관오리의 문제라

고 비판하고 있는 작품은 아니다.
④ 주인공 영철이 후금과 명나라 지역에서 포로 생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겪은 것은 맞지만, 각 나라의 낯선 문화를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내용을 주로 다룬 것은 아니다.
⑤ 영철은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를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생애 중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08 고전 산문

본문 141~144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⑤

■ **박지원, 「광문자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연암집』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광문은 비천한 거지이지만 순수하고 인정이 있으며, 정직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연암은 광문을 통해 당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권모술수를 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양반 사회를 은근히 풍자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에는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인간적이면서 성실하고 신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의식을 부각,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소설은 사실주의적 면모가 강한 작품으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주제 하층민 광문의 인품을 통해 바라본 조선 후기의 세태

전체 줄거리 광문은 종루 저잣거리의 거지이다. 그는 거지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추대되지만 모두 구걸하러 나간 사이 소굴을 지키다가 병든 아이가 죽은 일로 의심을 받아 소굴에서 쫓겨난다. 광문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아 집주인에게 붙잡히는데 집주인이 도적이 아님을 알고 새벽에 광문을 풀어 주자 그는 곧장 거지들이 버린 죽은 아이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 준다. 이를 목격한 집주인은 그를 의롭게 여겨 후하게 대우하다가 부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할 수 있게 추천한다. 그러던 중 약국에서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광문은 또 의심을 받게 된다. 광문의 결백이 밝혀지자 부자는 광문의 정직함을 널리 알리고, 이 일로 광문은 서울 안에서 유명해진다.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면 담보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광문은 사람들로부터 신의를 얻었으며,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었지만, 욕심 없이 살았다. 그럼에도 사대부들에게는 도도하기만 한 기생 운심을 춤추게 할 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기에 사대부들마저 광문과 벗을 맺었다.

01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은 주인공인 광문의 인성을 보여 줄 만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들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 시점의 변화 없이 단일한 관점에서 중심인물인 '광문'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외부 사건 속에 내부 사건을 배치하는 방식인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④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노출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인물이 처한 공간의 경치가 변화하는 과정의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서술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집주인(㉢)은 처음에 광문을 도적으로 오해하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 죽은 거지 아이(㉡)에게 광문이 베푼 선행에 감동하여 광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 무리였던 ㉠과 ㉡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은 광문에게 의혹을 품지만 ㉡이 광문에게 의혹을 품은 것은 아니다.
④ ㉢의 천거로 ㉣의 고용인으로 살게 된 광문은 ㉣에게 의심을 받게 되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지냈으며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다.
⑤ 광문이 ㉣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이 ㉣ 몰래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의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광문이 이웃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의 연장자로서 판정을 내리는 관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유의 재치를 발휘하여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도시의 빈민인 거지 아이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소굴에 모여 살며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걸하여 빌어먹고 다녔다.

② 돈놀이하는 자들, 즉 귀중품이나 가옥·전장·노복 등의 문서 등을 저당을 잡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④ 광문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땋고 다녔다는 것은 그가 장가를 들지 않았다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광문에게 '집을 가지라고 권하'고 광문이 '집을 가져 무엇하리'라고 반응하는 데에서 개인이 집을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운심과 같은 기녀들이 곱고 아름다운 외모나 춤과 같은 예능적 재주를 바탕으로 하여 벼슬아치들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활약하였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사대부들은 광문의 추한 겉모습을 보고 그를 대청에서 쫓아내려 했었다. 광문이 추한 겉모습을 가지고도 운심을 춤추게 한 일은 사대부들이 광문을 이용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광문이 스스로 해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권모술수에 능한 사대부들에게 이용당하며 학대받는 하층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광문은 '거지'로서 사회의 하층민이지만 '순박하'며 본인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죽은 아이의 장례까지 챙길 만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의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② 약국을 운영하는 부자의 오해에도 끝내 태연함을 보인 광문을 보고 사람들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고 칭송하는 것은 광문이 살던 그 당시 사회에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의 사람들이 매우 드물었다는 실상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거래에서 아무런 권력이나 재력이 없는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면 '담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광문은 사람들로부터 그 신용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광문은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여성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점에서 광문을 새로운 대안적 인식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09 고전 산문

본문 145~148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⑤

■ **작자 미상, 「토끼전」**

해제 이 작품은 『삼국사기』의 「구토지설」 등을 근원 설화로 삼아 판소리 사설로 연행되다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토공전」, 「토생전」, 「별주부전」 등 120여 종의 이본이 존재하는 이 작품은 동물들을 내세워 당대 사회를 우의적 기법으로 풍자한 우화 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토끼의 희생을 강요하다가 토끼의 꾀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용왕의 모습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을, 용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토끼를 속이는 자라의 모습을 통해 그릇된 충성심을 지닌 관리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허욕으로 인해 위기를 겪다가 꾀로 이를 극복해 내는 토끼를 통해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배층의 횡포를 극복해 내는 서민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위기와 이를 극복해 내는 기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한자어와 비속어, 고사성어와 속담, 과장된 표현과 비유적 표현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허욕에 대한 경계 /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 / 임금에 대한 충성

전체 줄거리 병이 든 동해 용왕은 토끼의 생간이 신효하다는 고명한 세 의원의 말을 듣고 자라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 오라고 명한다. 육지에서 토끼를 만난 자라는 온갖 감언이설로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온다. 용왕이 토끼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후 자라와 함께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의 미련함을 지적하고 자라는 하릴없이 돌아간다. 한참 살아 돌아온 기쁨을 누리던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토끼는 다시 한번 꾀를 내어 독수리로부터 벗어난다.

01 내용의 전개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자라는 '순임금', '강태공', '이윤', '한신' 등과 같이 중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여 토끼가 용궁에 가면 벼슬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토끼가 지닌 공명욕을 자극하여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책이다. 따라서 중국의 여러 고사를 인용한 것과 토끼와 자라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부각하는 것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토끼에게 조롱을 당한 자라가 바다로 돌아간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서술자는 '용왕의 병세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알 길이 없더라.'라고 진술하며 용왕과 별주부의 후일담을 제시하고 있다.

② 허욕을 지닌 토끼와 토끼를 수궁으로 데려가 용왕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자라, 토끼를 잡아먹으려는 독수리 사이의 욕망을 중심으로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토끼와 자라가 나눈 대화를 통해 토끼가 어젯밤 흉몽을 꾸었다는 것, 토끼와 독수리의 대화를 통해 토끼가 수궁 용왕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자라가 토끼를 속이기 위해 한 말 중, '역산에서 밭을 가시던 순임금도 ~ 한 태조의 대장이 되었으니' 부분에서 '~던 ~도 ~고(되었으니)'와 같은 문장 구조가, '장자의 나비 된 꿈은 ~ 개시 허몽이로다' 부분에서 '~은 ~이요, ~(은) ~이라(이로다)'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토끼를 속여 수궁에 데려가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자라는 용왕에 대해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지조가 있는 선비라도 벼슬 직책을 맡기'는 '밝은 임금'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토끼는 자신의 꿈에 대해 '아마도 좋지 못한 정상을 당할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끼가 자신의 꿈을 길몽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웃으며 말하는 토끼를 보고 '요놈, 인제야 속았구나.'라고 생각한 자라의 모습에서, 자라는 토끼가 자신의 내심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자신의 등에 타면 만경창파를 순식간에 득달할 수 있다는 자라의 말을 듣고 자라 덕분에 '밝은 곳'인 '수궁'에 갈 수 있겠다며 기뻐하는 토끼의 모습에서 토끼가 자라의 말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용궁에서 무사히 돌아와 넓은 들판에서 '희희낙락하며' 뛰어다니는 토끼의 모습을 통해 토끼가 자신에게 다가올 위기를 알지 못한 채 안도하며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독수리에게 붙잡힌 토끼는 '용궁에 있던' ㉠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독수리가 '가지기만 하면 조화가 무궁'한 것이고 '긴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수리가 '솔깃해하며' 토끼의 처소로 가게 되므로 ㉠을 통해 토끼가 독수리의 환심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토끼가 꾸며 낸 묘책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토끼의 말을 들은 독수리가 토끼의 처소로 내려가는 장면을 통해 독수리는 ㉠에 대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토끼가 '가만히 앉았어도 평생을 잘 견디게 해 주'는 ㉠을 주겠다는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은 자신보다 힘이 센 독수리에게서 붙잡혀 열세에 놓인 토끼의 상황을, ㉡은 독수리에게서 벗어난 토끼가 독수리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독수리와 자신의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보여 준다.
⑤ 토끼가 '맏배 병아리'와 ㉠을 제시한 이유는 '배고픈 독수리'를 속이기 위해서이다. ㉡은 토끼가 자신의 꾀를 통해 독수리에게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 ㉡을 독수리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독수리에게 붙잡힌 토끼가 ⓒ에서 ⓑ로 이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에서 '꾀'를 궁리하여 자신의 간을 육지에다 두고 왔다고 용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독수리에게 잡혀 위기에 처한 토끼는 ⓐ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꾀'를 사용해 ⓒ에서 ⓑ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로 이동하게 된 것은, 토끼가 독수리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일 뿐이다. 이를 자신의 깨달음을 독수리와 공유하고자 하는 토끼의 의도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토끼가 ⓐ에서 ⓑ로 돌아온 것은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서 ⓑ로의 이동은 자라가 토끼를 속이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자라가 토끼와 함께 ⓑ에 오게 된 이유는 토끼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말을 믿은 용왕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토끼와 함께 육지에 가서 간을 가지고 오라고 자라에게 명령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자라는 ⓑ에 도착하여 토끼의 조롱을 받으며 혼자 ⓐ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토끼가 ⓐ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라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④ 토끼가 자신이 살던 ⓑ에서 ⓐ로 가게 된 것은 수궁에 가면 자라가 자신을 '좋은 곳에 천거'하여 '수부'에서 '벼슬'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0 고전 산문

본문 149~152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④

■ **작자 미상, 「심청가」**

해제 이 작품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효녀 심청이 맹인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돌아와 황후가 되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청의 탄생과 성장 과정, 심 봉사의 사고와 시주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경 선인들에게 팔려 가는 심청의 이야기, 인당수에 빠져 용궁에 간 이야기, 황후가 되고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 등으로 구성된다. '효녀 지은 설화' 등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심청전」이라는 고전 소설로도 변용된다.

주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의 효심

전체 줄거리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읜 심청은 맹인 아버지 심학규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자라난다. 어려서부터 동냥을 하며 아버지를 모시던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시주를 약속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를 바치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해용왕은 출천대효 심청을 용궁으로 모셔 가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옥황은 심청을 꽃봉오리에 태워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고, 남경 선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꽃봉오리를 송 천자에게 바친다. 송 천자는 꽃봉오리 속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삼고, 황후가 된 심청은 맹인 잔치를 열어 심 봉사를 황궁으로 초청한다. 심 봉사는 황궁에서 심청을 만난 후 두 눈을 뜨게 되며 행복한 결말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을 보고 옥난간에 빗겨 서 있던 심 황후가 헤어진 부친을 떠올리게 된 것은 맞지만, ⓜ이 어디론가 사라져 심 황후는 그러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미처 부친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심 황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친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심청에게 있어 '인당수'는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든 공간이지만,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용궁으로 가는 길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심청은 '인당수'를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므로, '인당수'는 현세로 돌아오는 통로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오색 채운'은 다양한 빛을 내는 상서로운 구름을 뜻한다. 심청이 꽃봉오리를 타고 돌아올 때 용왕의 징험으로 '천지조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오색 채운' 또한 용왕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③ '도사공'은 남경 갔던 뱃사람 중 하나로 '꽃봉오리'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재물 대신 꽃봉오리를 선택한다. '도사공'이 '꽃봉오리'를 천자께 진상한 결과 심청과 천자의 결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도치 않게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④ '격양가'는 작품 속에서 억조창생 만민들이 부르던 노래로, 대체로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만족감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당시 백성들이 천자와 심청의 결연을 국가의 경사로 받아들이고 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는 '고운 얼굴 고운 의단 향기가 이상하다', ⓑ는 '낭자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며 별유천지 세계로다'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에 대한 편집자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 이에 비해 ⓒ는 언급한 공간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의 모습과 소리로 해당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화초가 가득한 후원에 대한 부연 설명에 해당한다. 이때 해당 공간에 들어간 인물들의 심리나 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학을 타고', '난을 타고', '구름 타고', '사자 타고'와 같이 무언가에 올라타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역동성이 강화되고, ⓑ는 '봉피리 ~ 불고', '능파사 ~ 노래할 제'와 같이 음악과 관련된 행동이 제시되면서 역동성이 강화된다. 한편 ⓒ의 경우 '팔월 부용의 군자용', '암향부동 월황혼', '삼천 제자를 강론을 하니', '원정부지 이별을 하니'와 같이 소재와 관련된 상황이나 일화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꽃들이 가득한 해당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는 심 낭자를 보러 온 '천상선관 선녀들'을, ⓑ는 심 낭자를 반기기 위해 시작된 '수궁풍악'을, ⓒ는 송 천자가 모아 놓은 많고 많은 '화초'를 늘어놓을 것임을 장면 첫 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④ ⓐ~ⓒ 모두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하지만, 장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장단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며 각 인물들이 내는 소리에 주목한 ⓐ, ⓑ는 엇모리장단, 관련 사물의 열거에 집중한 ⓒ는 중중모리장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두 장단 모두 비교적 빠른 장단에 해당한다.

⑤ ⓑ에는 '니나노 나노', '정저꿍 정꿍', '스리랑 둥덩둥' 등과 같이 다양한 음악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풍악이 울리는 현장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심청은 외기러기를 보고 '편지'를 떠올린 후 부친에게 보내기 위한 편지를 쓰기도 하고, 편지를 보낼 곳을 알 수 없어 손에 들고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편지를 던지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한다. 이렇게 '편지'와 관련된 행동들은 주인공 심청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가 되는데, 이를 통해 '부친에 대한 효심'이라는 주제 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심청은 부친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부친에게 쓴 '편지'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것은 맞지만, '편지'가 심청이 겪는 외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심청은 외기러기를 보고 부친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편지'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 현재의 사건과 연결 짓는 역할을 하거나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A]의 심청은 이미 황후가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진 처지에 있다. 그러나 [A]에서 쓰고 있는 '편지'가 심청의 처지가 급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며, 이로 인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⑤ [A]에서는 '편지'와 관련된 심청의 반응이 주로 나타나면서 부친에 대한 그리움과 부친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편지'와 관련하여 주인공에 대한 주변 인물의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04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인당수에 당도한 '남경 갔던 선인들'이 낭혼제를 연 것은 심청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한 일이다. 낭혼제를 열었던 선인들이 심청과 다시 대면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러한 사건 자체가 심청이 환생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연성을 높이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옥황상제는 사해용왕에게 어명을 내릴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으므로, 사해용왕이 심청을 구해 용궁으로 모신 후 성대하게 대접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옥황상제의 어명은 이후 사건의 개연성을 높여 주고 있다.

② 용궁이라는 환상 세계에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효녀 심청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상황이므로 현실 세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음식이 등장해야 한다. 따라서 심청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세상 음식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서 서사의 진행에 개연성을 높여 주고 있다.

③ 심 소저를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심 소저는 '꽃봉'을 타게 된다. 비가 와도 꽃봉이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용왕님의 징험'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럴듯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⑤ 송 천자와 문무 제신에게 '꽃봉오리' 속에서 나온 심 소저는 송 천자와 맺어 주기 위해 하늘이 보낸 인연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때마침 송 천자의 황후가 세상을 뜬 상태라는 점은 두 사람이 결연하는 과정에서 필연성을 높여 주는 장치로 볼 수 있다.

11 고전 산문

본문 153~157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 **작자 미상, 「차사본풀이」**

해제 이 작품은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이승에서 받은 과업과 저승에서 받은 과업을 차례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저승 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염라왕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저승 차사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을 기술한 무속 신화이다. 강림은 이승의 존재였다가 결국 신적인 존재로 변하는데 강림의 존재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저승 여행이다. 강림의 저승 여행은 이승과 저승으로 구획된 세계 간의 경계를 넘어 이승과 저승 사이의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투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시된 지문은 안사인이 구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주제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저승 차사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

전체 줄거리 자신의 세 아들이 단명하리라는 예언을 듣고 버물왕은 고승의 도움을 받아 아들들을 살리려 한다. 하지만 세 아들은 금기를 어겨 과양생처에게 살해되고, 이어 과양생처의 세 아들로 환생하나 한날한시에 갑자기 죽는다. 과양생처가 탄원서를 올려 김치 원님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원님은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 염라왕을 잡아 오게 한다. 강림은 큰부인과 길보수꾼(이원사자)을 비롯한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승 연추문에 도달하고 염라왕을 붙잡아 그로부터 이승 방문을 약속받는다. 이승을 방문한 염라왕의 재판으로 세 아들은 부활하고 과양생처 부부는 처형된다. 염라왕은 강림의 능력을 높이 여겨 저승으로 데려가고, 강림은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염라왕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마침내 저승 차사로 자리 잡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염라왕은 강림에게 동방삭을 잡아 오라는 분부를 하면서 '네가 동방삭이 있는 데 가서 동방삭이를 잡아 오면 한 달을 놀려 주마.' 라고 말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검은 숯을 백 일만 씻고 있으면 하얀 숯이' 된다는 강림의 말에 대해 동방삭은 '3천 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 본 바가 없노라.' 라고 대답하며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② 이원사자는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강림을 돕기 위한 이원사자의 질문에 강림은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강림이 이원사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까마귀가 강림을 도우려고 한 까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강림은 헹기못 가에 도착해 '저승 못 간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저승에 가지 못한 까닭은 '인간에서 제명에 못 죽어 남의 명에 죽'어서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와서'이다. 그러므로 강림이 헹기못 가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승에서 굶주려 죽은 이들의 영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말 잡던 백정'으로 그가 던진 말발굽 때문에 저승으로 오는 나이가 적힌 적패지를 까마귀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때문에 강림은 염라왕이 지시한 과업 수행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 잡던 백정'이 강림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땀적삼'은 한국의 장례 의식에서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삼혼부르기'를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원사자는 강림의 땀적삼을 벗겨서 삼혼을 부르고, 그렇게 삼혼 부르기를 함으로써 강림은 저승으로 가는 입구인 헹기못에 당도하게 된다.

② 헹기못 가에는 저승에 가지 못한 불쌍한 혼들이 머무르고 있고, 헹기못을 통과함으로써 저승 연추문에 당도하게 된다. 이처럼 헹기못은 저승의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③ 강림은 '전댓귀의 떡'을 잘게 끊어 사방에 흩뿌려 헹기못 가에서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배고픈 혼들로부터 벗어난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헹기못을 통과해 저승에 당도한다. 따라서 '전댓귀의 떡'이 강림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강림은 검은 숯으로 동방삭을 속여 그를 저승으로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신화의 우주론적 기능은 자연물, 자연 현상의 유래를 설명하는 기능이다. 인간이 저승으로 오는 나이가 기록된 적패지를 까마귀가 실수로 잃어버려, 인간이 죽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내용은, 인간이 반드시 나이 차례로만 죽지는 않는다는 자연 현상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신화의 우주론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강림이 죽음을 거부하던 동방삭을 잡아 온 일은 강림이 인간 차사(저승 차사)로 자리 잡게 만든 사건이다. 동방삭이 저승에 가기를 거부하고 삼천 년이나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비로소 인간 생명의 유한성이라는 삶과 죽음과 관련한 자연 현상의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동방삭을 저승으로 잡아 왔다는 내용은 신화의 우주론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까마귀 특유의 걸음새라는 자연 현상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므로 이는 신화의 우주론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사회적 관습으로서 장례 풍습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므로 이는 신화의 사회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까마귀와 솔개가 적패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여 그 일을 계기로 두 동물이 서로 만날 때마다 싸우게 되었다는 내용은 우의(알레고리)나 풍자와는 무관하다. 까마귀, 솔개라는 자연물의 생태와 습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신화의 우주론적 기능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강림은 까마귀의 실수로 저승으로 오는 나이가 적힌 적패지를 제대로 붙이고 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저승에 혼란이 생긴 것에 책임을 지고 '최판관'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 사건은 강림에게 시련의 경험일 수 있으나, 그 경험을 통해 강림이 어떤 능력을 얻게 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강림이 까마귀에게 벌을 준 행위는 까마귀에게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일 뿐이며 강림이 시련을 통해 얻은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강림이 저승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김치 원님의 명을 받아 염라왕을 잡아 오기 위해서이며 추방과는 무관하다.

② '이승 동관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승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라는 이원사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저승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음식을 얻어먹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원사자는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 보십시오.'라고 말하며 강림에게 저승 세계로 진입하는 방법을 일러 주고, 강림은 이원사자가 일러 준 대로 하여 헹기못을 통과해 저승 연추문에 당도한다.

③ 강림이 떠날 때 그의 큰부인이 허리에 채워 준 명주 전대 안에는 동심결, 불삽, 운삽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강림이 과업 수행을 위해 저승으로 가는 데 필요한 저승 증표였다. 강림이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미리 내다보고 큰부인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큰부인은 강림이 과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⑤ 이승의 존재였던 강림은 동방삭을 잡아 오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염라왕에게 인정받아 저승의 신적 존재인 인간 차사(저승사자)로 자리를 잡는다.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어휘로 판가름 나는 수능 등급
지문·발문·선지의 어휘 총망라 수록!

01 현대 소설

본문 158~161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②

■ **김정한, 「사하촌」**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사하촌'은 보광사라는 절의 세력하에 놓인 마을로, 절 소작인의 마을인 성동리와 중의 식솔들이 거주하는 보광리를 일컫는다. 보광사는 변질된 종교 세력으로 일제와 결탁하여 성동리 농민들을 수탈한다. 작품에서 주인공이라고 특정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데,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하는 성동리 농민 전체가 서사 전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고통이 극에 달하자 현실의 모순을 자각하고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는 지식인의 계몽이나 소수의 영웅적 행동보다 농민 스스로의 자각과 연대가 모순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전체 줄거리 극심한 가뭄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하자 성동리 주민들은 어떻게든 물을 대기 위해 노력하고, 고 서방은 물을 넉넉히 끌어 쓴 보광리 주민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 주재소에 끌려간다. 가뭄이 지속되자 보광사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성동리 주민들은 빚 갚을 돈을 시주로 보태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성동리의 상한이라는 아이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보광사의 산에 가는데 산지기에게 쫓기다 목숨을 잃는다. 그해 가을 흉작이 들었는데도 보광사 간평 위원들은 성동리 주민들의 논에 높은 소작료를 매기고, 조합 이사는 밀린 대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을 무시한다. 이윽고 벼를 압류당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성동리 남정들은 압류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모여들어 보광사로 향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 성동리 농민들과 보광리 사람들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동리 농민들은 땅에 주저앉고 보광리 사람들은 바쁘게 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물을 확보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처지가 서로 대비되어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성동리 농민들과 보광리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각각 드러나 있으며,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에서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특정 사건의 전말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③ [A]에서 중심인물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공간 이동에 따라 중심인물의 내면이 변화해 가는 양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A]에서 시간적 배경의 변화가 드러나는 대목은 찾을 수 없으며,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조합의 이사는 조합에서 빌려준 돈의 상환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성동리 농민들의 요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을 뿐, 소작료를 올리려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동리 농민들은 봄에 빌려 쓴 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그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보광사 조합의 이사에게 하소연하지만, 이사는 그들의 청을 무시한다.
③ 보광리 사람인 '한 양반'은 논에 물을 대는 것을 가로막으며 처음에 존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반말을 한다. 그리고 '이 친구'와 같은 표현까지 쓰며 고 서방을 하대하고 냉소를 한다. 이에 고 서방은 '이 친구? 네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니?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 해?'라고 하면서 울분을 표출한다.
④ 고 서방은 '한 양반'과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주재소에 가자는 말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빈다. 이를 통해 고 서방이 주재소에 가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성동리 아낙네들은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보광사로 향하는 남정들을 보면서, 보광사에서 탄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의 뒷일을 염려한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조합 이사가 조합에서 빌려 쓴 돈을 갚지 않고 버티어 볼 테면 버티어 보라고 보광사 소작인들을 몰아세우자, 소작인 중 하나인 또쭐이가 빌려 쓴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갚을 기한을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한 양반'이 논 물꼬를 조금 더 터놓는 고 서방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한 말이다.
② ㉡은 고 서방이 '한 양반'에게 논 물꼬를 터놓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를 드러내는 말이다.
③ ㉢은 봄에 빌려 쓴 자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보광사 소작인들의 요구에 대해 조합 이사가 거절의 뜻을 나타낸 말이다.
⑤ ㉤은 고 서방이 작년에 납부했어야 할 대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채 '저리 자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에 대해 책망하는 조합 이사의 말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고 서방이 논 물꼬 문제로 보광리 주민 중 한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상대에게 뺨을 맞고서 이에 대응하려 하자,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고 서방에게 몰려들어 고 서방을 집단적으로 폭행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보광리 주민들은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소작인 고 서방에게 보복하려고 몰려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소작인에게까지 소작료를 징수하려고 합세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 양반'이 '밥줄이 제법 톡톡한 모양'이라고 하면서 물꼬를 트는 고 서방을 협박하고 제지하려 하는 이유는, 자신의 논에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물을 대기 위함이다. 이 대목에서 보광리 주민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직접 성동리 주민에게 권력 행사를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고 서방은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 절 논 두 마지기'를 잃을 것을 걱정하는데, 이는 '한 양반'이 속한 보광리 주민들이 지주 계층으로서 고 서방 논의 경작권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성동리 주민들은 보광리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 이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비료 대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하지만, 조합은 결국 성동리 주민들의 논에 '입도 차압'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농민들을 수탈하던 지주 세력의 횡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여 보광사로 향하는 성동리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단합된 힘을 통해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 계층의 부당한 힘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려는 성동리 주민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02 현대 소설

본문 162~16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④

■ **이태준, 「복덕방」**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 질서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몰락, 젊은 세대의 위선적인 행태 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복덕방'은 안 초시와 서 참의, 박희완 등 급변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다. 안 초시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몰락하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무용가로 성공했으면서도 아버지를 홀대하는 안경화의 모습을 통해서는 당시 신세대들의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결말에서 친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박희완과 서 참의의 모습은, 이러한 안경화의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주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좌절과 비애

전체 줄거리 안 초시와 박희완은 서 참의가 운영하는 복덕방에 와 소일하곤 한다. 안 초시는 무용가로 이름을 떨치는 안경화를 딸로 두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안경화는 그런 아버지에게 안경 다리를 고칠 돈조차 넉넉히 주지 않는다. 안 초시는 박희완으로부터 개발 예정인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안경화에게 그 땅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안경화가 삼천 원을 투자하지만 땅에 대한 정보가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안 초시는 딸의 냉대에 전전긍긍하다가 죽음을 택한다.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안 초시가 죽은 이유를 감추려 하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서 참의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을 성대히 치른다. 서 참의와 박희완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보며 울분을 느낀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중심인물인 안 초시가 관변 모 씨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기를 당한 사건의 전모가 서술자의 말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안경화가 땅에 투자한 후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회상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물의 내력에 대한 서술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에서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의식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물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A]에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땅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 사건과 그와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입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안 초시는 안경화가 보낸 청년을 보고 노여워했으나,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그 청년에게 협조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안 초시는 청년이 돈을 쓰며 처리한다 하더라도 '땅' 투자로 인한 이익 중 만 원 정도는 자신이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관변 모 씨가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했으나 축항이 중지되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샀던 '땅'을 처치하기 곤란하여 연극을 꾸몄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그가 축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샀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안 초시가 박희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했다는 내용과 딸을 설득한 내용을 고려하면, 박희완이 안 초시에게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안경화가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 회사에 넣고 삼천 원을 돌리기로 했다는 내용과 신탁 회사에서 돈이 나오자 청년에게 돈을 쓰며 처리하게 했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안경화가 연구소 집을 담보로 하여 신탁 회사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다.

⑤ 안경화가 '땅'에 투자하기 위해 삼천 원을 돌리기로 했다는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자 안 초시가 기뻐하면서 자신을 멸시했던 서 참의를 시켜 서 참의보다 더 나은 집을 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고려하면, 안 초시가 자신을 멸시한 서 참의에게 설욕하겠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서 참의는 안 초시의 비극적 죽음을 관청에 알리지 않는 대신 안경화를 시켜 안 초시의 보험금으로 성대히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그런 안경화에게 부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에는, 아버지를 죽을 지경에 처하도록 두었으면서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명예부터 챙기는 안경화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경화가 치르는 장례 방식은 두 인

물이 영결식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알게 되므로, ㉣에서 안경화가 치르는 장례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서 참의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돈을 쓸 때는 ~ 들어갈 수도 없었다.'를 고려할 때 안 초시가 돈 문제로 딸과 불화를 겪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친자 간의 의리가 사라졌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안 초시의 말로 볼 수 있다.

② 안경화는 아버지의 죽음을 관청에 알려야 한다는 서 참의의 말을 듣고 ㉡과 같이 말하고, 이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에서 서 참의의 말대로 할 경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걱정하는 안경화의 당혹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서 참의는 딸의 냉대를 받다가 죽은 안 초시에게 안경화를 데려오고는, 명예를 생각해 달라며 애원하는 안경화의 말을 듣고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에는 안 초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안경화에게 있음을 책망하는 서 참의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서 참의가 안 초시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 안 초시의 죽음이 호사라면서 반어적인 말을 늘어놓자, 함께 있던 박희완이 ㉤과 같이 말하면서 그런 서 참의를 밀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에서 서 참의를 제지하려고 하는 박희완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제법 반반한 조객들'은 모두 안경화를 의식해서 온 사람들로, 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안 초시에 대해 인정과 의리를 지키려 하는 서 참의나 박희완이 안 초시 죽음의 실상을 알고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따라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의 행동이 안 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지키려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세대의 인물인 안 초시는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데 딸이 자신의 권유를 수용하기로 하자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안 초시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구세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용당포와 다사도에서 땅값이 삼십 배 또는 오십 배가 올랐다는 내용에서 일제 강점기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졸부들이 생겼다는 내용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바람에 편승하여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안경화는 자신의 냉대를 받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한 자리에서, 자신이 누리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라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안경화의 모습에서 혈연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생각하는 근대적 인물의 이해타산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서 참의는 안 초시가 안경다리 고칠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궁핍한 처지에 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아버지를 홀대하던 안경화에게 안 초시의 장례만큼은 돈을 들여 성대하게 치를 것을 지시했다. 이를 고려할 때 조문을 온 서 참의가 안 초시가 살았다면 이만한 호사를 해 보겠느냐고 탄식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채 딸에게도 홀대받던 안 초시의 처지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3 현대 소설

본문 166~169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 **김동리, 「역마」**

해제 이 작품은 역마살로 표상되는 한국적 운명관을 바탕으로 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로, 역마살을 떼려는 할머니나 어머니(옥화)가 시키는 대로 중을 하거나 이야기책 장사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 그가 항구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연과의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와의 혈연 때문임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이야기 구성에서 운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확인하고 이에 순응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생기를 되찾는 성기의 모습을 통해, 생의 본질과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운명의 수용과 이를 통한 생의 의지 회복

전체 줄거리 옥화는 떠돌이 중과 만나 성기를 낳았는데, 성기의 할머니는 성기에게 붙었다는 역마살을 떼고자 그를 절에 보내 중을 시킨다. 옥화는 그러고도 못다 푼 살을 풀고자 성기가 장날에 절에서 내려와 이야기책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다. 하루는 체 장수 영감이 옥화가 운영하는 화개 장터의 주막에 계연이라는 소녀를 데려와, 그녀를 옥화에게 잠시 맡기고 장사를 하러 떠난다. 책 장사를 하러 온 성기는 계연을 만나 강렬한 호감을 느끼고, 둘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계연을 데리고 떠나 버리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성기는 크게 앓는다. 이후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성기에게 밝힌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성기는 차차 기운을 회복하고 떠돌이 장수가 되어 길을 떠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의 경우 "더운데 왜 인제사 내려오냐?" 등과 '저 딸아이는 ~ 주기로 했다면서'에서, [B]의 경우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등과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 통정하노라면서', '아버지를 찾아 ~ 생각도 없다'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병용하면서 인물의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의 경우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이후의 장면에는 그 이전에 제시된 장면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와 [B]에서 모두 이야기 밖 서술자의 서술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야기 밖 서술자가 요약적 설명을 통해 사건을 둘러싼 시대적 맥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B]의 경우 '성기가 다시 ~ 하는 날이었다.'에서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성기의 내면이 변화하는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묘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 [A]와 [B]에는 모두 한 장소인 옥화의 집(주막)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나타나 있으므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병치하여 작중 갈등의 양상을 다각도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점심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계연을 보고 성기가 미안스럽다는 생각을 하지만, 계연은 성기가 미안스럽게 느낄 얼굴빛을 보이지 않고 웃음기 띤 얼굴을 하며 밥함지를 공손스레 놓는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계연이 성기에게 수고롭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기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주고 있는 계연을 만난 장소는 책전이 아니라 집이다.

② 성기의 할머니는 서른여섯 해 전 체 장수 영감을 만나 옥화를 낳았다. 계연은 옥화의 배다른 동생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성기의 할머니는 성기의 역마살을 떼기 위해 성기에게 중을 시켰고, 중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 보겠다는 소청을 받아들여 성기에게 책 장사를 시킨 것은 성기의 어머니이다. 성기의 할머니가 성기에게 중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아니다.

⑤ 옥화는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계연이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는 말과 이후 명도를 불러 그런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말을 성기에게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계연이 사마귀를 옥화에게 보여 주면서 자신이 그녀의 동생일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성기가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 버린 이유는 계연에 대한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계연이 체 장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체 장수가 얼마나 있다가 딸을 데리러 돌아올지에 대해 옥화에게 묻는 것을 고려할 때, 성기가 계연의 내력에 대한 옥화의 말을 듣고서 계연의 내력에 대해 탐탁지 않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기는 처음 본 계연의 ㉠을 보고 가슴이 찌르르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에 생기를 띤다. 이를 통해 볼 때 ㉠에서 성기가 계연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낀 원인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③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계연이 떠나는 상황에서 성기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술자가 계연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에서 '명령'과 '기적', 즉 성기가 개입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계연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성기가 오래도록 앓아누워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옥화는 자신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성기와 계연의 사랑이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를 성기에게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에서 오래도록 앓아누워 있는 성기에게 옥화가 느끼는 미안함과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성기는 계연과 이별하여 얻은 정신적 상처로 앓아누워 '봄이 오기 전'에는 손에 뼈만 남을 지경에 이르고, 이후 '청명 무렵'에는 미음 그릇을 비울 정도로 회복한다. 그러고서 달포가 넘어 지난 '이른 여름'에 ㉤과 같은 행동을 취한 뒤 옥화에게 길을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을 통해 성기가 정신적 상처로 인해 쇠약해졌던 상태에서 벗어나 원기를 되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성기는 사랑을 느끼던 계연과 이별한 뒤, 앓아눕고 나서야 계연이 자신의 이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옥화에게 전해 들었으며, 성

기는 이때 계연과의 혈연을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떠나는 계연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인 성기가 계연과의 혈연을 알아차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를 참고하면 성기의 타고난 운명인 역마살은 그의 고유한 개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기의 역마 운'의 장본이 '남사당에게 반했던' 할머니라는 것은 성기의 역마살이 남사당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성기의 타고난 운명과 고유한 개성은 혈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옥화는 성기에게 '책 장사를 시켜서' 살을 '풀어 보려'고 하면서, 성기가 정착하여 살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옥화가 책 장사를 해 보고 싶다는 성기의 청을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에야 허락한 이유는, 아들이 정착하는 삶을 이어 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성기는 옥화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착하는 삶을 모색하다가 사랑에 실패하고 좌절을 겪었으며, 역마살을 받아들이고서야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기가 '보는 사람마다'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할 지경에 이른 것은, 그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던 삶을 통해서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성기는 역마살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기가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며 길을 나서는 모습은, 그가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갈 희망을 발견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4 현대 소설

본문 170~173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②

■ **염상섭, 「두 파산」**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물질적으로 파산해 가는 인간과, 정신적으로 파산해 가는 인간의 유형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 냄으로써 해방 이후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소설이다. 정례 모친의 물질적 파산 과정이라든지 옥임의 정신적인 파산의 심리적 추이와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중간이득을 획득하는 교장의 간악한 행위 등은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며 실제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겪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파멸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물질적·정신적 파산에 이른 인간을 통한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꾸려 나가는 정례 모친은 집문서를 은행에 잡혀 얻은 30만 원으로 가게를 시작했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자, 동창인 김옥임의 동업 조건으로 10만 원 밑천을 빌리게 된다. 게다가 정례 아버지가 물려받은 마지막 땅을 팔아서 부리던 택시가 가게의 돈을 솔솔 빼가다가 결국 거덜을 내자 경제적 상황은 더욱 옹색해진다. 일제 강점기 때에 고관으로 행세하다 광복과 함께 반민법(反民法)으로 몰락할 처지에 놓이고 중풍마저 앓게 된 남편을 둔 옥임은 고리대금업자로서 친구인 정례 모친에게까지 마수를 뻗친다. 옥임은 가게 보증금 영수증을 담보로 출자금을 1할 5푼의 이자 돈으로 돌려 제 살 궁리만 한다. 정례 모친은 옥임을 통해 알게 된 교장 선생이라는 영감에게서 5만 원을 더 빌려 가게의 형편을 수습하려 하지만, 옥임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장 영감에게 일임하여 정례 모친이 이를 갚도록 만든다. 은행에 30만 원, 옥임에게 20만 원, 교장 영감에게 5만 원, 도합 55만 원의 빚을 걸머진 정례 모친은 어느 날 황토현 정류장에서 만난 옥임에게 망신을 당한다. 두 달에 걸쳐 억지로 얼마간의 빚은 갚았으나, 급기야 석 달째에는 보증금 8만 원마저 되찾지 못한 채 빚으로 메우고 구멍가게를 교장 영감의 딸 내외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몸살감기에 울화로 누운 정례 모친을 위로한답시고 정례 아버지는 옥임을 골릴 궁리를 하며 껄껄 웃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는 옥임이 과거에 동경에서 공부하던 시절과 결혼 이후, 고리대금업을 하기까지의 과정 등 옥임의 행적과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옥임의 변화된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B]는 정례 모친에 대한 옥임의 생각을 제시하는 부분이며, 옥임이 정례 모친을 '오랜 동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 '반민자' 등에 시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옥임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인물의 유년 시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시점으로, [A]에서 서술자의 주관을 배제하여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B]는 서술자의 주관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는 '-ㄴ다'의 현재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B]는 고백적 진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물의 반성이나 성찰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⑤ [A]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B]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길바닥에서 만난 정례 모친에게 거칠게 말하며 무례하게 구는 옥임과, 그런 그녀를 뒷골목으로 끌고 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는 정례 모친의 모습 등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정례 모친이 길에서 옥임에게 수모를 당한 이유는 돈을 갚지 않아서인데, 정례 모친이 옥임에게 돈을 빌린 이유는 그녀가 구멍가게를 통해 '어린애 코 묻은 돈'이나마 벌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길바닥에서 벌어진 옥임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정례 모친의 경제적 상황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멍가게에서 정례 모친과 옥임의 대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길바닥에서 옥임이 정례 모친을 다그치는 것으로 보아 길바닥은 두 사람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길바닥이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표면화되지 않은 두 사람의 갈등이 구멍가게에 대한 교장과 정례 모친의 갈등으로 인해 처음으로 부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④ 옥임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길바닥에서 정례 모친을 다그친 것이므로, 길바닥에서 벌어진 두 인물의 갈등이 정례 모친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옥임의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라고 보기 어렵다.

⑤ 길바닥에서 옥임이 정례 모친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으로 보아 길바닥을 옥임이 정례 모친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장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정례 모친과 옥임의 갈등이 구멍가게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정례 모친에게 눈을 곤두세우고 대들던 옥임이 사라진 것을 표현한 것으로, 정례 모친이 자신을 곤란하게 하던 옥임이 따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례 모친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사라진 옥임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옥임의 '젊은 서방' 운운에 대한 정례 모친의 당황스러움이 표현되어 있다.

② ㉡에는 옥임과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을 피하려 노력하는 정례 모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에는 옥임의 행동이 돈을 받아 내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정례 모친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⑤ ㉤은 옥임으로 인한 속상함, 좋지 않은 감정을 풀어 보려 애쓰는 정례 모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매달린 식솔'과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에 대한 언급은 옥임이 자신의 처지를 어려운 것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하소연을 통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옥임의 절박함과 불안 등이 과거와 달리 속물스럽게 변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돈밖에 모르고 체면, 우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례 모친이 성격 파산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옥임의 정신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며 뒷바라지하는 것은 정례 모친이 애초에 의도했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④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산이라고 스스로 언급하는 점, 옥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교장에게 결국 돈을 건네주는 점, 채무를 추궁당하며 돈에 매여 있는 점 등을 통해 정례 모친이 처한 경제적 파산 상황을 알 수 있다.

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고리대금업을 그래도 양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장을 통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방 이후의 당시 세태를 알 수 있다.

05 현대 소설

본문 174~177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③

■ **오상원, 「유예」**

해제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전투에서 낙오된 '그'가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이다. 짧은 문장과 현재형의 서술을 통해 전쟁이

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내면적인 고뇌와 전쟁의 참상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비인간적 살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의 무의미성과 참혹함, 전후 세대가 겪는 실존과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

전체 줄거리 주인공 '그'는 수색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 깊숙이 침투했다가 본대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소대원을 이끌고 남하한다. 적을 피해 산을 타고 남하하지만 잦은 전투와 굶주림으로 대부분의 소대원을 잃어버린다. 배고픔, 추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결국 선임 하사와 그만 남게 된다.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던,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도 종군하는 등 많은 전쟁에 참전했던 선임 하사도 결국 총에 맞아 죽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는 몸을 숨긴 어느 민가에서 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 한 포로를 구하다 부상당한 채 적들에게 사로잡힌다. 그가 구하려던 포로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기계나 도구가 아닌 생명체인 인간임을 느꼈다면서 남쪽을 향해 걷다가 피살된다. 그 역시 그 포로가 그랬듯 사수가 뒤에서 겨누고 있는, 남쪽으로 난 길을 걸으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글에서는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발자국이 따른다', '점점 어두워 간다' 등 '-ㄴ다' 형태의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쩐 일일까……?', '점점 가까워 오는……정확한……', '이 둑길……' 등을 통해 말줄임표가 빈번하게 쓰이고는 있으나 이는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등장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해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완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외양 외에 인물의 내면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 등이 나타나므로,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외양만을 묘사하여 작중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성현, 즉 성인과 현인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신념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가 다른 이의 총살 상황을 보고 사수를 향해 총을 쏘는 장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포로로 잡혀 총살을 당하게 된다. 즉 [B]는 포로로 잡힌 '그'가 총살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는 [A]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A]와 [B]의 인과 관계를 통해 사건의 개연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상황에서 중심인물인 '그'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무상함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B]에서 그러한 무상함이 부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B]에서 '그'는 죽어 가면서도 의지를 갖고 똑바로 걸으려 노력하며 죽음이 불안하거나 절망적인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같은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후회를 [A]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④ [B]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A]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B]에서 상황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A]와 [B]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며 시간 격차를 두고 발생한 사건들이므로, 이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일 시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흰 눈'은 색채 이미지, 계절적 배경 등을 드러내는 소재로, '가슴이 탁 트이는 것'과 같은, 전쟁 이후 맞이할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흰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검붉은 피와의 색채 대비를 통해 전쟁, 죽음과 같은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면서 따스한 햇볕과의 촉각적 대비를 통해 전쟁 속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참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눈밭을 걸어가는 인물의 상황을 보여 주면서, 차가운 흰 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비정한 현실과 차가운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피살을 당한 '그'가 죽어 가는 상황, 의식을 잃어 가는 상황을 '흰 눈', '회색빛', '점점 어두워 간다.' 등의 명암의 변화로 표현함으로써 인물이 맞는 죽음이라는 상황의 암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그 후 몇 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는 총살 집행 명령이 결정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총살 집행 명령이 결정되는 상세한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총살 집행 명령이 결정되는 과정을 요약한 서술을 통해 죽음에 임하는 인물의 여유로운 태도를 강조한다고 보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한 '청년'이 한 말인 자신이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나,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생각 등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실존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는 '오늘의 싸움'을 피하는 것을 비겁하다 생각하고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을 피해자로 인식한 이후 '청년'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충격을 가한다. 이는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것과 같은,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마지막 길'이라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뜻한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의지를 갖고 정확히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극한 상황에서도 인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그'의 죽음 이후 '놈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피우거나 기지개를 켜는 것은 다른 이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주므로, 이를 통해 전쟁이라는 상황의 비정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06 현대 소설

본문 178~181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②

■ **황석영, 「탑」**

해제 이 작품은 전쟁의 무의미성과 추악함을 비판하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전쟁의 무의미성은 '탑'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폭로된다. '탑'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또 희생되었지만 정작 지켜 낸 '탑'이 미군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상황은, 전쟁을 통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와 강대국의 논리로 제3세계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부조리함을 느끼게 한다. 한편 이 작품은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로 전투 상황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 내고 있고, 우리 소설의 지평을 세계사적 문제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 무의미하고 더러운 전쟁의 추악한 본질 비판

전체 줄거리 '나'는 본대에서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작전 지역인 R. POINT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나를 포함하여 아홉 명의 병사가 맡은 일은 오래된 탑을 적이 옮겨 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다. 다음 날 다리를 지키던 미군들은 철수하여 작전 지역에는 우리 부대만 남게 된다. 그날 저녁 작전이 변경되어 초소 주위의 배수로를 최후 저항선으로 삼아 적의 기습을 기다리고 있다. 밤 10시쯤 적의 사격으로 시작된 격렬한 전투 속에서 적의 인질이 된 소총수와 통신병, 나이 어린 분대장이 목숨을 잃었고, 남은 부대원은 탈진하여 굳어진 시체 사이에 넘어져 졸기 시작한다. 다음 날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진주하는 미군은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요량으로 불도저 한 대로 바나나밭을 밀어 버리며 탑마저 무너뜨렸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는 미군이 진주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서술자인 '나'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이다. 또한 [B]는 목숨을 걸고 참여한 전쟁에서 지켜 낸 것이 그 어떤 명분이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뿐인 상황에 대한 '나'의 비판적 인식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에는 가정의 표현도, 미래의 상황에 대한 추론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B]에는 과거 회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A]는 서술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에 초점화되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B]의 서술자 역시 1인칭 서술자인 '나'이므로 전지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도 않다.

④ '가스 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와 같은 표현을 보면 [A]에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B]에는 무의미하게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상념이 나타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⑤ [A]에 변화된 공간의 분위기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분위기에 고조된 긴장감이 나타나 있지는 않고, [B]에는 시간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고, [B]에 제시된 인물의 내면을 무기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미군이 바나나밭을 밀어 버리려고 한 것은 그 공간을 넓히고자 한 것이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우리는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저 탑을 지켰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선임조장의 말대로 포로를 교통 표지판에 묶어 놓은 것은 적군이 자신들의 동료가 묶여 있는 쪽을 공격하기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적의 접근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③ '중략 부분 줄거리' 앞부분에 마지막 전투에서 적군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중략 부분 줄거리'와 그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 적군을 물리치고 탑을 사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적을 물리치고 임무를 완수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전적 판단이며 마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라는 구절을 보면 '나'는 미군 중위가 마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 이후에 '나'의 요구와 반대로 탑을 없애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미군 중위가 '나'의 말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것처럼'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두개골 속이 곧 터져 나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전투 중간의 소강상태에서 오는 정적으로 인해 긴장과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② '~ 뭐냐.', '~ 무엇이냐.'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남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③ '~ 같았다.'는 추측의 표현으로, 이를 사용하여 적군이 크게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나'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④ 적의 통신 신호로 여겨지는 목탁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는 것은, 적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목탁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아군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적군이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포로를 앞세우고 있어 자신을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행동이 이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숭고한 인간 정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포로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패막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상대에게 포로로 잡힌 소총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동료애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제3세계인인 월남인들에게 '탑'이 지니는 가치를 미군 중위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인 미국의 시각과 논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제3세계의 운명을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한 무더기의 작은 돌덩어리'는 곧 우리 군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탑'을 나타내고, 이렇게 볼 때 '탑'은 전쟁의 명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탑이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전쟁의 명분이 무의미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7 현대 소설

본문 182~185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②

■ **이호철, 「큰 산」**

해제 이 작품은 고무신짝에 얽힌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이기적 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이 사는 동네는 현대적 교육을 받고, 교양 있고 합리적인 사람을 자처하는 현대인들이 사는 곳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미신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큰 산'은 현대인이 상실한 근원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작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들에게 '큰 산'과 같은 근원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 이기주의로 가득 찬 소시민들의 의식 비판

전체 줄거리 '나'가 사는 동네는 어느 정도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젊은 샐러리맨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가끔 굿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나'와 아내는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왠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나'는 고무신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북에 살 때 밭에 떨어진 '지까다비' 한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아내는 밤에 남몰래 고무신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열흘 정도가 지나고,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다른 집 담 너머로 던져 버렸던 고무신짝이 다시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와 '나'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러다 '나'는 삶의 균형을 잡아 주었던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린다. 아내는 다시 고무신을 버리러 나가고, '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1인칭 서술자로 이야기 속 인물이고, [A]에서는 고무신짝이 집집마다 돌아다닌 사건의 내막을 추측을 통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가 이야기 속 서술자인 것은 맞지만 이웃들이 고무신짝을 남의 집으로 던지는 것은 자신이 관찰한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짐작한 것이므로, 관찰한 사건의 전말을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했)을 것이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현재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과 상황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A]에는 서술자의 교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간간이 호흡이 긴 문장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부분에서 사건의 내막을 추측하고 있을 뿐 관념적 성찰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지까다비'짝은 '나'에게, 고무신짝은 '나'와 아내에게 공포감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고무신짝이나 '지까다비'짝은 인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길한 징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 특정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고무신짝의 경우 고무신짝이 돌고 돌아 다시 '나'의 집 마당에 있게 된 사건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까다비'짝의 경우 특정 사건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④ 고무신짝의 경우 불특정한 동네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로 볼 수는 있지만, '지까다비'짝은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⑤ '지까다비'짝이나 고무신짝 모두 이후 사건의 복선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는 '큰 산'이 구름에 깝북 가려지는 날의 날씨 조건을 나타내고 있을 뿐, '나'가 집에 혼자 돌아온 이유를 추론할 단서가 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즈음 마을 사람들이 징용을 면하기 위해 마을의 공장에 몰렸던 상황이고, '지까다비'는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신던 신발이었다는 점에서, ㉠은 마을에 지까다비가 많아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② '더 이상 못 신게 되어서 ~ 버렸으리라'에서 신발이 버려진 이유에 대한 '나'의 짐작이 나타난다.

④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을 보면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나'의 집에 하얀 고무신짝이 들어오게 된 일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빠른 입놀림', '헐떡거리듯이'와 같은 행동 묘사는 공포심으로 인해 흥분한 아내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금방 신 내리는 무당'은 공포에 질려 흥분한 아내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 비합리적인 태도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내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와 아내가 겪은 일은 이기적 세태와 관련된 것이고, 〈보기〉에서 그 원인을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작품 속 '큰 산'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략)' 앞부분에 제시되는 구름에 가려진 큰 산의 모습은 근원적 가치가 부재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신에게 꺼림칙한 물건을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린다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현대적인 교육은 곧 합리성의 교육이고, 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이 있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표면적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합리적이지 못한 동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합리적으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서술한 것은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08 현대 소설

본문 186~190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②

■ **이문구, 「우리 동네 김 씨」**

해제 이 작품은 '우리 동네' 연작의 일부로, '우리 동네' 연작은 1970년대 국가 주도 근대화가 진행되던 농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룬 소설집이다. 각 작품은 정부와 관청에서 주도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촌의 공동체가 변화하고 와해되어 가는 과정을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근대화의 부정적 이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면서도 서술에 있어 방언의 사실적 사용, 토속적 문체와 풍자와 해학을 통해 농촌적 정서를 보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제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삶과 산업화 시대 농촌의 현실

전체 줄거리 김승두가 살고 있는 천동면 놀미 마을은 지대가 높아 지하수를 구하기 어려운데, 계속되는 가뭄에 김승두는 양수기와 호스를 동원하여 천북면 장승골 저수지 물이 흐르는 길에서부터 자신의 논으로 물을 퍼 올리기로 한다. 그것을 본 유순봉과 장재원은 남의 저수지 물을 훔치는 것이라며 트집을 잡고, 김승두가 그들에게 술을 권하며 달래려는 사이 중년 사내가 나타나 양수기를 돌리며 전기를 훔치고 있다며 문제 삼는다. 그러던 중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모두 학교로 모이게 되는데, 부면장이 등장하여 퇴비를 바르게 쌓으라는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이에 불만스러워하던 김승두가 푸념을 하다가 부면장과 시비가 붙는데, 모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김승두를 응원하고 결국 부면장이 사과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소설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들(중년, 김, 부면장)의 행동 및 '김'의 내면 심리를 모두 서술하고 있다. '급한 김에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다.', '별것이 아닌 줄 알았으므로 기세를 누그러지 않았다.' 등의 문장 등에서 그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과 '중년', '김'과 '부면장'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해당 부분에서 그와 같은 묘사는 갈등의 진행 과정과 그 양상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논평을 드러낸 부분은 '남의 말에 토 달기를 예사로 해 온' 등에서 일부 드러나지만 그것을 통해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김'이 스스로 추측한 바를 서술자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으나 '김'은 이 글에서 서술자가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며 주로 '김'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서술자가 인물 간 대화를 인용하며 그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간이 변화하여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 '중년'은 '김'이 벌인 일이 보통 사건이 아닌 큰 사건이라고 말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을 밝히고 있는 쪽이라고 보아야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뭄이라는 이유로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불법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큰소리를 쳤던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으므로,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김'을 비판하며 사과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교육할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는 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부면장은 청중이 자신의 연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조용히 담배나 피우라는 말을 통해 민방위 교육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방해만 큼은 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⑤ 부면장은 '김'의 발언에 대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 묻고, 이어서 여기는 농담할

곳이 아니라는 협박조의 경고를 한다. 이렇게 묻고 경고한 것은 교육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일어날까 경계하는 부면장이 '김'이 부정적 의도를 품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는 '뒤에는 무솔이 유순봉이와 장재원이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동네에 소문날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라는 언급이, [B]에는 '남의 눈이 수백이라 ~ 싱겁게 들어가기도 우습고'라는 언급이 있어 두 경우 모두 '김'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운데 '중년', '부면장'과의 갈등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와 [B]에서 농사일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는 없다.

③ [A]에서 '김'이 '물 한 바가지 동냥을 쫓는 건 풍속을 어그리는 일'이라 말하는 것은 농사일을 위해서라면 무리한 방법을 써도 된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A]의 상황에서 '김'은 자신의 행동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것이므로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고, [B]의 상황에서 '김'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행한 행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⑤ [A]와 [B]에서는 모두 '김'과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으나 그것을 무마하려는 주변의 인물들은 그려져 있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부면장의 말에 김이 중얼거린 것에 대해 서술자가 '남의 말에 토 달기를 예사로 해 온 입버릇' 때문이었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은 '김'의 평소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그의 말이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버릇이 되어 무심코 나온 언사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농촌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며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부면장의 모습은 무례하고 무책임하다. 또한 늘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퇴비 쌓는 법에 대한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모습은 관청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교육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리라거나 필수적인 전달 사항이 있다기보다는 권위주의적 시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부면장이 '천동면이 그렇게 촌인가'라며 헥타르를 모르겠다는 '김'에게 면박을 주자 '김'은 도리어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하며 그것도 모르냐는 면박을 부면장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라고 되받아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면박을 주는 관리의 권위적 태도를 보며 느낀 씁쓸함,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부면장이 시비하던 '김'을 가리켜 '뭣 허는 사람'이냐고 묻자 마을 사람들은 부락 개발 위원, 마을문고 후원 회원 등 여러 소소한 직책들을 대며 '그 사람두 높'다고 말을 거든다. 부면장이 앞서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정숙을 요구하고 농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을 꼬집는 반응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우회적으로 '그 사람두 높'다고 말하며 함께 거드는 행동은 부면장에 대한 불만을 해학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헥타르를 기본 단위로 말할 만치 땅 너른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김'의 말을 통해 헥타르는 당시 마을 농민들에게 그다지 현실적으로 유용한 단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 시책'임을 강조하며 '전근대적' 단위는 사용을 삼가라고 말하는 부면장의 모습은 농민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정부와 관청이 주도가 되어 근대화를 이끌어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09 현대 소설

본문 191~195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③

■ **이청준, 「소리의 빛」**

해제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한(恨)'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액자 구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여인과 그 아비,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오라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주제 한의 예술적 승화

전체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판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질문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홀어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북장단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작품의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이고 [A]는 전지적 서술자가 여자가 판소리를 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B]는 '~라고 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전지적 서술자가 여자가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가을 서릿발처럼 섬뜩섬뜩한 귀기가 넘쳐 났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사건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B]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서술자의 주관인지 이야기를 전달한 여자의 주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② [A]는 1인칭 서술자가 아닌 전지적 서술자가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B]는 전지적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생각을 추론한 것이 아닌 다른 인물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③ [A]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 특정 인물이 아닌 전지적 서술자이고, [B]는 전지적 서술자가 자신이 관찰한 사건이 아닌 다른 인물이 말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⑤ [A]의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밖 서술자이긴 하지만 사건 속 인물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며, [B]는 서술자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고 전지적 서술자가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 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를 보면 '손님'이 '여자'의 소리에 익숙하게 장단을 맞춰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버지가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여자'의 눈을 멀게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를 보면 '손님'은 아버지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소리를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주인 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과 같은 표현을 보면 '천씨 사내'가 '여자'의 사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조차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와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선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다.'를 보면 '손님'이 '여자'와 헤어진 것은 실수로 길을 잃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마는…….'을 보면 〈보기〉의 '천가' 역시 '동호'의 장단에 '송화'가 소리하는 것을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여자'와 '손님', 〈보기〉의 '송화'와 '동호'는 남매 관계로 이들은 소리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감하고 있다.

② '천씨 사내'와 '천가'는 각각 '여자'와 '송화'의 사연을 묻고, 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가 계집아이였다는 말씀은 참아 버리셨소. 그 소리꾼 노인이 어린 핏덩이를 싸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던 일까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하시고'를 보면 '손님'이 '여자'의 손윗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이 글의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길 한 일이 없었는데…….'를 보면 '여자'가 '천씨 사내'에게 이전에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보기〉의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를 보면 '천가'는 '송화'가 동생인 '동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한숨 섞인 음성'이 자신의 기구한 삶에 대한 한탄일 수는 있으나, 아비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고, 또 죽은 눈빛으로 인해 소리가 한으로 깊어진 것으로 보아 아비에 대한 원한의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해당 구절은 판소리의 한 구절로,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은 판소리를 매개로 한 창자와 고수의 호응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는 그들의 응어리진 정서를 풀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죽은 눈빛'은 곧 비극적 사건을 의미하고, 이것이 오히려 여자의 소리를 윤택하게 했다는 것은 소리를 통해 여자의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아비가 여자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은 여자에게 있어 비극적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여자의 한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현대 소설

본문 196~199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①

■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해제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삼 남매 '수지', '수철'과 '오목'의 이야기를 통해 근대화, 산업화 바람이 불던 1960~70년대 사회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전쟁의 아픔을 다룬 소설이다. 전쟁 후 고아원에서 자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목', 그를 동생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부유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수지'와 '수철'의 엇갈리는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계층 문제, 중산층의 위선과 허위의식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전쟁 중 1951년 1·4 후퇴 때 피란길에서 사람들의 물결로 붐비는 때를 틈타 일곱 살 수지는 다섯 살 동생 오목(수인)을 은표주박 노리개로 한눈팔게 하여 손을 일부러 놓아 버리고 혼자서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가족들은 오목을 찾기를 포기하고 피란을 떠나고,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가 남긴 유산의 덕택으로 유복하게 살아간다. 오목을 찾으려고 고아원 봉사를 지속해 오던 수지는 오목을 만나고 결국은 그녀가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지만, 오목이 자신을 언니로 알고 둘의 관계가 밝혀지면 지난날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수철 역시 겉으로는 수소문하며 동생을 찾으려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오목의 행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름 없는 독지가로 잠시 취직을 도울 뿐 그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꺼린다. 우연히 오목은 수지의 옛 애인인 인재와 인연이 닿아 짝사랑하게 되는데, 수지는 이를 알게 되자 질투를 느껴 둘을 갈라놓고, 그 후 오목은 같은 고아원 출신인 일환과 살게 되는데, 일환은 오목이 낳은 첫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짐작하면서 오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불행한 가정생활이 이어진다. 이후 자선 사업을 하며 사는 수지와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오목이 다시 만나, 수지는 일환의 중동행을 주선해 주며 그것으로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하지만 오목은 결핵으로 쓰러지고, 죽음을 앞둔 오목은 수지에게 은표주박을 감사의 표시로 건넨다. 수지는 그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언니임을 고백하며 참회하지만 오목은 이미 죽은 뒤였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의 '메밀꽃처럼'은 비유로 볼 수 있는데 연탄재 위에 밥찌꺼기가 얼어 있는 모양을 표현한 것일 뿐 오목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에는 과장된 표현으로 볼 만한 구절을 찾기 어렵고, 인물의 지위를 드러내는 표현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오목이 타인들의 마음을 두고 '비웃고 약 올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오목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B]에는 수철이 '수인이나 오목이를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지' 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수철이 친척들로부터 얻고 있는 신뢰를 잃지 않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② [A]에서 오목이 7층 건물을 보며 보이는 진저리를 치는 반응은 오목이 자신이 일하고 머무는 영광 학원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다. [B]에서 수철이 오목이 낸 광고를 보고 감추기에 급급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서술한 것은 오목을 찾아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꺼리는 수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④ [A]는 더러운 뒷골목의 모습, 명절을 앞둔 번화한 거리의 모습

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명절 휴가를 계기로 외로움과 적막감을 느끼는 오목의 정서와 관련이 깊다. [B]는 수철이 오목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신문 광고에서 오목을 발견했던 일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그간의 수철의 행적을 드러낸다.

⑤ [A]에는 명절을 맞아 좋은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오목은 이를 보며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불행히 여기고 있다. [B]를 통하여는 수철이 자신의 친척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오목은 사람들이 가족과 설 명절을 맞아 떠난 연휴 기간에 학원 건물에서 적막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아원 원장 아버지를 만나러 나서는데, 그 길에서도 명절을 즐기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소외감과 가족이 없다는 결핍감에 서러움을 느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오목은 다른 이들이 가족과의 즐거운 때를 보내는 설 연휴 기간 자신만은 홀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고아원 원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고아원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② 오목은 자신이 일하던 7층 건물 학원의 사람들이 거의 설 휴가를 떠나 텅 비어 있는 시간에 적막감과 소외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계기로 볼 수는 없다.

④ 오목은 설 연휴 기간을 계기로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오목이 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또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수철은 자신이 오목을 꺼리는 이유가 오목이 고아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자기변명을 마련하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억지스럽다고 여기며 실소하고 있다. 이는 자조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억지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도 그것을 바로 잡고 오목을 데려오고자 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오빠이자 가장으로서 오목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수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서술된 바가 없다.

② 수철은 잃었던 동생을 만나는 반가움보다 동생을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오목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동생 찾기를 포기함으로써 죄책감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자신의 혈육인 동생을 찾은 수철은 동생을 가정 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동생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면할 만한 핑계를 찾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자기모순을 깨닫고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수철은 자신이 동생을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기 거북해하는 마음에 대하여 아내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오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수철의 신념과 관계있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을 양보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수철이 일가문중에 착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모습은 수철이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소설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철이 속마음이 선하지 않음에도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런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왔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숨기고 살아왔으므로 친척들이 그를 선하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전쟁이 개인의 삶에 드리운 그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도시가 복구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기보다 저마다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에 점점 몰두하게 된다. '갈수록 제 살기에만 바빠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이기적 세태를 표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했다는 것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 많이 있었고 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누이동생을 찾았음에도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누이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두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수철과 수지는 세상을 떠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부유한 생활을 하며, 수철은 오빠로서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가며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11 현대 소설

본문 200~203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①

■ **김연수, 「달로 간 코미디언」**

해제 이 작품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소통의 어려움과 진실에 가닿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등을 그려 내고 있다.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1981년 국풍81, 1982년 권투 선수 김득구 사건 등 잘 알려진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 사건 속의 현장에서 부침을 겪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점을 말하는 한편, 자신의 경험과 책, 편지, 대화 등의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사건을 진실에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서술자의 모습을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소설이다.

주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전체 줄거리 '나'는 198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복싱 경기에서 사망한 선수 김득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라디오 PD 안미선을 만나고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곧 안미선의 뜻에 따라 헤어진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 가던 '나'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그녀의 삶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뒤늦게 성공한 코미디언 안복남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있었고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에는 아버지를 잃은 상처까지 안은 채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공연이 담긴 영상 자료를 돌려 보고 그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어느 날 점자 도서관에 찾아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아버지 안복남이 사실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코미디 연기를 해 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는 1981년 이후로 무대에 서지 못하고 1982년 권투 선수 김득구가 라스베이거스로 경기를 떠날 때 후원자 기업인의 요청으로 함께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돈을 훔쳐 행방불명되는데, 이때 이미 눈이 멀어 있었을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안미선은 미국으로 떠나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본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사막에서 소리를 녹음하여 '나'에게 보내 자신에게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려 준 점자 도서관 관장에게 녹음 시디(CD)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이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동봉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서술자가 이 관장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었던 행동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것을 통해 상대방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안미선은 자신의 아버지인 안복남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안복남의 삶에 중요했던 사건들을 편지에 언급하고, 서술자 '나'는 그 편지 내용을 언급하며 안복남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1977년 이리역, 1980년 5월 등 안복남의 삶에서 중요했던 시간과 장소들을 언급하여 안복남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안미선과 이 관장이 만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관장의 말을 통해 이에 대해 알게 되고, 안미선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느꼈을 충격과 슬픔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다. 서술자 '나'는 이 관장과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여 직접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안미선이 이 관장과의 만남 당시에 느꼈을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⑤ '나'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안미선이 자신의 아버지인 안복남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었다는 것을 함께 전달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안미선과 안미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게 되었음을 전달하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안미선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소개하며 안미선과 안복남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고, 이 관장에게도 '편지 받고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관장과 만나기 이전에 부녀 관계를 알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관장은 '나'에게 안미선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안미선과 이 관장의 만남이 있은 후에 '나'와 이 관장이 만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이 관장은 안미선과 '나'의 관계가 연인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고 '나'에게 언급하고 있다.

④ 이 관장은 안미선과의 만남을 통해 안복남이 가족에게서 말없이 떠났음을 알게 된다.
⑤ 이 관장은 안복남을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접하고 그가 시력을 잃어 가던 중이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된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관장은 사람이 앞에 없는 줄 모르고 말을 이어 갔던 경험, '왼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통해 막막했던 경험을 말하며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시각 장애인인 자신의 지각 방식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관장의 이러한 설명은 뒤에 안미선과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시각 장애인인 자신이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상대방인 '나'의 행동에 대해 비난한 것은 찾을 수 없다.
② 이 관장은 자신이 시각으로 인지했던 기억에 어긋나는 새 정보를 받아들이기 두려워 안구 적출 이전에 가 보았던 장소에 가기를 꺼린다고 말한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에서 달라진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오답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화의 상대방보다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⑤ 상대방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감각과 자신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그것을 두고 어떤 결정을 이해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안복남은 1977년 이리역 근처 극장의 공연을 하러 갔다가 폭발 사고를 겪은 후로 안경을 쓰게 되고, 자주 눈을 찌푸리거나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를 모른 채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기기만 할 뿐, 가족들은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 관장은 '국풍81'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대화를 안미선과 나누다가 그녀에게 안복남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바를 누설하게 된다. 이 일을 통해 안미선은 아버지 안복남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그를 결국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두 사람의 대화가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고를 뉴스에서 접한 안미선은 미국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것은 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잃은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등의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설정이다.
④ '국풍81'은 당대 잘 알려진 문화 행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함께 있지 않았던 안미선과 이 관장도 이 행사를 두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를 보며 역사적 사건이 사람들 사이의 공유하는 기억이 되고 소통하는 매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안복남은 이리역 폭발 사고로 인해 눈을 크게 다친 후로 혼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시력을 잃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가족들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이상하게만 여기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잃게 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수능완성에서 뽑은 1800단어 수록
수능 어휘 완전 정복 커리큘럼

01 극 · 수필

본문 204~207쪽

01 ② 02 ⑤ 03 ④

■ **작자 미상, 「통영 오광대」**

해제 이 작품은 경상남도 통영에 전승되는 탈놀이로, 문둥탈, 풍자탈(말뚝이탈), 영노탈, 농창탈(제자각시탈), 포수탈 등의 다섯 과장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둘째 과장으로, 말뚝이와 양반들의 재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민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다른 탈놀이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신랄하다. 말뚝이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켜 평민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는 조선 후기 문란했던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지문은 장재봉과 오정두가 구술한 내용을 이두현이 기록한 것이다.

주제 양반들의 허위의식에 대한 풍자와 조롱

구성

- 발단: 말뚝이를 부르는 원양반
- 전개: 말뚝이의 문안 인사와 양반들의 풍류 자랑
- 전환: 양반들과 말뚝이의 근본에 대한 설명
- 결말: 말뚝이에게 용서를 비는 양반들

01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 ㉠을 하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새로운 과장(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을 하며 인물들이 퇴장하는데, 이는 과장(장면)이 끝났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다. ㉡은 심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원양반이 이를 잠시나마 잊기 위해 다른 인물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은 봄을 맞이하여 흥취를 느끼는 원양반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가. ㉠에서는 각 인물들이 자신의 특징을 보여 주는 춤을 추며 등장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은 흥에 취한 인물들의 태도를 드러낼 뿐,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라. ㉡은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춤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은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추는 춤이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 말뚝이는 첫째 양반, 둘째 양반, 셋째 양반 등 각 양반들의 가문의 내력이 천하다는 점을 열거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대의 부정적 면모를 제시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B]에서 말뚝이는 '~ 어떠하뇨'의 방식으로 선대조, 할아버지, 아버지 등 자기 조상이 높은 관직을 지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긍정적 면모를 제시하고 상대에 비해 자신이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B]에서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낼 뿐, 양반들에 대한 연민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는 양반을 조롱하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반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B]에서 말뚝이가 자신과 양반들 사이의 이질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A]에서는 고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양반의 동정심을 자아내게 하려 하지도 않았다. [B]에서는 자기 가문을 자랑할 뿐 관용어구를 활용하여 양반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

④ [A]에서는 '~ 자랑하냐'처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양반의 근본이 좋지 못함을 드러낼 뿐, 양반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도 '~ 어떠하뇨'처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기 가문이 좋음을 드러낼 뿐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연당 못에 물뱀 새끼 모이듯이 촌 골목에 도야지 새끼 모이듯이'는 양반을 물뱀 새끼와 돼지 새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떼를 지어 자신을 부르는 양반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말에는 약자에게 횡포를 가하는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양유천만사는 각유춘풍을 자랑하고'와 '별유천지는 비인간이로구나.'에는 한자어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처럼 서민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양반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설정에는 서민이 양반에게 함부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님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② '만약 문안을 잘못 받으면 양반놈들 혀를 쑥 빼리로다.'에는 '양반놈'이라는 비속어와 '혀를 쑥 빼리로다'라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배층을 조롱하고 싶어 하는 서민의 심리를 반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③ '일등 미색 고운 태도 양반 눈앞에 보이니 양반의 마음이 흔들흔들'한다는 원양반의 말에는 당대 양반들이 예법이나 체면을 경시하고 있음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박 생원님 여보소, 들어 보시오. 황공하고 무리하여 살려 주오'는 말뚝이가 권세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자 양반들이 갑자기 낮은 자세로 말하는 것으로, 힘없는 이들에게 강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 비굴한 양반들의 부정적 행태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02 극 · 수필

본문 208~212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①

■ **채만식, 「영웅 모집」**

해제 이 작품은 세태 풍자가 나타나는 희곡으로, 파고다 공원을 무대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장면을 형성한다.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소년, 전문학교 학생, 타락한 남녀, 알량한 과부, 병든 노동자, 변절한 지식인, 순사 등의 대화를 통해 1930년대의 병든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작가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피에로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은 총 10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10개의 장면에 대해 마치 피에로가 관객에게 정리를 해 주는 듯한 설정을 보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다양한 인간 군상과 그에 대한 비판

구성

- 장면 1: 깔끔한 의복의 소년 A가 카스텔라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행색이 초라한 소년 B가 이를 빼앗으려고 한다. A는 B를 약 올리고 B는 악착같이 카스텔라를 빼앗아 먹는다.
- 장면 2: 전문학교 학생 A와 B가 등장하여 고등룸펜이 늘어나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요행을 바라거나 마작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등 염세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 장면 3: 매춘부가 어떤 남자를 향해 정조를 흥정한다.
- 장면 4: 신사 A가 신사 B에게 파고다 공원을 불하받아서 그곳에 유흥 시설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고 말한다.
- 장면 5: 과부가 아들, 딸과 함께 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옛 친구를 만난다. 과부는 자식들을 위해 수치를 참아 가며 첩살이를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쫓겨났다고 한다.
- 장면 6: 사흘째 굶은 처자가 있는 병든 노동자가 죽어도 가족과 같이 죽어야겠으니 뚝섬까지 나가야 한다고 순사에게 말한다.
- 장면 7: 굶주리고 행색이 초라한 룸펜들이 등장하여 벤치에 걸터앉아 있고, 변절자인 어떤 사람 A와 B가 등장하여 자신들의 변절을 합리화한다. 어떤 사람 B가 담배 토막을 버리자 룸펜들은 그것을 서로 집으려고 야단이 난다.
- 장면 8: 북간도로 떠나는 이주민 가족이 서울을 지나던 중 공원의 사리탑을 보며 눈물을 보인다.
- 장면 9: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주정꾼 A, B가 등장한다.
- 장면 10: 피에로는 '영웅 대모집'이라고 쓴 간판을 들고나와 종을 치며 영웅을 모집한다고 소리치지만 소년들의 놀림만 받을 뿐이다.

01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피에로'라는 특정 인물은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고 있으며 관찰의 내용을 토대로 인물들을 평가하고 있다. 인물들에 대한 피에로의 평가를 통해 관객은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나 행동 등 극 중 상황에 비판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소품들로는 '어떤 사람'들의 '담배', '룸펜 일동'이 집으려 야단인 '담배 토막', 이주민 가족들이 들고 있는 '보꾸러미들'이 있다. 그러한 소품들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물 태도의 긍정적 변화 양상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시된 장면들은 모두 현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하나의 무대 위에 두 가지 상황을 번갈아 반복하여 등장시킴으로써 현실과 환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극 중 인물들 중 무대와 관객 사이를 오가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관객을 극 중 상황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 과정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특수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북간도는 이주민 가족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조선서 태어나서' '저만큼씩이나' 자랐으나 '아무리 살 수가 없어' 떠나게 된 '만리타국'이다. 따라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주민 가족이 자신들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북간도가 그러한 반성을 유도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주민 가족이 현재 기거하고 있는 곳은 조선이다.

④ 북간도는 이주민 가족의 대화 속에 제시되는 공간이기는 하나

인물들이 과거에 함께 머물렀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북간도는 인물들이 향하는 목적지로서 유랑하는 과정 중에 머무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족들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북간도를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도 볼 수 없다.

0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이주민 가족이 주고받은 대화를 듣고 난 이후의 피에로의 반응으로, 조선을 떠나는 이주민 가족의 사연에 대한 안타까움과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행동과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잘되면 돌아와서 보란 듯이' 살 것이라는 아들의 각오에 대한 공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신사 A, B의 대화를 듣고 난 이후 피에로의 반응으로, 신사들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원의 탑을 없애고 유흥 시설을 지으려 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② ㉡은 피에로가 노동자와 순사의 대화를 듣고 난 이후에 보인 반응으로, 노동자가 처한 딱한 처지에 기인한 행동이다.
③ ㉢은 어떤 사람 B가 버린 담배 토막을 룸펜 일동이 집으려는 것을 보고 난 이후 피에로의 반응으로, 담배 토막 때문에 야단을 피우는 룸펜 일동의 한심스러운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④ ㉣은 피에로가 이주민 가족 중 딸이 사리탑을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하는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보인 반응으로, 딸이 사리탑에 대해 보이는 관심에 기인한 행동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신사 A는 공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원을 불하받아 '승거운 탑'을 없애고 유흥 시설을 지으려 한다. 따라서 신사 A가 공원을 예전과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공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일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순사는 일제 강점기 경찰 직책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자의 대사에 나타나는 '병든 다리'와 '굶어서 다 죽어 가는 처자' 등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생활이 어렵고 가난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를 통해 어떤 사람 A는 지식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다들 마찬가지이며 자신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며 변절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 A는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④ 아버지가 북간도로 떠나는 상황에서도 만리타국인 호지에 뿌리가 박혀서는 쓰겠냐고 말하는 것을 통해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가치인 민족의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주정꾼들을 보고 분노하는 피에로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과 한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3 극 · 수필

본문 213~216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 **유치진, 「소」**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소'를 둘러싼 소작농 가족의 갈등을 그려 냄으로써 당대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희곡이다. 소는 국서네 식구들 간의 갈등을 매개하는 대상이지만, 결국 소를 차지하는 것은 국서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제삼자인 논임자이고 소를 통해 욕망을 실현하려던 국서 가족은 몰락하고 만다. 이러한 사건의 이면에는 친일 지주 세력이 불합리한 소작 제도를 통해 농민들을 수탈하던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주제 친일 지주 세력에 의해 수탈당하던 일제 강점기 농촌의 현실

전체 줄거리 국서는 자신이 가진 소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소를 애지중지한다. 차남 개똥이는 아버지가 그런 소를 팔아 자신에게 만주로 갈 노자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지만, 국서는 그런 개똥이의 청을 무시한다. 한편 장남 말똥이는 한창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농사일을 내팽개치고 게으름을 피우는데, 그 이유가 그와 혼약을 맺었던 귀찬이가 일본으로 팔려 가게 되었기 때문임이 드러난다. 국서는 귀찬이를 데려올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 결심까지 하지만, 마름이 나타나 밀린 소작료를 대신하겠다면서 소를 끌고 가 버린다. 결국 귀찬이는 일본으로 팔려 가고, 국서는 소를 되찾을 궁리를 하지만 논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득 될 것이 없음을 알고 단념한다. 혼인이 좌절된 말똥이는 화가 나서 논임자의 곳간에 불을 지르고 주재소에 체포된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국서가 길에서 국진을 만나 맘먹은 대로 변통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점, 저당을 잡힐 것이 없어 귀찬이를 데려올 수 없음을 한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진이 국서를 위해 귀찬이의 몸값을 치르기 위한 돈을 빌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젊은 일꾼은 개똥이로부터 간밤에 대감 나무에서 귀찬이와 말똥이가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국서 아내로부터 귀찬이가 팔려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간밤에 귀찬이가 말똥이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맞는지 말똥이에게 확인하는 물음을 던진다. 따라서 젊은 일꾼이 이별 통보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귀찬이가 일본으로 팔려 간다는 소식을 귀찬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사람은 국서 아내이다. 국서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는다. 국서가 귀찬이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개똥이는 말똥이가 대감 나무에서 귀찬이와 만난 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음을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다. 말똥이가 대감 나무에서의 일을 개똥이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국서 아내는 소를 팔자는 국진의 말을 듣고 소를 키운다고 동리에서 자신들을 부자라고 한다는 점, 소를 보고 귀찬이 집에서 귀찬이를 보내 준다고들 한다는 점 등 소가 주는 효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귀찬이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지 못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말똥이가 눈치 없이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자, 그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국서가 한 말이다. 국서가 자식이 시킨 일을 제대로 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에 자신이 시킨 일을 자식이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개똥이가 말똥이와 귀찬이의 관계를 알고도 진작에 이를 식구들에게 말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국서 아내의 심리가 드러난다.

② ㉡에는 혼인하자고 약속한 귀찬이가 팔려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말똥이가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가 드러난다.

③ ㉢에는 귀찬이의 몸값으로 쓸 돈을 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는 바람에, 말똥이와 맺어 주려던 귀찬이가 나까무라 상에게 팔려 가고 말 것을 염려하는 국서 아내의 심리가 드러난다.

⑤ ㉤에는 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국서가, 국진으로부터 소를 팔자는 말을 듣고 느끼는 당혹감과 거부감이 드러난다.

03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국진은 소를 가진 것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를 팔지의 여부에 대해 국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국진은 국서가 바라는 대로 귀찬이를 데려오기 위해 돈을 빌릴 경우,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나 소를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국진은 소가 소중하다 해도 자식보다 소중하겠냐고 물으며, 소와 자식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④ 국진은 국서가 소를 팔지 않을 경우, 논임자가 묵은 도지를 받아 내기 위해 소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⑤ 국진은 남의 병작 소를 먹이면 농사짓는 데 걱정이 없을 것이라면서, 소를 파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말똥이가 귀찬이와 '같이 살자구 철석같이 약조'한 것은 귀찬이가 말똥이에게 자신이 팔려 간다는 말을 하기 전의 일이며, 말똥이가 귀찬이의 일로 인한 심정을 드러내기 전까지 국서 부부는 말똥이와 귀찬이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이를 통해 볼 때 말똥이가 혼사 문제로 인해 벌어진 집안 내 갈등을 이겨 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농민인 귀찬이의 아버지는 밀린 도지를 갚기 위해 딸을 일본으로 팔게 되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 농촌의 사회적 모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귀찬이 아버지나 국서는 모두 '묵은 도지'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렇게 불어 가는 고액의 소작

료는 그들이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빈궁하게 살아가야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국진이 당장에 돈을 빌릴 경우 변리가 불어나 결국 소를 팔게 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국서를 설득하자 국서는 '소 팔어먹구 잘되는 놈의 집안은 고금에 없'다고 대답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국서의 말에는 소에 대해 경제적 가치 이상의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던 당대 농민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국서와 국진이 소의 처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서 아내가 마름이 도지 때문에 화를 내고 갔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국진은 마름을 '악바리'라고 지칭하면서 그로 인해 국서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염려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 대목을 통해 국서네의 갈등 이면에 소작인과 지주 계층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극 · 수필

본문 217~220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 **선우휘 원작, 이은성 · 윤삼육 각색, 「불꽃」**

해제 이 작품은 선우휘 원작의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작품의 내용은 원작 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행동주의적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의 한국 근대사의 중심을 꿰뚫고 지나가는 한 인물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불의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주제 한국 근대사의 비극적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 개혁을 실천하는 한 인간의 결의

전체 줄거리 고현은 3·1 운동 때 일경의 총을 맞고 뒷산 동굴에 피신하였다가 죽은 아버지로 인해 할아버지인 고 영감으로부터 현실에 순응하고 살도록 강요받고 자란다. 현은 일본 유학 시 제국주의 찬양론자들의 주장에 불만을 품고 귀국했다가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고, 학병 탈출 후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온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연호와 이념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현은 인민재판에서 영순의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것에 분노하여 연호를 치고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피신한다. 현의 은신처를 알게 된 연호는 고 영감을 인질로 잡고 투항을 권유한다. 대치 상황에서 연호가 고 영감을 사살하자, 현은 동굴에서 나와 연호를 총으로 쏜다. 그 과정에서 연호에게 총탄을 맞은 현은 흐려져 가는 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현실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01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앞의 내용을 보면 현은 이미 죽음을 무릅쓰고 불의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상황이므로, ⓔ는 현실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얼굴에 배는 식은땀'은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자신의 앞에서 국민회 회장이 맞아 죽어 나가는 상황에 현이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이미 시체가 되어 나간 국민회 회장의 다음 차례로 끌려 나간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는 영순을 싸늘히 지켜보는 연호의 모습을 통해 연호가 비극적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이미 총을 한 발 맞았는데도 그대로 적을 향해 뛰어나오는 현의 모습은 현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④ 죽음을 무릅쓰고 불의에 맞서 싸우다 총에 맞은 채 보여 주는 환희의 얼굴에서 현이 자신이 한 행동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현은 불의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다가 마침내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을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 ㉡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은 할아버지가 총에 맞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려는 순간 현의 앞을 가로막고 현을 압박하는 것이므로, 현의 행동을 저지하는 심리적 기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은 그런 ㉠이 변화한 것으로 열정을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는 심리적 동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현의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므로 현에게 용기를 주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은 현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현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은 현의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므로, 현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은 현의 이후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현의 자부심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은 현이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심리적 기제로 볼 수 있지만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기 어렵고, ㉡은 현이 행동하도록 하는 의지, 열정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이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은 안온한 삶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심리적 기제이므로, 현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은 현이 죽음을 불사하고 행동하게 하는 심리적 기제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행동의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03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S# 142, S# 144, S# 146의 현실의 이미지와, S# 143, S# 145의 환상의 이미지가 교차하면서 불의한 현실과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맞서 싸우고자 하는 현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 140~S# 141에서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S# 142 이후의 장면에서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S# 142~S# 146에는 인물 사이의 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S# 142~S# 146에 슬로 모션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장면에서 인물의 절망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⑤ S# 142~S# 146에 인물의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0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는 움직임이 없는 현의 표정이나 긴장으로 인해 식은땀이 흐르는 현의 얼굴만 제시되어 있을 뿐, 연호를 향한 현의 감정이 나타나지는 않고, 〈보기〉에는 현에 대한 연호의 감정만 드러날 뿐 연호에 대한 현의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와 [A]에는 모두 인민재판에 회부된 국민회 회장에 대한 폭력이 묘사되어 있다.
② 〈보기〉의 '거의 흙빛이 된'과 [A]의 '두려운 얼굴' 등에서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느끼는 공포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③ 〈보기〉에는 연호가 인민재판에 현을 부른 이유가 현에게 인민재판을 보게 하려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A]에는 국민회 회장, 조경태 목사와 함께 현이 인민재판을 받는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⑤ '조직을 이탈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보여 주겠소.'의 구절을 보면 [A]에서 연호가 인민재판을 연 의도는 조직을 이탈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자를 응징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구절은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보기〉에는 '너는 수월히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다. 그것은 굴복.'과 같은 구절을 통해 인민재판을 연 연호의 의도가 현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 있다.

05 극 · 수필

본문 221~224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④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해제 이 작품은 1974년 개봉한 영화 「토지」의 시나리오이다. 박경리 원작의 대하소설 『토지』의 1부를 각색한 작품으로, 일본에 의해 국권이 피탈당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경남 하동 평사리 일대의 만석꾼 대지주 최 참판 일가가 무너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평사리 농민들의 애환과 남녀 간의 치정, 갈등과 음모, 전염병 등의 여러 사건들이 일제의 침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리면서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주제 국권 피탈과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격랑을 이겨 내는 민중들의 모습

전체 줄거리 경남 하동 평사리 일대의 대지주인 최 참판가, 주인인 최치수와 어머니 윤씨 부인이 지키고 있는 이 집은 윤씨 부인이 겁탈을 당해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비밀을 안고 있다. 치수가 10여 세였던 옛날에 동학 우두머리 김개주에게 겁탈당한 후 절로 피신

해 목숨을 부지하고 김환을 낳은 것. 그 김환이 후에 치수 집 머슴으로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치수의 처인 별당 아씨와 정을 통하여 함께 도망치고, 치수의 딸 서희는 어머니를 이유도 모른 채 잃고 몸종 봉순이와 함께 외롭게 자라난다. 최치수는 만석꾼 살림을 눈독 들인 귀녀와 평산, 칠성 일당에게 살해당하고, 고종 40년에 전국을 휩쓴 호열자(콜레라)로 윤씨 부인도 죽고 만다. 혈혈단신 남겨진 서희는 최 참판가의 재산을 눈독 들여 온 조준구와 그의 처 홍 씨의 아래에서 자라나는데, 조준구 부부는 악독 지주로 행세하며 농민들을 괴롭히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들고일어난 농민들 손에 의해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다. 마을 사람들은 의병으로 나갔다가 여럿이 죽고 부상 입어 마을로 돌아오지만, 조준구의 밑에서 땅을 부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 간도로 떠나게 되는데, 최서희도 자신의 땅과 재산을 되찾을 각오를 다지며 간도로 떠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조준구는 의병에 대해 '산에 들어가서 개죽음'이라고 일컬으며 의병장이 되어 달라는 김 훈장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한다. 이것으로 보아 조준구가 의병으로 싸우는 일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막의 마을 사람들은 머슴살이보다도 못하다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너무 고달픈 처지라 빚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빚을 내러 찾아가기로 의논하지는 않았다.

② 마을 사람들이 조준구의 악행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에게 저항할 방법을 찾고자 김 훈장과 의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④ 김 훈장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서고자 하는 것과 이를 거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김 훈장이 조준구를 의병장에 적격이라 여겼던 것은 사실이나, 김 훈장이 스스로 의병장이 되기로 했는지 알 수 없다.

02 지시문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사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윤보와 용, 그리고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영팔이 조준구에게 저항하는 행동을 조직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로 뜻을 모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주막 사내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턱수염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조준구의 말에 분노한 김 훈장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② 김 훈장은 조준구가 '약주나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그의 손을 뿌리친다. 이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라는 지시이다.

③ 술을 마시지는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행동을 표현하도록 한 후 사내들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대화를 용과 윤보가 듣고 있음을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⑤ 삼수를 에워싸는 장정들의 행동을 '살기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삼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S# 194~S# 195에서는 최 참판가를 둘러싼 사람들이 물리적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때 삼수는 걸어 닫힌 최 참판가의 문을 열어 주고, 윤보는 '알면서도 누설하지 않았으니 살려 주자'라는 말을 한다. 이를 통해 삼수가 최 참판가 습격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횃불 군중들을 도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준구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 181에서 조준구와 대화하던 김 훈장이 S# 182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는 김 훈장이 나라를 잃은 울분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S# 190에서는 영산댁의 주막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조준구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대화 끝에 영팔과 용, 윤보가 뜻을 모으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어 S# 191에서 횃불 행렬이 조직되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주막에서의 대화가 횃불 행렬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③ S# 191에서 하나둘 일어난 불꽃이 행렬을 이루고, S# 192에서 그 행렬이 다리를 뒤덮고 있는데, 이때 횃불의 물결을 '농민들의 최후의 분노 같다.'고 한 점, '분노한 농민들의 얼굴'과 같은 표현을 통해 횃불 행렬에 나선 이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S# 196~S# 197에서는 흙신발로 난입하는 모습, 준구를 찾으려고 수색하는 모습, 패물을 챙기는 모습 등을 통해 사람들이 조준구와 재물을 찾아 이곳에 왔음을 표현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 김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횃불 행렬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김 훈장은 그들과 함께 이곳을 떠날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횃불 행렬의 뜻에 동조하는 것으로 김 훈장의 뜻이 섰음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곰보'는 횃불 행렬을 이끌고 있는 윤보로, 횃불 행렬에 나서게 된 이유를 길게 밝히고 있다. [A]에는 이 부분이 생략된 채로 제시되어 있다.

② 〈보기〉의 곰보의 말을 볼 때 김 훈장이 횃불 행렬을 일으키려는 것에 '화적 떼 같은 소행'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A]에는 이와 같은 갈등의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보기〉의 김 훈장은 '그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있다. [A]에는 김 훈장의 결심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김 훈장의 눈에 고이는 눈물을 통해 횃불 행렬을 바라보며 비감해지고 있는 김 훈장의 감정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6 극 · 수필

본문 225~227쪽

01 ③ 02 ② 03 ⑤

■ **이병기, 「경주의 달밤」**

해제 이 글은 1930년에 경주를 여행하고 쓴 기행 수필로, 신라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경주의 일제 강점기 풍경이 드러나 있다. 몇 번째 와 보는 경주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서 밤에 여관을 나선 글쓴이는 경주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길에서 관찰한 사람들의 모습, 멀고 가까운 곳의 풍경, 옛날부터 한결같이 경주를 비춰 주던 달 등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던 글쓴이는 북천 백사장에 이르러 풍년 축하 씨름판을 구경하고, 실제로 보기는 처음인 씨름이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유희라고 생각한다.

주제 경주의 밤 풍경에 대한 감회

구성

- 처음: 경주를 구경하러 나서는 밤 산책
- 중간: 경주의 밤 풍경과 달에 대한 감상, 씨름판의 모습
- 끝: 씨름판을 나와 홀로 배회하는 경주에서의 달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백사장으로 보이던 곳은 사뭇 조약돌 판이다. 한편에 물이 좀 흐르는 듯 마는 듯하고는 반들반들한 조약돌뿐이다. 한참 밟아 가니 발이 아프다. 거의 숲이 있는 데까지 가서야 씨름판이 나선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씨름판이 벌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음식이며 잡화를 팔기도 하고 가지가지 오락도 하면서 삼사일을 보낸다고 하였을 뿐 글쓴이가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문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나는 다시 조약돌 판으로 나와 이리저리 어정이었다.'라고 하였다.

② '나는 봉황대로나 올라갈까 하고 발을 멈추고 망설이다가는 다시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를 통해 글쓴이가 논밭 사이의 신작로를 따라 걸어간 쪽은 봉황대의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가 산책 중에 어떤 청년과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옆으로 살짝이 비껴서 지나'갔다고 했고, '그러고는 다시는 오고가는 이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글쓴이가 북천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 걸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⑤ '올해는 풍년이라 풍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근처 농민들이 모여 북천 내에 씨름판을 열었다 함은 이 경주를 찾아올 때 차 속에서 누구에겐가 들은 법하다. 옳지, 이것이 그것이다.'를 보면 글쓴이가 풍년을 자축하는 씨름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경주를 떠날 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신작로'가 '고요히 누워 있'다고 한 것은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관념에 빗댄 것이 아니라, 길이라는 사물을 고요히 누워 있는 생명체에 빗댄 활유적 표현을 통해 시가지를 벗어난 공간의 한적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여관을 나섰다. 저녁을 먹고.'는 '나는 저녁을 먹고 여관을 나섰다.'라는 문장에서 일부 어순을 도치한 것이며, 이런 서술을 통해 앞으로 서술될 이야기가 경주의 '달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에 벌어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이곳에서 본 달'이 '이때까지 보던 달'과 달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달'이라고 하였으므로, 과거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경주에서 보는 달을 예찬한 것이다.

④ "동경 밝은 달에……"는 '처용이'의 '노래'를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달도 또한 저 달이 아닌가.'는 설의적 표현이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글쓴이는 경주라는 공간에서 보는 달로부터 느끼는 특별한 감회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⑤ 글쓴이는 '수없는 벌레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처음 오는 이 길'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단순성을 갖춘 씨름이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드러나는 전통 유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씨름을 풍속화의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자신이 이전에 단원의 풍속화에서 보았던 씨름을 실물로는 처음 보았다고 했을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요릿집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근래 유행하는 노래'에 불과한 데에 실망한 글쓴이는 '다른 데로 나가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 노래에 대해 글쓴이가 '경주다운 노래나 아닌가 하고' 기대했던 것은 경주에서 그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침침한 좁은 골목을 나서 제법 전등깨나 켜 있는 큰길로' 나아가는 것은 글쓴이의 여정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그 거리의 상점이 대개 외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옆에서 '물러 터진 감, 능금, 배나 그 옆에 몇 개 놓고 파는' 이들의 모습은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전등은 가물가물하고 상인은 졸고 있고 이따금 어디서 쿨룩쿨룩 기침 소리만 날 뿐'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활기를 잃은 거리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경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자신이 보고 있는 달이 과거의 경주, 현재의 경주, 미래의 경주를 비추는 달임을 떠올리면서 '무한한 느낌'을 받고 '백 년의 인생이나 천 년의 신라도 한 찰나에 지나지 못함'을 생각한다. 이는 자연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사가 짧고 덧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④ '씨름꾼은 대개 상투쟁이가 아니면 머리 땋은 총각들이다. 구경하러 온 이도 또한 그런 이들이고 간혹 기생을 데리고 온 양복쟁이 몇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통적인 머리 모양이나 복색의 인물들이 서구적인 차림새의 인물들보다 더 많이 씨름판 주위에 모이던 1930년 당시 문화의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07 극 · 수필

본문 228~230쪽

01 ⑤ 02 ⑤ 03 ④

■ **윤오영, 「봄」**

해제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구성

- 기: 창에 드는 볕을 통해 봄을 느끼며 지나간 가을과 겨울을 회상함.
- 승: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여 가는 연륜과 늙은이의 봄이 갖는 가치
- 전: 과거에 대한 회한 및 밀감나무에 대한 예찬
- 결: 봄을 봄답게 느끼며 과거를 되새기는 것의 가치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 '-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가 사용된 부분은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뿐이므로 의문형 종결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후에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누가'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 의문을 해결하려는 글쓴이의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봄도 '늙은이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홑겹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와 같은 대조적 표현을 통해 젊은이의 봄과 늙은이의 봄이 가진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에서 대구의 방식을 통해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세월의 깊이와 축적된 시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③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원관념이 지닌 추상성을 구체화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와 같은 표현에서 시간을 구체적인 재산이나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는 것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④ 의존 명사 '것'이 '-는/은 것이다'의 구성으로 쓰일 경우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

ㄴ 것이다'는 의존 명사를 포함한 어구로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와 같은 문장에 사용되어 과거가 쌓여 오늘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동쪽 가지는 추운 겨울을 겪고 살아남았는데 이러한 동쪽 가지의 생명력은 파릇파릇 돋아나는 싹을 통해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이를 바탕으로 동쪽 가지를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있으므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기'를 살리지 못한 존재는 ㉠의 서쪽 가지를 가리키는데 글쓴이가 서쪽 가지에 대해 봄이 되면 잎이 퍼지고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글쓴이는 ㉠의 동쪽 가지에서 볼 수 있는 푸른 생기가 ㉠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염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쪽 가지의 저항, 분투, 인내로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③ 글쓴이는 ㉠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죽지나 않았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날 것을 믿기도 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④ 글쓴이는 ㉠이라는 같은 나무에서 가지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의지와 저항, 인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0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슬프다고 표현한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나이 들어 가며 더 이상 많은 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을이 가고 난 다음에 봄이 온 것이 아니라, 가을 위에 겨울과 봄이 쌓인다고 표현한 것은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계절 위에 다른 계절이 쌓인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이라는 것을 흘러가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흰 터럭이 늘어 가면서, 즉 나이를 먹어 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터럭에 쌓인다는 것은 나무에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시간이 기록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다는 것은 과거가 길수록 그만큼의 시간이 쌓여 삶이 아름다워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축적으로 인한 삶의 풍요로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지나왔던 시간들을 회상하고 과거를 되새기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8 극 · 수필

본문 231~233쪽

01 ③ 02 ④ 03 ①

■ **나희덕,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좌절을 겪은 경험을 드러내면서, 그 경험을 통해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를 떠올리며 그가 절망과 고독 속에서 행한 이타적 행동의 가치를 되새긴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나무에 집착하고 그로부터 위안을 얻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 심은 살구나무가 타인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계가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다.

주제 절망과 고독 속에서 행하는 이타적 행동의 가치

구성

- 처음: 처음 장만한 집의 뜰에 심어진 나무들에 강한 애착을 느낌.
- 중간 1: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엘제아르 부피에를 떠올리며 나무 심는 일의 의의를 생각함.
- 중간 2: 잃게 된 뜰에 살구나무를 새로 심으면서 엘제아르 부피에의 행동을 이해하게 됨.
- 끝: 이타적 삶에 대한 지향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드러냄.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에서 글쓴이가 장 지오노가 쓴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특정 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글쓴이는 '자그마한 뜰'에 속한 나무들을 나열하여 뜰이 주는 느낌을 환기하고 있다.

② [B]의 '어디론가 자꾸만 달아나려는 내 마음', '향기와 그늘을 내어 주던 그 나무들이 내게는 하나의 피난처처럼 느껴지던 무렵이었다.'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글쓴이는 나무를 가꾸면서 시름과 불안을 잊고 위로를 얻었던 내면적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④ [D]에서 글쓴이는 나무를 가꾼 경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살구나무 한 그루를 사서 심은 경험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글쓴이가 나무와 뜰을 집착의 대상으로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이 잃게 된 뜰에 희망을 담아 나무를 심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E]의 '조그마한 뜰을 잃어버리고 ~ 나무인 것 같다.',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등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글쓴이는 현실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는 집을 잃고 이사하게 된 상황으로 인해 시련을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글쓴이가 산 '살구나무 한 그루'에 ㉣이 맺혀 있지만 결국 활짝 피지 못하고 지고 만다. 이를 통해 볼 때 ㉣을 이사를 앞둔 글쓴이에게 시련을 견딘 보람을 깨닫게 해 준 계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반 넘게 말라 버린 목련 나무의 남은 부분을 살려 내느라 애를 태웠고, 그 결과 겨울을 보내고 ㉠이 피어나게 되었다.

② ㉡이 원인이 되어 글쓴이는 집을 포기해야만 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꾸던 뜰 역시 더 이상 소유하기 어렵게 되었다.

③ ㉢은 글쓴이가 집을 포기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뜰에 심은 대상으로, 글쓴이는 이를 '희망' 한 그루라고 표현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을 매개로 자신이 뜰에 심고서 두고 온 살구나무를 상기하고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울컥하였다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글쓴이가 고결한 삶을 살았던 엘제아르 부피에를 떠올린 것은 '자그마한 뜰'에서 나무들을 가꾸기 시작한 뒤의 일이며, 그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한 것은 집을 떠나야만 하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엘제아르 부피에의 행동을 본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뜰'에 나무를 가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글쓴이는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엘제아르 부피에가 아내와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당장 자기가 무엇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황무지에 씨를 뿌려 '황무지를 풍요로운 숲과 마을로 변화'시켰다고 언급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풍요로운 숲과 마을'은 부정적인 상황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엘제아르 부피에가 주위에 끼친 선한 영향력의 결실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글쓴이는 뜰의 나무들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뜰에 심을 살구나무를 마련하고 엘제아르 부피에를 이해할 것 같았다고 하면서, 자신과 엘제아르 부피에 모두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으로 인해 나무 심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글쓴이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절망과 고독을 겪게끔 하는 좌절의 경험이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뜰과 거기에 심어진 나무에 집착했지만, 엘제아르 부피에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잃어버린 뜰에 심은 살구나무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글쓴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자신이 소유했던 뜰뿐만 아니라 '모든 땅이' 자신이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임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글쓴이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진 것에 집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과 연결된 다른 존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힘쓰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수능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01 갈래 복합

본문 234~238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③ 06 ⑤

㉮ 설장수, 「어옹」

해제 이 작품은 평생 동안 벼슬을 멀리한 채 한적한 강호에서 은거하는 인물의 삶을 그린 한시이다. 헛된 명예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보면 어옹은 사대부 출신이면서도 벼슬살이에 나서지 않은 인물로 짐작된다. 작가인 설장수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여러 벼슬을 지낸 인물로서, 벼슬살이 도중에 유배를 당한 적이 있다. 이 작품을 유배를 당한 시기에 지었다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회한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은퇴 후에 지었다면 평생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는 이의 삶에 대한 예찬으로 볼 수 있다.

주제 평생 동안 강호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예찬

구성

- 1~2행: 헛된 명예를 멀리하는 강호에서의 삶
- 3~4행: 강호의 봄과 가을에 보이는 풍경
- 5~6행: 번잡한 세속과 거리를 둔 소박한 삶
- 7~8행: 강호의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

㉯ 정철, 「성산별곡」

해제 이 작품은 정철이 벼슬길에 나서기 전 전라남도 담양의 성산에 있는 서하당과 식영정 주변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그 주인에 해당되는 김성원 등의 은거와 풍류 생활을 예찬한 가사 작품이다. 작가 자신으로 추정되는 손님과 김성원으로 추정되는 주인의 문답 형식을 빌려 성산의 외적인 생활 환경과 내적인 정신세계를 그려냈다. 이 지문의 '(중략)' 부분에는 여름과 가을의 풍경과 이에 대한 찬탄을 그린 대목이 있다.

주제 성산에 묻혀 사는 삶의 흥취

구성

- 서사: 서하당과 식영정의 자연 경관 예찬
- 본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 경관
- 결사: 호걸의 흥망에서 오는 비회와 신선 같은 삶에 대한 예찬

㉰ 유종호, 「고향」

해제 이 글은 인간이 구상하는 낙원이 결국은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구상하는 낙원의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 주기 위해 고향에서 겪은 어린 시절의 체험들을 병렬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도 고향을 오직 평화롭고 낭만적인 공간으로만 형상화하지는 않고 전쟁과 가난으로 짐작되는 어린 시절의 고통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주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기억에 기대어 구상하는 나의 낙원

구성

- 도입: 에덴동산과 무릉도원의 가치 및 인공 낙원에 대한 거부감
- 전개: 살구꽃, 감자꽃, 노고지리, 강과 모래톱에 대한 기억
- 마무리: 초라하지만 아름다운 나의 낙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평생 동안 벼슬을 멀리하면서 '수운향'에서 한적한 삶을 누리는 '어옹'의 삶을 담담히 예찬하면서 시상이 마무리된다. 만일 (가)에서 '어옹'이 화자 자신이라고 해도 이러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에서는 '손'의 물음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통해 산중 은거 생활의 즐거움을 제시한 후 '주인'의 삶에 대한 '손'의 예찬으로 시상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가)와 (나)는 작중 인물의 삶을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어옹'의 삶에 대한 예찬은 나타나지만 화자 자신이 그를 본받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나)에서도 인생 세간의 좋은 일을 외면하고 산중에 은거하는 '주인'의 삶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손'이 그를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가)의 '어옹'과 (나)의 '주인'이 모두 화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으나 화자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어조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가)의 '어옹'과 (나)의 '주인'은 현재 시점에서 살아 있는 인물이므로 역사적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나)에 나오는 '허유'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설화적인 존재이다.

⑤ (가)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손'이 과거에 누린 삶과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를 다행스럽게 여기는 목소리도 확인되지 않는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3행에서는 봄, 제4행에서는 가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나 상반된 이미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분위기의 대립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행에는 '헛된 명예'를 멀리하는 태도가, 제2행에는 '수운향'을 좇는 태도가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헛된 명예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살지 않고'의 부정어가 양자를 매개하고 있다.

③ 제5행에는 서울 거리를 뜻하는 '자줏빛 거리'의 홍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제6행에는 '초록빛 도롱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 있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색채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참고로 제5행의 '홍진'은 붉은색, 제6행의 '삿갓'[청약(靑蒻)]은 푸른색으로서 이 또한 서로 다른 색채로 이미지화되어 짝을 이룬다.
④ 뱃노래 한 가락이 흥취에 젖는다는 제7행의 정황 묘사는 옥당 벼슬을 하찮게 여긴다는 제8행의 정서 표현과 조응을 이룬다. 여기에 시의 주제 의식이 집약되어 있다.
⑤ 제1행의 '헛된 명예'는 제8행에서 '옥당 벼슬'이라는 표현으로 변주되어 나타나 있고, 이로 인해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면서 시상의 안정감이 강화되고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손'은 '주인'이 인생 세간의 좋은 일을 마다하고 굳이 왜 산중에서 은거하는지 의아해한다. 이는 주인의 은거 생활에서 오는 즐거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질문이다.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산중 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전해 듣는다. 이를 통해 '주인'이 누리는 삶이 신선 같은 삶이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손이 주인의 삶에 대해 의아해하기는 하지만 멀리하거나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므로 경원시한다고 하기 어렵고, 손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 것도 아니다. 다만 후반부에서 손과 주인의 구별을 다 잊었다는 데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손이 처음에 주인의 정체를 확연히 모르기는 하지만 불안감을 느낀다고 볼 만한 단서는 없다. 그리고 주인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그의 삶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③ 손이 작품의 말미에서 주인을 신선으로 비유하는 데서 주인의 경지에 압도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주인과의 경쟁의식이나 주인의 우월성에 대한 자각은 보이지 않는다.
⑤ 작품의 후반부에서 서로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만 처음에 주인과는 상반된 삶의 가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04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에서는 고향에서의 유년 체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들, 즉 살구꽃과 꿀벌 소리, 미루나무, 노고지리를 비롯한 새, 강과 모래톱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무리에서는 이것이 글쓴이 자신이 구상하는 낙원을 구성하는 자연물이라는 가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유년 시절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상반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으로 짐작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살구꽃과 꿀벌 소리, 미루나무, 노고지리를 비롯한 새, 강과 모래톱은 유년 체험을 구성하는 기억들의 병렬일 뿐 장소를 이동하는 순차적인 여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다)에서 제시되는 장면들은 유년 시절의 체험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선택된 것들이다. 글쓴이가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수많은 호걸들의 흥망에서 오는 시름이 조금이나마 풀렸다고 한 것일 뿐 그 흥망에 담긴 비밀을 깨달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산옹이 호걸들과 달리 흥망을 초월한 삶을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이 산옹의 삶을 오랫동안 선망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단서는 없다. 손은 단지 산옹의 삶이 지닌 가치를 수긍하는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책력은 해와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순환되는 자연의 주기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나 이미 자연의 풍경을 직접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알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구절은 산중 생활을 하면서 책력을 굳이 마련하지 않은 사정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산옹이 은거하는 산중을 찾을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므로, 산옹의 즐거움이 침해받는 데 대한 우려가 담긴 표현이다. 산옹이 지속적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삶에 대한 옹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종달새도 꽃나무도 없는 낙원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유년 시절에 종달새도 꽃나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어린이는 낙원을 구상하더라도 종달새와 꽃나무를 낙원의 구성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⑤ 현재 시점에서 유년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유년 시절에 험난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그 시절을 온전한 낙원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손과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은 주인의 삶의 방식과 결부되어 '선간'으로 규정된다. 선간, 즉 신선 세계는 실재하지 않는 초월적 공간으로서 인간이 느끼는 결핍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산중을 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구상한 낙원이 가난하고 초라하며 구차한 이웃이 있고 냉장고 등의 물질문명이 결핍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구상하는 낙원을 결핍이 없는 공간으로 미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옹이 머무는 곳은 '수운향'으로 표현된다. 어옹은 여기에서 '평생 동안' 살아온 인물이다. 이처럼 공간과 시간을 직조함으로써 어옹이 현재 머무는 공간에서 살아온 세월이 오래되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봄과 겨울은 시간적 격차를 두고 순환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모두 그 풍경을 현재 시점에서 관찰하면서 전달하는 듯한 어조로 진술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③ 글쓴이는 미래에 낙원을 만든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어린 시절 고향인 '시골'에서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투영하여 세부적인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④ (가)에서 화자는 '수운향'에서 누리는 어옹의 삶을 형상화하면서 '자줏빛 거리'와의 심리적 거리를 강조한다. (나)에서는 손과 주인이 현재 함께 머물고 있는 '적막 산중'을 '인생 세간'과 대비하는 구도를 취한다. 이러한 대비적 구도는 화자가 목도하고 있는 어옹과 손이 목도하고 있는 주인의 평화로운 삶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는 데 기여한다.

02 갈래 복합

본문 239~243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⑤

㉮ 윤선도, 「견회요」

해제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에 고산 윤선도가 지은 5수의 연시조이다. 작가가 이이첨(李爾瞻)을 비롯한 권신들의 죄를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렸으나 반대 세력의 모함으로 오히려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타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옳게 여기는 신념을 지키려는 작가의 모습과 패기가 선명히 나타나 있으며, 임금을 향한 충절과 어버이를 생각하는 효성을 유학자로서의 의연한 태도와 목소리로 노래했다.

주제 어버이를 향한 효심과 임금에 대한 충심

구성

- 제1수: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
- 제2수: 자신에 대한 자조와 임금의 올바른 판단 호소
- 제3수: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심
- 제4수: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 제5수: 임금에 대한 충심

㉯ 허균, 「홍길동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에 허균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글 소설이다. 적서 차별과 같은 사회의 제도적 결함이나 탐관오리의 부패와 같은 권력층의 부정에 대한 비판 등 사회·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이 소설은 당대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적서 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율도국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소설로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매우 큰 작품이다.

주제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저항하는 홍길동의 영웅적 활약

전체 줄거리 조선 세종 때 홍 판서와 그의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총명하면서 도술을 익혀 장부로서의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천생(賤生)이기에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품고 살아가다가 가출한 후 도적 무리의 두목으로 추대된다. 길동은 기발한 계책과 도술로써 팔도의 탐관오리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탈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임금이 전국에 길동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길동은 뛰어난 도술로 신출귀몰하며 조정을 농락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길동의 소원대로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한다. 소원을 이룬 길동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조선을 떠난다. 길동은 산수 경관이 매우 수려한 율도국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와 같이 대조적 의미의 시어들을 배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열을 설정하여 화자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분별할 줄 있으랴'는 의문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다.

② '시냇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님 향한 ~ 그칠 때를 모르는도다'와 같이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하지 않는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물인 '시냇물'에 인격을 부여하였으며 '내 뜻을 좇아'에서

처럼 그 자연물을 인간과 정서적인 유대를 맺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④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등과 같이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자연물이 가진 속성과 연관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뫼는 길고', '물은 멀'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자신의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과 관련되나, '시냇물'이 주야로 '울어 예는' 것은 '님'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 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 밖의 여남은 일'을 접어 두는 것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내 몸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는 다짐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가려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가 자신이 한 일을 두고서 '망령된 줄을' 안다고 한 것과 '이 마음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자괴, 자조의 심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외기러기'가 짝을 잃고 외로이 '울고 가'는 모습은 무리에서 일탈하여 고독한 존재가 된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님이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은, '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님이' 직접 잘 생각해서 판단해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화자의 불신과 그로 인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동생인 길동을 잡으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난감해하는 형을 도와주기 위해 길동은 형 앞에 몸소 찾아와 자진하여 결박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감사는 아우인 길동에게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사는 길동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구속한 것이다.
② 여덟 길동은 그들끼리 서로 다툰 것이며 그로 인해 임금이 혼란스러워했다. 임금이 그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 것은 아니다.
④ 길동은 잡혔을 때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이 아닌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속박에서 벗어난다.
⑤ 임금이 길동을 병조 판서에 제수한 것은 길동의 죄를 사해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길동을 잡기 위해 유인하려는 계책이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는 '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뉘우침,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임금과의 결별에 대한 다짐이 드러날 뿐, ⓐ, ⓑ 모두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님 향한 내 뜻'과 같이 '그칠 때를 모'른다는 측면에서 불변성과 지속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거늘'을 통해 ⓑ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를 통해 ⓑ에는 상대방의 평안에 대한 기원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는 '님'을 향한 마음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는 '전하 곁을 영원히 떠나고자 하오니'를 통해 상대방과 결별하려는 다짐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붉은 혈점은 길동의 아버지인 홍 공이 여덟 길동 중 아들인 진짜 길동을 가려내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붉은 혈점은 부자 관계 속에서 진짜 길동의 정체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붉은 혈점 그 자체가 인물이 지닌 비범한 재능이 발휘되는 근원인 것은 아니다.
② 붉은 혈점으로 말미암아 주인공 길동의 진위가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붉은 혈점은 길동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없다.
③ 붉은 혈점은 진짜 길동임을 알려 주는 신체적 특징이므로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⑤ 붉은 혈점은 길동의 신체적 특징일 뿐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며 인물을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로 여기는 것과 (나)에서 홍 공이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음을 강조한 것은 충과 효를 연속된 것으로 인식하거나 두 덕목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충과 효가 충돌되는 상황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다는 발상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천륜인 것처럼 임금과 백성 간의 인연도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천륜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홍 공은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며 여덟 길동을 심하게 꾸짖는다. 그럼에도 홍 공이 기절하자 그에게 여덟 길동이 환약을 먹이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 효를 실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소란케 하'는 것을 감사가 애달프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아버지와 형의 교훈'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추리할 수 있으며, 이는 충효를 같이 존숭하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이라든지 (나)에서 길동이 아버지를 '위태로움에서 구하고자' 형을 찾아온 행위는 모두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자식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03 갈래 복합

본문 244~248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⑤

㉮ 변계량, 「내가 좋다 하고 ~」

해제 조선 세종 때 변계량이 지은 교훈가이다. 평시조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청구영언』에 전한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에 담긴 교훈을 쉽고 재미있는 우리말로 바꾸어 일깨워 주고 있다.

주제 의로움을 따르고 천성을 지키며 살 것을 권함.

구성

- 초장: 내가 좋다고 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권함.
- 중장: 남이 한다고 해도 의로운 일이 아니면 함부로 좇지 말 것을 권함.
- 종장: 천성을 지키며 천성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함.

㉯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해제 이 작품은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을 떠올리며 그 두 가지가 다 거절해야 하는 대상임을 이야기하는 현대시이다. '희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해도 소용없는 것이며, '절망이 없는 희망'은 간절함이나 진정성이 부족하여 이루기 힘든 것이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희망의 무가치함과, 절망을 통해 간절함을 가지게 된 진정한 희망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희망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내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절망을 극복한 희망의 진정한 가치

구성

- 1연: 진정한 바람이 바탕이 되지 않은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함.
- 2연: 절망을 통해 얻은 간절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함.
- 3연: 절망스러운 순간을 견뎌 내고 '희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는 이들에 대한 사랑

㉰ 정약용, 「여유당기」

해제 조선 정조 때 정약용이 지은 한문 수필로 갈래적으로는 기(記)에 해당한다. 정조 사후 정약용이 고향 마현으로 내려가 머물게 되는데, 이때 그가 머문 집의 이름이 여유당이다. '여유(與猶)'라는 이름은 노자의 말에서 왔는데, '신중하고 경계하라.'라는 의미이다.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지내면서 남의 비방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난다.

주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함을 깨달음.

구성

- 처음: 세상천지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음을 알게 됨.
- 중간 1: 하고 싶은 일에 나서다가 주위의 비방을 받았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노자의 말을 되새김.
- 중간 2: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만두고, 매우 부득이하더라도 남들이 알까 두려운 일을 그만두면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깨달음.
- 끝: 자신의 깨달음을 글로 써서 문미에 써 붙이고 아이들에게 보여 줌.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이 각각 '우리'와 '아이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 또한 '당신'으로 호명된 청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 모두 타인에게 도움이 될 교훈으로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나 가치관을 전달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젊었을 적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지만, (가)와 (나)의 화자는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그러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다.

② (가)의 경우 천성을 지키며 '의'를 따르라고 충고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덕목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나)에 제시된 '희망'과 '절망'의 문제나 (다)에 제시된 작가의 깨달음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적 덕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가)와 (나) 모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폐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④ (가)의 경우 '천성'과 같이 타고난 바탕이나 성품을 언급하고 있지만, (나)와 (다)의 경우 하늘의 뜻이나 하늘이 정해 준 운명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은 아니다.

⑤ (가)와 (다)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주변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02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중장을 통해 '의 아니면 좇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 '내가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의 [A]에서도 '신중하게 하고' '두려워하듯 경계'할 것을 강조할 뿐 모두에게 좋은 일이면 가능한 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의 화자가 천성에 맞지 않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다)의 글쓴이는 [A]에서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살필 것을 충고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남이 한다 하여도 함부로 좇으면서 의를 망가트리지 말 것을, (다)의 글쓴이는 [A]에서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는 시내를 건너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의가 아니면 절대로 남을 좇으려 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고, (다)의 글쓴이는 [A]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매우 부득이한 일'이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다)의 글쓴이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다)의 글쓴이는 [A]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하며 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경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0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화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희망'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희망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희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단순하게 이루기를 희망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고 절박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 즉 절망을 충분히 겪은 후에 생겨난 간절한 희망이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희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화자는 절망 속에서 가지게 되는 희망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절망이 아예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나)의 화자는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가 절망이 있는 희망, 즉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희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나)의 화자는 절망의 손을 잡고 난 후 가지게 된 간절한 희망이 더욱 의미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 언제나 희망이 놓여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도 아니다.

⑤ (나)의 화자는 희망 속의 절망이 항상 더 큰 절망에 이르게 한다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희망이 내민 가능성에 너무 큰 기대감을 품지 말라는 충고도 하지 않고 있다.

04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다)의 [B]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과거에 했거나 떠올려 보았던 행동들을 차례로 나열하면서 그것이 부득이한 일인지 부득이하지 않은 일인지 따져 보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가 이러한 행동 모두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겪은 이유를 타인의 시각에서 따져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의 글쓴이는 [B]에서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와 같이 자문자답하

는 형식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B]에는 (다)의 글쓴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양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④ [B]의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와 같은 부분을 보면 앞 문장의 구절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쇄적 사고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와 같이 의문문으로 [B]를 마무리하고 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형 문장으로 표현하여 독자들 또한 '이와 같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05 갈래의 특징과 성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다)는 한문 양식 기(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집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글쓴이는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초천의 집 문미에 써 붙이고 그렇게 이름 붙인 까닭을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 글은 '여유당'의 '여유'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언급하며 그와 관련된 자신의 깨달음을 서술하여 기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에는 '여유당'이라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겪은 사건이나 '여유당'이 지닌 건축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주의할 점도 언급하지 않았다.
③ (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하여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다)의 글쓴이가 '자신의 깨달음이 절대적인 것이라 단정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④ (다)에 언급된 '내 병'은 마음의 병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난 후 그것을 고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삶의 이치를 드러내면서 이치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따지는 논(論)의 성격이 강한 글은 아니다.
⑤ (다)의 글쓴이가 '여유당'이라는 편액을 자기 집에 붙이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초천에 돌아와 살게 된 집에 붙인 까닭을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맞지만, 글쓴이는 스스로 '내 병'이 있어 왔음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현명한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글은 아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글쓴이는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면서, 전자와 후자 모두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거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다)의 글쓴이가 특정 행위에 대해 동시에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둘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없는 일'을 동시 부정이 불가능한 관계인 '상보 반의 관계'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초장이 '좋고도 싫다'나 '좋지만 싫다'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면 모순 형용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과 같이 '나'는 좋아하고 '남'은 싫어하는 상태라면 동시에 둘 다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순 형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상태이므로 '절망이 없'고 희망만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상태와 '희망'을 가진 상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는 희망'은 모순 형용, 즉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나)의 화자는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라고 말하며 절망이 먼저 있는 것이 낫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희망'이 '절망' 속에 존재하는 '희망의 절망'이 성립 가능하다는 역설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며, '절망'과 연계되어 생겨난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④ (다)의 글쓴이는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계속해야 하는지 그만두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어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만둘 수는 없으므로, '하다'와 '그만두다'는 상호 배타적 관계를 가진 단어 쌍으로 볼 수 있다.

04 갈래 복합

본문 249~254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⑤ 06 ④

가 작자 미상, 「상사별곡」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애정 가사이자, 십이 가사 중 하나이다. 18세기에는 양반 사대부들의 풍류방에서 기녀들에 의해 가창(歌唱)되다가 19세기에 시정에서 널리 향유되었으며 20

세기 초에는 잡가집에 폭넓게 수록되어 전파되었다. 초창기 사설본은 49장의 장형이었는데 시정에서 불리기 쉽게 13장의 단형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으며 이 외에도 수십 종의 이본(異本)이 존재한다. 원형적 상징어와 일상어, 순우리말 표현과 상투적 표현 등을 통해 남녀 간의 상사(相思)의 정을 진솔하게 노래했다는 측면에서 대중의 공감을 얻어 현재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상사의 정

구성

- 1~7행: 독수공방의 서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 8~38행: 임을 기다리는 마음과 안타까움
- 39~46행: 임에 대한 의심과 재회의 기원

㉯ 이식, 「왜송설」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문신인 택당 이식이 자신의 본성을 잃고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으며 이익을 추구하려는 당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쓴 설(說)이다. 곧게 자라는 본성을 잃어버린 '왜송'을 자신의 본모습을 잃고 아첨과 이익을 일삼는 사람들과 연관 지어 이들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송백'과 같이 본성을 지키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곡학아세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본성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

구성

- 송백의 곧은 성질에 대한 '나'의 생각
- 한양에서 왜송을 본 경험
- 왜송의 성질에 대한 '나'와 주인의 문답
- '나'의 깨달음: '왜송'과 '곡학아세'를 일삼는 사람의 공통점을 인식하며 '송백'과 같이 각자의 본성을 닦아야 함을 언급함.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임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빌고 있다. 이때 초현실적 존재는 기원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옹조차 시샘하고 귀신조차 희짓는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화옹'과 '귀신'에 대해서는 자신과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현실적 존재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임에 대한 '상사'의 마음에 대해, '그 뉘 알리'라고 말하고, '이내 상사 허사로다'라고 탄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자신의 상사의 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는 '자나 깨나' 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천금 주옥 귀 밖이고 세상 일불 관계하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상사'의 정에 빠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③ '독수공방'하는 화자는 임이 없는 '빈방'에서 '오락가락'하며 '혼자 서서 바장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조차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가 '공방 미인 독상사는 예로부터 있건마는'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자신처럼 '독수공방'하며 '상사'의 마음을 지니며 사는 여인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초로 같은 이내 인생'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순환하는 삶의 섭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린 양자 고운 소리'가 '눈에 암암 귀에 쟁쟁'하다는 부분에서 '쟁쟁'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이별한 임에 대해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듣고 지고 임의 소리'와 '보고 지고 임의 얼굴'을 짝 지어 표현하여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한숨 끝에 불이' 난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남 사랑하시는가'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임의 변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E]에서 '길'은 화자가 임에게 가는 길로, 그 길에 자취가 난다면 그 길은 닳아서 무디어질 것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화자는 '자나 깨나 깨나 자나'와 같이 자고 깨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전생차생'을 언급하며 임과 화자의 인연이 운명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며 임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일촌간장'에서 솟아난 '썩은 물'이 '눈물'이 되고, '가슴속'에서 난 '물'이 '한숨'이 된다고 표현하여 이별한 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홀로 '상사'의 정을 느끼는 '공방 미인'을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여성 화자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그 물건'은 곧게 자라는 본성을 잃고 사람의 조작에 의해 휘어진 '왜송'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왜송'을 보고 '외물을 따르며 남을 위하려고 하는 자들'을 떠올리며 '평이하고 정직한 그 본성'을 잃고 가식적인 모습과 아첨하는 태도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자신의 의견만 앞세우는 세태를 풍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떤 사람'은 '왜송'의 본성에 대한 글쓴이의 질문에 대해 '소나무 네다섯 그루'가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자라게 된 이유를 말한다. 글쓴이는 이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아첨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작품의 교훈적 메시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왜송'의 괴이한 모습을 '뱀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과도 같고', '여러 가닥의 수실이 엉겨 붙은 듯'하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상에서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글쓴이는 '소나무 네다섯 그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곧게 길러지지 않은 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은, 본성을 완전히 잃고 아첨을 하여 이득을 얻으려 하고, 외물을 따르며 남을 위하려고 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하늘 높이 우뚝 솟아 고고한 자태를 과시하면서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을 지닌 '송백'은 '평이하고 정직한' '본성대로 따른 결과 존경을 받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는 올곧은 속성을 동요시킨 나무의 '줄기와 가지들'을 완전히 휘어져 굳게 만드는 요인으로, '왜송'이 본성을 잃고 괴이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는 '산속에서 자라나는 송백'의 '끄떡없이 우뚝 서 있'는 모습과 관계되어, 본성을 지키는 '송백'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임을 기다리는 현재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고, ⓑ는 오랜 세월 동안 '왜송'의 가지들이 변형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② ⓐ는 화자가 임에 대한 '상사'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 시간이고, ⓒ는 '송백'의 올곧은 속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와 ⓒ 모두,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다.
③ ⓑ는 '왜송'의 변형된 가지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는 '송백'의 올곧은 속성을 변형시키지 못하므로 ⓒ가 나무의 외형을 변화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현재 화자가 임을 기다리고 있는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가 과거를 회상하게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는 오랜 세월 동안 '왜송'의 줄기와 가지들을 '완전히 변화해 굳어'지게 만든 것이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왜송'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기이'하게 만들기 위해 원래 올곧은 속성을 동요시켜 인위적으로 줄기와 가지들을 변형한 자연물이다. 글쓴이는 '왜송'이 본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면서 모멸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모멸을 받게 되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의 결과이며, '송백'은 본성을 지킴으로써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물'은 깊어서 영원히 흐른다는, '뫼'는 높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영속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화자는 '물'과 '뫼'처럼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도 변함없는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② (가)에서 '오동 추야'는 가을, '녹음방초'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로, 화자는 가을날 긴 밤 동안의 시간은 '수이 가'고 여름날 짧은 낮 동안의 시간은 '더디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꽃'은 절로 피고 지는 것으로, '해'도 절로 떠오르고 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는 임이 부재한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현재 자신의 삶을 '초로'같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산속에서 자라나는 송백'이 곧게 자라나는

본성을 지키고 있으며 이들 나무에는 '공경심이 우러나는 느낌만을 지니게 될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송백'이 '자기의 본성대로 따른 결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처럼 '군자'는 이런 사례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05 갈래 복합

본문 255~258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④ 05 ② 06 ④

㉮ 이황, 「도산십이곡 발」

해제 이 글은 퇴계 이황이 지은 연시조 「도산십이곡」의 발문(跋文)으로, 이황이 「도산십이곡」을 짓게 된 연유와 우리 시가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다. 특히 그는 이 글을 통해 이전의 우리 시가 문학을 비판하고 온유돈후한 내용을 담은 우리말 시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도산십이곡」을 지어 즐기려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도산십이곡」을 지은 이유와 우리말 시가의 중요성

구성

- 1문단: 이전의 우리 시가에 대한 비판
- 2문단: 우리말 시가의 중요성과 「도산십이곡」의 창작 이유
- 3문단: 「도산십이곡」에 대한 반응을 신중히 기다림.

㉯ 신사임당, 「사친」

해제 이 작품은 혼인으로 인해 출가외인이 된 화자가 고향인 강릉과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 한시이다.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친정이나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해야 했던 여인의 정서가 고향의 정경과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회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다.

주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2행: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 3~6행: 꿈속에서 떠올려 본 고향의 모습
- 7~8행: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 이담명, 「사노친곡」

해제 관서 지방으로 유배를 간 화자가 노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연은 늘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화자는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의 노모를 그리워한다. 이러한 처지로 인해 화자는 수심이 가득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함께 노모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주제 고향에 계신 노모에 대한 그리움

구성

- 제1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
- 제6수: 고향에 계신 노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제11수: 모자지정을 살피어 줄 것이라는 기대

01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2문단에서 글쓴이는 이 씨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 6곡 둘을 짓고 이를 아이들에게 익혀 노래하게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며 뛰게 한다면 비루한 마음을 씻고 감화되어 분발하고 마음이 화락해져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모방해 창작한 노래는 마음을 감화시키지 못한다는 진술은 '도산 노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글쓴이는 동방의 노래 대부분이 음란하여 족히 말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동방의 노래 중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글쓴이가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글쓴이가 「도산십이곡」을 즐기며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기도 하게 한다면 비루한 마음을 씻어 버리고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글쓴이가 교만하고 방탕하며 장난기가 있는 「한림별곡」과 같은 유는 군자가 숭상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군자가 부적절한 내용과 주제를 가진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에서 화자의 그리움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이 확대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의 〈제1수〉에서 'A는 B하고 또 B하고'와 같은 구조를 지닌 시구가 반복되어 시의 음악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는 '뵈오려뇨', '이룰쏜가', '없사오랴'와 같이 다양한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는 우리말을 기반으로 창작된 연시조로, 4음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시름이 가득하니', '눈에 삼삼하야라'에서 우리말 형용사가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문학 이론 및 비평의 이해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2문단에서, 글쓴이는 지금의 시, 즉 한시는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만약 노래하려면 반드시 시속 말로 엮어야 되니, 이는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시인 (나)를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읊는다고 하더라도 노래할 수는 없다고 평가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한자로 창작된 한시로, (가)의 2문단에서,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시속 말로 엮지 않아도 읊을 수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는 우리말로 창작된 시조이다. (가)의 2문단에서 글쓴이는 정성에 감동이 있는 것은 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시속 말로 엮으면 노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가)의 2문단에서 글쓴이는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정성에 감동이 있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 (나), (다)에 대해, 글쓴이는 시인의 마음속에 담긴 감동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⑤ (가)에서 글쓴이는 교만하고 방탕하며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는 「한림별곡」 유를 비판하고 이를 군자가 숭상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만 있는 것은 온유돈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나)와 (다)는 모두 인간의 도리인 효를 주제로 하여 인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므로 군자가 숭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0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화자는 '꿈'을 통해 찾아가 보지 못한 고향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는 화자로 하여금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한편 이를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는 고향에 있는 노모를 다시 만나지 못한 시름으로 인해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화자가 고향에 돌아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는 시름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나), (다)의 화자는 모두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 ⓑ가 화자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공간인 고향의 정경을 환기하고 있다. 하지만 ⓑ는 화자가 고향과 노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시름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활용된 것일 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화자가 과거 고향의 '모래톱'에서 갈매기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광경을 목격했던 추억을 떠올린 것으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러기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광경을 물아일체의 경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천리'와 '첩첩'은 화자와 고향 사이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에서 '색동옷'을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정확하게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운 고향에서 '어머니'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소망은 과거에 어머니와 함께 공유했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에 제시된 '봄'과 '풀'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 다시 오고 푸르러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순환은 곧 변치 않는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섭리는, 자신도 봄이나 풀과 같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아모라타'와 '없사오랴'는 모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기 위해 화자의 감정을 노출한 영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꿈'에서 환기된 '달'과 '바람'은 모두 고향에 있는 자연물로 화자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꿈을 통해 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물들은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위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움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기러기'는 화자의 소식을 고향에 있는 노모에게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날지 않고 있으므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의 '하늘'은 화자가 있는 '낮은 데'를 살피는 대상으로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하늘'을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화자는 혼인을 통해 출가외인이 된 여성이다. 따라서 화자는 사회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친정이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의 화자가 '가고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의 〈제11수〉 중장에서 화자는 '일월'이 '하토'를 비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때 '일월'은 고전에서 흔히 천지신명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자연물로서, 초장에 제시된 '하늘'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이다. 또 '일월'이 '하토'와 같은 지상을 비추는 것은 곧 천지신명의 은혜가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11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화자가 겪고 있는 그리움이 천지신명의 은혜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고향인 '강릉'으로 가는 길을 다시 밟고 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의 〈제1수〉 종장에서는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뵙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⑤ (나)의 '언제나'와 (다)의 '어느 날'에는 모두 화자가 고향에 돌아가 그리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처럼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나), (다)의 화자가 처한 외부적 상황과 개인적 소망 간의 괴리가 해소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6 갈래 복합

본문 259~264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②

㉮ 작자 미상, 「운영전」

해제 이 작품은 수성궁의 궁녀인 운영과 선비인 김 진사의 비극적 사랑을 형상화한 소설로, '수성궁 몽유록'으로도 불린다. 유영이라는 인물이 수성궁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면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설정으로, 몽유록의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때 외화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전지적 서술자가 들려주지만, 내화는 이야기의 당사자인 운영과 김 진사가 서술하는 점은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학문의 장이면서 억압의 공간인 수성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과 비극적 결말을 통해 제도와 관습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전체 줄거리 폐허가 된 수성궁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은 깨어나면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고,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수성궁의 궁녀인 운영은 안평 대군을 찾아온 김 진사라는 선비를 보고 연정을 느끼고, 두 사람은 시를 전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김 진사의 하인인 특과 운영의 동료인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위태롭게 이어지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진다. 하지만 안평 대군이 운영과 김 진사의 시에서 연정의 마음을 알아채고 특이 김 진사를 배신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탄로가 난다. 이에 운영은 죽음의 길을 택하고 김 진사 또한 같은 길을 간다. 이야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의 일을 기록한 책만을 발견한다.

㉯ 함세덕, 「동승」

해제 이 작품은 깊은 산골의 오래된 절을 배경으로, 어린 시절 떠나간 어머니를 간절히 그리워하지만, 종교의 계율에서 자유롭지 못한 도념의 고민과 선택을 그리고 있다. 도념은 아들을 잃은 미망인에게 모성을 느끼고 미망인도 도념에게 정을 느끼며 그를 입양하고자 한다. 하지만 주지가 도념의 살생을 알게 되면서 도념의 입양은 좌절되고, 도념은 눈이 내리는 날,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난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세상을 동경하는 도념과 그러한 도념을 종교적 삶으로 이끌려는 주지 사이의 갈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선악과 같은 이분법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 즉 도념을 이해하는 초부의 너그러움, 엄격하나 도념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주지의 인간적 면모, 도념에게 정을 느끼면서도 도념의 입양을 끝내 포기하는 미망인의 슬픔, 절을 떠나면서도 주지를 챙기는 도념의 따뜻함 등과 어우러지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주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종교적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소년의 성장

전체 줄거리 깊은 산골, 오래된 절에 사는 도념은 어린 시절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와 재회할 날만을 기다리는 열네 살의 동자승이다. 도념은 죽은 아들의 재를 지내기 위해 절을 찾은 미망인에게 모성을 느끼고 미망인도 도념에게 정을 느껴 그를 입양하고자 한다. 하지만 주지는 도념의 부모가 쌓은 죄업으로 인해 도념의 업보가 무겁다는 점을 들어 도념의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망인의 끈질긴 설득으로 주지도 마음을 돌리려 하지만 도념이 다시 만날 어머니를 위해 토끼를 잡아 목도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탄로 나면서 도념의 입양은 좌절된다. 하지만 도념은 절을 떠나기로 한 마음을 꺾지 않고 주지를 위한 한 움큼의 잣을 산문 앞에 놓은 후 길을 떠난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김 진사의 시가 훌륭하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김 진사의 암울한 앞날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특이 김 진사의 안색으로 미루어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표현이다.

② ㉡에서 자신에게 일찍 말을 했어야 했다는 말은 특이 김 진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③ ㉢에서 버선이 없으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은 김 진사가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버선이 꼭 필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⑤ ㉤에서 자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말은 운영과 자란이 매우 돈독한 사이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김 진사가 운영의 꿈풀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특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믿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운영이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후 '낭군은 이 노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는지요?'라고 묻는 것에서 운영이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의 속마음을 의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네 한 몸에만 그치겠느냐?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자란의 말에서 그녀가 운영의 떠남을 만류하는 근거 중 하나가 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그가 장성이라고 한 것은 궁궐의 담장이요, 그가 묵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 특입니다.'라는 운영의 말에서 그녀가 꿈속 인물이 말한 장성을 궁궐의 담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허망한 꿈속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에서 그가 꿈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미망인의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망인은 도념이 한 행동이 친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친정 모의 '젊은 별좌 얘길 들으니까 어젯밤엔 떡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보살님 목에다 걸어 놓구 물끄러미 바라다보구 있었다는구나.'라는 대사를 통해 그녀가 젊은 별좌로부터 지난밤 도념의 행동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도념의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어머니는 이뻤을 것이라구 허는 걸 보면'이라는 대사를 통해 도념이 자신의 어머니가 예뻤을 것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도념의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라는 대사를 통해 도념이 주지가 평소에 했던 말을 근거로 절을 떠나려는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주지의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어미라기보다 대천지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라는 대사를 통해 도념은 자기의 어머니를 만나고자 하지만 주지는 그 둘의 만남이 도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도념의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리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념은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근거로 주지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지의 '(조용히 달래며)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라는 행동과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지는 절을 떠나려는 도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연못이라는 화제를 꺼내고 있다.

② 주지의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와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이라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지는 동네의 즐겁고 평화로운 듯한 겉모습을 잔잔한 연못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③ 주지는 '시꺼먼 개흙투성이'며 이무기가 살고 있는 연못 안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오탁의 사바'와 같은 동네의 본질을 도념에게

깨우쳐 주고자 한다.
⑤ 주지는 연못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부정하는 도념의 말을 듣고 도념을 '불가사리 같은 녀석'이라고 비난하고 '펄펄' 뛰면서 분노한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친정 모는, 도념이 미망인을 따라 절을 떠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역할은 조력자가 아니라 반대자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김 진사는 운영에게 연정을 품고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성궁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②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수성궁의 담장은 김 진사와 운영이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③ '제가 진사의 계획을 자란에게 말하자,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자란은 운영을 수성궁에서 떠나게 하려는 김 진사의 계획에 반대한다.
⑤ 도념과 주지는 도념이 절을 떠나 살고 싶어 하는 세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면서 갈등한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대군이 김 진사의 시 중 '담장을 좇아서 그윽이 풍류곡을 훔치네'라는 구절을 두고 진사를 의심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진사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학문적 성취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성궁이 '궁녀의 생활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한다는 점에서 폐쇄적 공간'이라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김 진사와 운영의 만남이 수성궁 밖이 아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절이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비는 기원의 공간'이라는 〈보기〉의 설명은 미망인과 친정 모가 죽은 아이의 영혼을 축원할 제사를 지내는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절이 '전생의 죄와 현생의 죄를 씻는 정화의 공간'이라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주지가 토끼를 죽인 도념을 법당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죄의 정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절이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점에서 율법의 공간'이라는 〈보기〉의 설명은 주지가 도념의 아버지를 잦은 살생으로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악무도한 자'라고 비난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갈래 복합

본문 265~270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③

㉮ 전광용, 「꺼삐딴 리」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시류에 편승한 의사 이인국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는 철저하게 친일파(親日派)로 살고 해방 직후에는 재빨리 소련에 빌붙어 친소파(親蘇派)로 변모하며 한국 전쟁의 1·4 후퇴 이후에는 월남하여 친미파(親美派)로 돌변한다. 작가는 이인국의 삶을 통해 권력에 빌붙어 출세에 연연하며 개인적 영화에만 몰두한 기회주의자의 속물성과 노예근성을 폭로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일면을 고발한다.

주제 시류에 타협하며 출세 지향적 삶을 사는 영악한 기회주의자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 제국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개업한 의사이다. 그는 의술 실력과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 철저하게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등 친일적인 행동으로 일제 강점기 내내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소련군이 평양에 진군하면서 이인국은 친일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하지만 이인국은 러시아어를 익히고 소련군 장교의 혹을 수술하면서 그의 환심을 얻고 풀려나며 그의 배려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까지 보내게 된다. 이후 1·4 후퇴를 계기로 월남하면서 친미파로 거듭난 이인국은 의사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에게 값비싼 고려청자를 선물하며 환심을 얻고자 한다.

㉯ 이강백, 「결혼」

해제 이 작품은 빈털터리인 남자가 부자인 척 자신을 꾸민 후 여자와 결혼하려는 과정을 담고 있는 단막의 희곡이다.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실험적 기법인데,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점, 배우가 객석의 관객에게 말을 걸고 물건을 빌리는 등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점, 무대의 시간과 상연 시간이 일치하도록 설정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남자가 부자인 척 소유한 물건이 모두 빌린 물건이며 시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설정,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더 커진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결혼이 이뤄지는 결말 등을 통해 삶의 본질과 사랑의 가치 등을 생각하게 한다.

주제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주는 과정으로서 삶의 본질과 사랑의 가치

전체 줄거리 남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결혼을 생각한다. 하지만 빈털터리라는 자신의 조건으로는 누구도 자신을 결혼 상대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돌려주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진 여러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 꾸미고 여자와 맞선을 본다. 여자는 맞선을 보는 남자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하인이 그의 물건을 빼앗자 당황한다. 남자는 부자인 척 꾸민 물건들이 사실 빌린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떠나가려는 여자를 향해 삶의 본질과 사랑의 진심을 전하면서 청혼한다. 마음이 움직인 여자는 고심 끝에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하인의 구둣발을 피해 서둘러 결혼하러 간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이인국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사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 간 대화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서술자가 이인국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관찰자의 태도를 견지하며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는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로 짜인 액자식 구성을 취하지 않으며 그러한 구성을 통해 이중적 시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로 짜인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인물을 향한 이중적인 시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종잇장'은 이인국이 일제로부터 받은 것으로, 해방 전 이인국과 그 가족이 일본어를 상용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이인국은 '제 나라 말'인 한국어와 멀어지고 해방 이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 어색함을 느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인국이 아침마다 병원의 창틀이나 탁자 위를 점검하고 손가락 끝에 먼지가 나올 때 불호령을 내리는 것은 청결에 대해 이인국이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먼지 하나도 없'는 병원은 이인국의 그러한 성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인국은 '평당 오십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 층 양옥'에 종합 병원을 차리고 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수복 후 이인국의 성공한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왕진 가방'은 삼팔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 중 하나로, 삼팔선을 넘어온 피란은 목숨을 건 삶의 도피행이라는 점에서 이인국의 어려웠던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비상용 캐비닛'은 이인국이 시계, 등기 서류, 저금통장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이인국의 조심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03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다시 책을 낭독한다.'라는 지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책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남자가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는 상황이나 여성을 기다리는 상황 등 극 중 상황과 관련된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에서 책, 회중시계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분실하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 사건의 전개를 반전시키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나)에서는 남자, 여자, 하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인극의 형식으로 보거나 이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에서는 색채 이미지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조명의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⑤ 무대와 객석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많은 희곡과는 달리 (나)는 남자가 관객석 사이로 지나가는 등 무대와 객석의 엄격한 분리를 해체하고 있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행동 지시문에 따르면, 남자는 한 여성 관객에게 말을 건 후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듯 미소를 짓는다. 이런 점에서 남자가 여성 관객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미소를 짓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남자는 '이 하인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라는 하인의 주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실제로 이 하인은 남자의 질문에 대해 모두 '묵묵부답'으로 대응한다.

③ 여자는 하인에 대해 남자에게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가 하인의 행동을 난폭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못마땅해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④ 남자는 하인에게 받은 봉투 속 쪽지를 여자에게 건네고 여자는 그 쪽지에서 '나가라!'라는 글을 읽는다. 여자는 이 쪽지를 통해 남자가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⑤ 행동 지시문에 따르면, 하인은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데, 이를 통해 그 구둣발로 남자와 여자를 차 낼 듯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모든 것을 되돌려 줄 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이를 소유에 대한 현대인의 강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환자를 대하는 이인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환자의 병세보다 경제적 부담 능력을 중시하는 인물의 속물적 단면을 드러낸다.

② ㉡은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보낸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인국의 마음을 묘사한 것으로,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는 인물의 친일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③ ㉢은 공동체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는 이인국의 생각을 묘사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익과 가족의 생존만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④ ㉣은 최고급 저택, 모자, 넥타이, 의복, 하인 등을 빌려 빈털터리라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부자인 것처럼 꾸미는 모습으로, 결혼의 조건으로 경제력만을 우선시하는 면모라는 점에서 속물근성을 엿볼 수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 따르면, 회중시계는 애장품의 성격을 지닐 수 있지만, (나)에서 회중시계는 남자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한 물건은 아니며 그로 인해 항의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따르면, 회중시계는 애장품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가)에서 회중시계를 이인국에게 '인생의 반려'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② 〈보기〉에 따르면, 회중시계는 작품에서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서사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가)에서 회중시계를 매개로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 등 이인국의 과거 행적을 회상하고 서술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④ 〈보기〉에 따르면, 회중시계는 작품에서 인물의 심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서사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나)에서 하인이 회중시계를 보면서 물건의 반납 시간을 알리는 것을 통해 남자를 '초조'하게 하는 등 긴장을 고조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⑤ 〈보기〉에 따르면, 회중시계는 기본적으로 시간 측정의 도구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활용도는 (가)에서 이인국이 미국 대사관 브라운과의 약속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회중시계를 꺼내 보는 것, (나)에서 하인이 남자가 물건을 돌려줘야 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보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08 갈래 복합

본문 271~276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① 06 ③

㉮ 이한직, 「낙타」

해제 이 작품은 동물원에서 낙타를 보며 학창 시절의 은사를 회고하는 시이다. 화자는 과거를 추억하는 듯한 낙타의 모습이 늙으신 선생님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화자 자신 역시 낙타와 같이 과거를 추억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도 어느새 동심에서 멀어져 추억하듯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심리적 전이 과정을 통해 선생님과 낙타와 '나' 사이의 공통점이 표현된다.

주제 동심을 잃고 세상을 쓸쓸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인식

구성

- 1~2연: 학창 시절 선생님에 대한 기억
- 3연: 낙타를 닮은 선생님의 모습
- 4연: 봄볕을 쬐며 낙타를 바라보는 나
- 5연: 동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 이수익, 「방울 소리」

해제 이 작품은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소 방울을 통해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이다. 화자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꼴을 먹인 소를 몰고 산을 내려왔던 유년 시절의 여름날 저녁을 떠올린다. 바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일상과 달리 소 방울 소리가 들리는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다.

주제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연: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삼.
- 2연: 소를 몰고 산을 내려왔던 유년 시절을 회상함.
- 3연: 시끄러운 일상에서 따스했던 고향을 그리워함.

㉯ 이순원, 「말을 찾아서」

해제 이 작품은 주인공인 이수호라는 인물의 유년 시절을 통해 자아 성장의 과정을 보여 준다. 중학생 시절 수호는 집안 어른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당숙네 양자가 되지만 노새를 끄는 당숙이 몹시 부끄러워 양자가 되길 거부한다. 결국 당숙을 '아부제'라 부르게 되고 양자로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상호 텍스트 관계에 있는 소설로, 「메밀꽃 필 무렵」의 공간적 배경과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그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양부와 양자를 맺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통해 끈끈하고 애달픈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양부와의 갈등과 화해를 통한 내면의 성장

전체 줄거리 '나'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원고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지만 어린 시절의 고향에서의 기억으로 썩 내키지 않는다. 어린 시절 '나'는 '은별'이라는 이름의 노새를 끄는 당숙의 양자가 된다. 자식이 없는 당숙과 당숙모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성을 기울이지만 '나'는 노새를 끄는 당숙이 부끄러워 양자가 되길 거부한다. '나'의 완강한 저항에 당숙은 집을 나가고 '나'는 봉평까지 찾아가 당숙을 만나 '아부제'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 함께 노새를 끌고 메밀꽃이 핀 밤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당숙과 많은 대화를 나눈 '나'는 이후 당숙의 집에서 양자로 살게 되지만 '은별'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은별'은 다리를 다쳐 죽게 되고, 그때 울고 있는 당숙을 보게 된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나도', '내가'와 같이 작품의 표면에 화자를 내세워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도 '나는', '내가'와 같이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들릴까 말까'가 반복되고 있지만 (가)에서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의인화된 사물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인화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는 '마을'과 '저자바닥'이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존재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을 진술하고 있지 않다.

0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산 화자는 방울 소리를 통해 기억 속 유년 시절의 고향을 떠올린다. 즉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 골목'이나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 저자바닥에 따가운' 도심에서 과거를 상기하는 것이지 변해 버린 고향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회초리를 들고 걸어오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유년 시절의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도치된 문장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② '배고픈 저녁연기'와 기운 없이 걷는 '터덜터덜'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유년 시절이 풍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나'가 눈앞이 아득해져 옴을 느끼며 당숙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 '아들'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친구들로부터 노새를 끄는 마부의 아들로 여겨질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⑤ '나'는 당숙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이미 당숙의 집에 자신의 방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므로 양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당숙의 집에서 생활할 것을 결심했다고 할 수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동물원'은 학창 시절 선생님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상을 떠올리는 공간으로, 낙타를 보게 되어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골동품 가게'는 소 방울을 구입하는 공간으로, 방울 소리를 통해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골동품 가게'는 유년 시절의 고향을 회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공간이다. 화자가 회상하는 고향은 시끄러운 문명의 공간과는 달랐던 공간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상실한 가치와 관계있다.

② (가)의 '동물원'은 동심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공간이지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를 암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③ (가)의 '동물원'과 (나)의 '골동품 가게' 모두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계기와 관련 있는 공간으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동물원'과 (나)의 '골동품 가게' 모두 화자의 처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0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과거 은별의 죽음을 서술하며 은별로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현재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거 사건인 은별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요약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② 은별에 대해 앞으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나'의 심리에 대한 예측이 제시되지만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은별에 대한 '나'의 복잡한 심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 직접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은별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당숙은 다른 마부들 앞에서 '나'를 집안의 '맏상주'라고 자랑하며 보란 듯이 100원짜리 한 장을 건넨다. 이는 '나'에 대한 당숙의 자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당숙은 남대천에서 모래를 퍼 나르는 일을 하던 중 하교하던 '나'를 보고 반가워하며 돈을 건넨다. 이는 마부로 일하는 당숙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③ 당숙이 '나'를 '맏상주'라고 소개하자 '나'는 친구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워하며 달아난다. 따라서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기회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가 당숙에게 살갑게 굴지 않아도 당숙은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다. 당숙이 건네는 '100원짜리 한 장' 역시 이러한 당숙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숙이 '나'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는 계기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당숙은 '나'를 미래의 '맏상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즉 '나'는 미래에 '맏상주' 노릇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지 이미 '맏상주' 노릇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가 한 '맏상주' 노릇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라는 표현은 동물과 인간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속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는 기억 속 선생님의 모습을 낙타에 비유하고 있다. 나이가 드신 선생님의 모습은 늙어 보이는 낙타가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추억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② (가)에서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라고 한 것은 낙타와 마찬가지로 '나'도 따뜻한 봄볕을 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화자인 '나'와 낙타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다)에서 '나'가 당숙을 '아부제'라고 부르며 '아부제'의 집으로 이사를 온 후에도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숙과 평생을 함께했던 노새나 노새를 끄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수용할 수 없었던 시절에 대해 떠올리는 것이다.

⑤ (다)에서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 노새인 은별을 통해 번 돈으로 '나'가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나'가 은별을 미워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마움, 미안함, 쉽게 잊을 수 없음 등을 표현한 것이다.

09 갈래 복합

본문 277~282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④

가 김춘수, 「능금」

해제 이 작품은 익어 가는 능금을 보며 존재의 본질에 관해 발견한 것과 그러한 발견의 과정에서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능금을 '그'로 표현하면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인간과 같은 내면세계를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다. 능금은 본질적으로 결핍을 지닌 존재로, 이를 채우기 위해 간절한 그리움으로 스스로를 충만하게 만든다. 이러한 충만은 바로 현재 자연의 섭리에 열심히 순응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성숙해진 능금은 더 이상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를 지닌 경이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구체적인 사물의 이미지에서 추상적 의미를 찾아내 전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 능금이 익는 과정에서 발견한 경이로움

구성

- 1연: 그리움으로 익어 가는 능금
- 2연: 가을 햇살에 충실하게 익어 가는 능금
- 3연: 능금을 통해 발견한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

㉯ 이가림, 「석류」

해제 이 작품은 절대적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여러 감정을 석류가 익어 알이 터지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있다. '석류'는 그리운 사람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석류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상황은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열매가 익어 가는 상황은 사랑에 대한 열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석류알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상황은 숨겨 놓았던 사랑을 털어놓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애달픔, 고백의 두려움과 슬픔 등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는 감정을 석류가 익어 터져 나오기까지의 상황에 빗대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제 사랑하는 이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

구성

- 1연: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그리움
- 2연: 가둘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
- 3연: 점점 더 커질수록 괴로워지는 사랑의 감정
- 4연: 숨겨 두었던 사랑의 고백
- 5연: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기 바라는 마음

㉰ 이서구, 「소완정의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소완정금충초목권』이라는 시집을 엮은 이유를 문답의 방식으로 밝힌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소완정이라는 거처에 머물며 그곳에서 관찰한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시를 썼는데, 그런 글쓴이에게 어떤 손님이 그렇게 하찮은 소재로 시를 쓴 이유에 대해 묻는다. 이에 글쓴이는 새, 곤충, 풀, 나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새, 곤충, 풀, 나무가 제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고 말하며 손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 네 사물은 천하를 이루는 주요한 존재로, 예로부터 이를 소재로 시를 쓰는 것은 경대부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소완정금충초목권』을 쓴 이유를 정당화한다.

주제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시를 쓴 이유

구성

- 기: 소완정에서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시를 지음.
- 서: 어떤 손님 – 미미한 사물을 소재로 시를 지은 이유를 궁금해함. / 글쓴이 – 새, 곤충, 풀, 나무가 시 창작의 중요한 소재인 이유를 밝힘.
- 결: 『소완정금충초목권』을 엮음.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능금을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해 밝히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석류를 통해 절대적 존재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능금이 익어 가는 과정을 통해, (나)는 석류가 익어 가는 과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가)에는 익어 가는 능금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고, (다)에도 글의 소재가 되는 네 자연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석류의 입장에서 '그대'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다)의 글쓴이는 글의 소재가 되는 네 자연물의 입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연물을 관찰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

⑤ (가)에는 화자 '우리들'이 등장해 익어 가는 능금을 관찰하며 느낀 점을 밝히고 있고, (나)에도 화자 '나'가 결실을 맺는 석류의 입장에서 사랑에 대해 직접 밝히고 있다. (다)에서도 글쓴이 '나'가 등장해 자신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다.

0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마음을 '영혼의 가마솥', '캄캄한 골방' 등에 비유하여, 가둘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벅차오르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B]에는 '어째서 그럴까요?'라고 질문한 뒤에 이에 스스로 답하는 방식을 통해 각각의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은 무시한 채 개념화된 어휘로만 대상을 파악하려는 '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 없구나'처럼 감탄문을 사용해 사랑이 깊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B]에 의문문이 쓰인 것은 맞지만 글을 쓰는 일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는 연쇄법이 쓰이지 않았다. [B]에서는 '눈으로 보고서 ~ 알 뿐입니다.'처럼 열거법을 사용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③ [A]에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미래가 나타나 있지 않다. [B]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독백체가 쓰이지만 사랑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B]에는 대화체가 쓰이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놓칠 듯 놓칠 듯 숨 가쁘게'는 화자가 능금에 대한 관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룬 존재의 내면을 발견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내적 성숙을 이룬 존재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구가 내면이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 결핍을 채우려 노력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냈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스스로의 무게로 / 떨어져 온다'는 그리움을 지닌 능금이 익어 열매를 맺은 상태를 무게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결핍된 존재가 내적으로 충실함을 얻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② '그윽한 / 여운을 새긴다'는 그리움으로 익은 능금 같은 존재, 곧 성숙을 이룬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동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이 아쉬운 자리에는 /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 익어 간다'에서 '이 아쉬운 자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이르고, '충실'은 내면의 성숙을 이른다.

⑤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에서 '바다'는 존재의 내면세계를 이르는 것으로, 화자는 이러한 내면을 지닌 성숙한 존재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04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자신이 쓴 시의 소재에 관한 '어떤 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물을 대강 보고 그 이치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사물을 헤아려 '물건을 처음 만드는 학자'가 사물을 이해하려는 태도, 곧 각 사물의 형세를 꼼꼼히 살펴 관찰하여 하늘이 부여한 특징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도성의 시가 한복판에 살고 있음에도 오로지 '소완정'에서 자연물을 관찰하며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이 자연물에 대해 시를 쓰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손님이 자신처럼 자연물에 대해 시를 쓰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가 '새와 곤충, 풀과 나무'를 문장의 소재로 삼은 것은 주변에서 쉽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지, 이것들이 생계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은 아니다.

⑤ '나'는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하는 시를 쓴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손님'은 이런 '나'의 생각에 공감하였다. '나'가 손님과의 대화 이후에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한 시집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그 손님'의 제안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가을 햇살에 능금이 충실히 익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능금의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견디기 어려운 '빛깔'과 '향기'는 능금이 익은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은 이를 통해 간절한 그리움으로 맺게 된 충만한 결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에서 '껍질'을 부수는 행위는 '그대'를 사랑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진 사랑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④ ㉣에서 '홍보석'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대의 뜰에 / 받아' 달라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수용해 달라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⑤ ㉤에서 '네 가지'는 글쓴이가 글의 소재로 삼고 있는 '새, 곤충, 풀, 나무'로, 성인이 이 네 가지에서 뜻을 취하고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글의 소재로 삼는 것들이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

06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어떤 손님'이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은 글쓴이가 '이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시를 쓰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에서 '나'가 전해 오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은 글쓴이 자신이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쓰는 행위가 경대부의 재능을 발휘한 것이라 밝힘으로써 자신의 시 창작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정당함을 밝히기 위해서 타인의 말

을 인용하였다.
② ⓐ에서는 상대의 말에 담긴 의도가 아니라 행위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 말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였다.
③ ⓐ에서는 상대에게 반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타인의 말을 인용하였다.
⑤ ⓐ에서는 상대 행동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 행동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였다.

10 갈래 복합

본문 283~287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③ 06 ②

㉮ 박재삼, 「흥부 부부상」

해제 이 시는 고전 속 주인공인 흥부 부부를 소재로 삼아, 한스러운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이들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화자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의 가치

구성
- 1연: 물질적 가치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흥부 부부의 웃음
- 2연: 가난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 부부
- 3연: 가난을 이겨 내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가치

㉯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를 빌려」

해제 이 시는 오로지 글 쓰는 일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가난한 가장인 화자의 비애감을 읊은 작품이다. 화자는 며칠 후면 비워 줘야 할 방에서 잠든 가족을 보며 깊은 시름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화자는 비유와 설의적 표현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잠 못 드는 가장의 비애

구성
- 1~3행: 걱정으로 뒤척이느라 제대로 못 자는 화자
- 4~8행: 어린 자식의 평화로운 잠을 보며 느끼는 슬픔
- 9~14행: 글 쓰는 일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든 막막한 현실
- 15~18행: 곧 방을 비워야 하는 상황 때문에 느끼는 절박함.

㉰ 이범선, 「오발탄」

해제 이 소설은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6·25 전쟁 직후 우리 사회의 혼란상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곤궁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가장이자 사무직 노동자인 철호, 정신 이상으로 '가자'만 외쳐 대는 어머니,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아내, 일확천금을 꿈꾸며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히는 영호 등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비극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처참한 사건이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자신이 '오발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철호는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6·25 전쟁 후의 황폐한 사회에서 양심적 삶을 살려다 좌절하는 인간의 비극

전체 줄거리 북에서 부유하게 살던 철호 가족은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월남하여 남한의 해방촌에 살게 된다.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지만, 그들 가족은 고향에서와 달리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남한에서의 비참한 삶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꿈꾸던 어머니는 전쟁 중에 정신 이상이 된 후로 계속 '가자'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외쳐 댄다. 한편 제대 후에 취직하지 못한 동생 영호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채 방황하며, 양심대로 살려는 철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결국 영호는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히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다. 철호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정신적 혼란을 느끼며 택시 핸선지를 이리저리 바꾼다. 이런 철호를 보며 운전사는 '오발탄'과 같은 손님이 탔다고 투덜거린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는 '확실히 문제다'를 반복함으로써 가난한 처지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소박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부각하고 있고, (나)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를 반복함으로써 가난의 고통으로 잠 못 드는 가장의 비애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떡방아 소리'는 실제로는 안 나는 소리이지만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흥부 부부가 '있는 듯이 들어 내'는 소리이고, (나)의 '바람 소리'는 가난한 가족이 잠든 방 바깥에서 들리는 것으로 화자의 막막함을 심화하는 소리이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화자가 가족의 생계와 주거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들고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가 처한 암담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가 아니라 (가)에서 '~ 헤아려 보라'라는 명령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박을 타던 당시 흥부 부부의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나)에 사용된 종결 표현 중에는 예스러운 것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없다.

02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에서 영호가 말하는 '용기'는 취직 같은 방식 대신에 양심, 윤리, 관습, 법률 등을 모두 벗어던지고서 잘살 방법을 찾는 일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는 도덕이나 규율에서 벗어난 수단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영호의 의지와 연관되므로 ㄹ은 적절하다.

또 영호의 말을 들은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용기'는 철호가 지금껏 택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으므로 ㄴ도 적절하다.

하지만 영호는 철호처럼 '전찻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면서 남들처럼 잘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철호의 미래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ㄱ은 적절하지 않다.

또 영호는 남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용기'를 갖추고 있다고 했으므로, '용기'는 영호가 자기 형제 이외의 동시대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처세의 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ㄷ도 적절하지 않다.

03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철호가 중학교 때 본 적 있는 미라를 떠올리게 하는 '해골 같은 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철호 어머니의 외양에 관한 인상이 비유적으로 서술된 것이다. 그러나 [B]에서는 영호나 철호를 비롯한 인물의 외양에 관한 인상이 비유적으로 서술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물들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제시된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③ [B]에서 서술자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기만 할 뿐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④ [A]에는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처럼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A]와 [B] 모두 이야기 속의 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하며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는 흥부 부부가 서로에게 건네는 웃음이 '문제'일 뿐 '금'이나 '황금 벼이삭'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가난의 고통도 이겨 낼 수 있는 이해와 사랑,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황금 벼이삭', 즉 ⓐ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를 빗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 영호는 '적어도 까마귀만 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까마귀는 우둔하여 ⓑ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호가 말하는 용기란 잘살기 위해 양심, 윤리, 관습, 법률 등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는 대체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범, 즉 보편적인 사회 규범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어떤 정서를 빗댄 보조 관념이 아니므로 과거에 대한 회한과 무관하고, ⓑ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련이 없다.

② ⓐ는 화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질적 풍요에 불과하므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련이 없고, ⓑ도 준수할 규범이므로 실현 가능한 대안과 관련이 없다.

③ ⓐ는 농사를 짓는 시간 동안 차차 익는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와 관련이 있지만 그 자체를 빗댄 것은 아니고, ⓑ는 공간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이 없다.

④ ⓐ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만 운수에 따라 주어지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도 일탈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므로 근면한 노동의 결실과 무관하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지금 가족이 자고 있는 방을 가리켜 화자가 ㉢처럼 말한 것은 사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을 비워 주어야 할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얼마 안 남은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맥락으로 볼 때 ㉠에서 '구슬'은 눈물의 보조 관념이다. 화자는 가난으로 함께 고생해 온 흥부 부부가 박을 사이에 두고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불쌍해' 눈물을 흘리다가 '서로 소스라쳐'

웃음을 지어 보이는 광경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은 흥부와 흥부 아내가 서로에게 연민을 느꼈을 것이라는 짐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일, 즉 글을 쓰는 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끌고 가는 화자는 자신이 채워 나가는 원고지 칸을 두고 ㉡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는 끝내 건너지 못할 강처럼, 결국 극복해 내지 못할 운명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므로, 막막한 처지 때문에 화자가 갖게 된 절망적 인식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은 철호가 대야 밑바닥에 비친 자기 얼굴을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처럼 느끼며 떠올리는 상념의 한 부분이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은 치열해진 경쟁 탓에 자신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것조차 얻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철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판잣집들이 늘어선 해방촌 골목길 풍경에 대한 서술로, 가난한 이들의 주거 공간이 열악한 생활 환경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흥부 부부가 '서로 부끄리'는 것이나 '서로 소스라쳐' 웃음을 짓는 것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각이나 반성과 관련이 없다. 이는 흥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문득 그 모습을 쑥스러워하며 다시 웃음을 짓는 상황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흥부 부부는 가난으로 인해 '손발 닳은 처지'이지만, 박을 사이에 두고 '같이 웃어 비추'며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넨다. 〈보기〉와 연관 지어 볼 때, 이는 웃음이라는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응집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와 연관 지어 볼 때, (나)에서 화자가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며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심정을 느끼는 것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가 잠든 아이의 이불을 다독여 주고, 아내의 웅크린 등에 얼굴을 대어 보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가족 구성원의 소속감이나 애착 같은 정서적 유대감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다)에서 철호가 상상하는 사나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대상이다. 따라서 그 사나이가 '누군가가 숲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 오는' 상황을 상상하며 철호가 '까닭 모를 울분'을 느끼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압박감이나 분노, 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11 갈래 복합

본문 288~293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③

(가) 이근삼, 「원고지」

해제 이 작품은 1960년 『사상계』에 발표되었으며 한국 서사극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번역 기계로 전락하는 교수의 모습을 통해 피로와 고독, 소통의 부재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관객에게 무대의 상황을 소개하고 논평하는 해설자의 설정, 원고지의 형태를 소품이나 배경의 무늬로 적용하는 무대 설정 등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배금주의가 만연한 일상에 매몰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

전체 줄거리 교수는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가족의 압박을 받으며 피곤한 몸으로 귀가한다. 하지만 남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아내는 쉴 틈도 주지 않고 교수에게 번역을 재촉한다. 교수는 중압감으로 인해 정신적 혼란을 느끼며 잠이 들지만, 관념적 존재인 감독관이 나타나 교수에게 번역 원고를 독촉한다. 원고를 돈으로 바꾸는 데 여념이 없는 아내 옆에서 교수는 백구십 칸 원고지를 발견하고 탁 트이는 기분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젊은 날의 희망과 정열을 상징하는 천사를 만나고 생각할 힘을 갈구한다. 하지만 다시 나타난 감독관의 재촉을 받으며 교수는 비참한 표정으로 다시 번역에 매진한다.

(나) 김광규, 「상행」

해제 이 작품은 1983년에 출간된 『반달곰에게』에 실려 있는 시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풍요로움에 자족하면서 사회적 문제에는 눈을 감은 소시민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나'라는 화자가 서울로 올라가는 '너'에 관해 말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말하기가 반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는 '너'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독자는 이러한 요구의 표면적 의미를 수용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진 참뜻을 비판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주제 근대화된 일상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구성
- 1~5행: 일상에서 낯설게 다가오는 성찰적 자아에 대한 자각
- 6~11행: 일상의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지향하는 소시민의 삶에 대한 비판
- 12~19행: 현대 사회의 부정적 문제에는 눈감는 향락적 태도에 대한 비판
- 20~30행: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회피하고 세속적 관심사에만 매몰되는 태도에 대한 비판

01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장남'과 '장녀'가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은 관객을 향해 아버지와 가족 상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처와 교수, 교수와 천사 사이의 대화가 있지만 이들 대화에서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부분은 없다.

② (가)에서 '지루한 음악', '달콤한 음악', '감상적인 음악'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음악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인물의 의지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③ (가)에서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상황을 인물이나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대 밖 목소리를 활용하는 장면은 없다.

④ (가)에서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속도감 있게 재현하기 위해 무대를 자주 전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라는 대사를 통해 천사는 교수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라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장녀가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라는 교수의 대사를 통해 진리의 열정으로 가득한 과거의 삶이 있었으며 교수가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라는 장남의 대사를 통해 장남은 부모의 책임감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교수에게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 자루 안에 넣으며 금액을 외치는 것을 반복하는 아내의 행동을 통해 아내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면서 교수의 원고 번역을 강하게 독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백구십 자 칸'의 원고지는 규격화된 원고지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교수는 이를 보며 '시원'함, '탁 트이는' 기분 등을 느낀다. 따라서 '백구십 자 칸'의 원고지가 인간적 삶이 훼손된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원고지 칸'은 일정한 규격을 이루며 원고지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지 칸 투성이'의 양복은 표준화된 일상의 규격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쇠사슬'은 피곤에 찌든 교수의 허리를 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과 사회의 과중한 책임과 구속을 의미하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또 하나의 굵은 줄'은 가정에서 쇠사슬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현대인에게 집이 구속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회초리'는 감독관이 교수에게 원고를 독촉하며 휘두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인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현대 사회의 규율적 면모를 부각하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04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는 '-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청자인 '너'에게 즐거운 여행, 고개를 끄덕이는 것, 듣기 힘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등 특정한 인식과 행동을 권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을 연기'라는 계절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시어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저녁 들판', '황혼'과 같은 시어로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지만, 이들 시어가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수미상관의 구조는 대체로 첫 번째 연이나 행을 마지막 연이나 행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반복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시의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와 같은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용은 설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가 궁금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청자에게 구하는 것은 아니다.

05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교수는 현재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회복하고 실현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생각'할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에서 화자는 여행과 같은 삶을 즐기는 것과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맞세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는 희망과 정열을 깨닫고 실현할 수 있는 이성을, ⓑ는 일상과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생각'은 이상과 희망을 의미하는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를 가족을 향한 애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에서 '생각'은 즐겁고 편안한 일상과 맞서 있다는 점에서, ⓑ를 고통과 갈등이 없는 일상을 향한 애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서 교수는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를 타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에서 화자는 '생각'을 즐거운 여행으로 비유되는 일상과 맞세운다는 점에서 ⓑ를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기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교수는 돈을 버는 일에 종속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를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에서 화자는 '생각'을 즐거운 여행으로 비유되는 일상과 맞세운다는 점에서 ⓑ를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자족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생각'은 이상과 희망을 의미하는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를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연민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나)에서 '생각'은 즐겁고 편안한 일상과 맞서 있다는 점에서 ⓑ를 반복되는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고 절망하는 위기의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낯선 얼굴'은 흔들리는 차창에서 문득 발견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소시민적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너'의 또 다른 내면이다.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은 축자적 의미와는 달리 일상의 소시민적 모습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낯선 얼굴을 속물적 모습으로 간주하면서 ㉢의 숨겨진 의미를, 그러한 속물적 모습을 청자의 본모습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은 교수의 피곤한 표정이나 하품 소리와는 상반된 표현으로, 고단한 교수의 삶을 부각한다. 이런 점에서 ㉠을 교수의 표정이나 하품 소리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고단한 교수의 삶에서 애처로움을 느끼는 감상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은 돈을 벌기 위해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에 매달리다 지쳐 잠든 모습과는 상반된 표현으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가는 교수의 처지를 부각한다. 이런 점에서 ㉡을 생계에 매몰된 교수의 일상과는 상반된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가는 교수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감상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의 축자적 의미는 흥미 있는 주간지를 즐겨 읽고 긍정하라는 것이지만, 숨겨진 의미는 그러한 주간지에 거리를 두거나 비판적으로 인식하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 숨겨진 의미를 주간지로 대변되는, 흥미 위주의 소비문화에 매몰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겠다는 감상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의 축자적 의미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듣기 힘든 소리는 멀리하라는 것이지만, 숨겨진 의미는 그러한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 숨겨진 의미를 듣기는 힘들지만 현대 사회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소리가 지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는 감상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FINAL 실전모의고사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실전 학습 1회

본문 296~311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①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④	17 ③			

01~04 현대 소설

■ **문순태, 「말하는 돌」**

해제 이 작품은 전쟁 중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애쓰는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귀향한 '나'는 아버지의 묘지 이장 과정에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동원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은 이미 소명된 후였으며, 또한 세월의 흐름 앞에 기억과 상처 등이 무디어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복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상처의 치유가 복수를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제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전쟁의 참담함

전체 줄거리 '나'의 아버지는 부면장네 머슴으로 '나'는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한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아버지는 이념 대립의 와중에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묻은 후 쫓기듯 고향을 떠난다. 오랜 세월이 흘러 성공한 '나'는 아버지의 무덤 이장을 위해 고향인 월곡리로 돌아온다. '나'는 장돌식을 만나 마을의 근황을 전해 들으며 '나'가 떠나고 5년 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음을 알게 된다. 이장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나'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신나게 판을 벌인다. 이장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마을 사람들의 당황하는 표정을 기대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외려 처음부터 왜 밝히지 않았는지 묻거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짐하게 잘했다는 등의 덕담을 건넬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 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보이고 말았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30년 전 아버지의 무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올려 두었던, 커다란 돌만을 챙긴 채 버스를 타고 고향을 떠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는 '나'가 큰돈을 벌기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인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다짐을 실현하기 위한 '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는 이장 작업이 끝난 후 고향을 떠나는 '나'가 꿈속에서 들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놀라 꿈에서 깨는 장면으로 시간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나'와 대비되는 인물들인 '월곡리 사람들'과의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와 '월곡리 사람들' 각각의 내면 심리를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B]에도 대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나'와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인물 각각의 내면 심리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A]와 [B] 모두 현재형의 서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인물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초조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A]에는 인물이 속한 배경의 이미지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B]는 '자동차 클랙슨 소리', 버스가 '낡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이는 도시로 접어들'었다는 표현 등을 통해 인물이 처한 공간적 배경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A]에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B]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고함을 치는 것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돌은 아버지의 무덤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던 대상이며 '나'가 아버지의 혼이 깃들어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유골이 묻히고 봉분이 지어지기 시작하자 '나'가 말로 하기 어려운 쾌감을 맛보았다고 한 것을 보아, 이장 작업을 통해 '나'가 쾌감을 느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돌이 아니라 덩실하게 지어지기 시작한 봉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돌이 '나'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한 이장 일을 통해 맛보게 되는 쾌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돌을 집으로 가져가려는 '나'를 보고 놀라는 장돌식에게 '나'가 그 돌에 아버지의 혼이 들어 있을 것 같다거나, 월곡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들어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에게 돌은 고향과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되새기도록 만드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② 돌은 아버지의 무덤을 덮었던 것으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마을을 떠나게 되었던 '나'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③ '나'가 아버지의 혼이 돌에 들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점, 돌을 깔고 앉은 채 꾸게 된 꿈에 엉덩이에 깔린 아버지가 나오는 점 등으로 보아 돌과 아버지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장돌식은 어린 '나'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돕고 함께 아버지를 묻었던 사람인데, 30년 후의 '나'가 돌에 '자네와 나 두 사람의 우정'이 들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돌은 '나'와 장돌식의 관계를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이장 작업에 동원된 마을 사람이 '나'가 황바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이다. 따라서 '나'의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과거 사건의 잘못을 감추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이 풀리십니까.'와 같은 내적 독백 방식을 통해 이장 작업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미안헌디.'라는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이장한 무덤의 주인이 황바우임을 알게 된 이후 자신들이 받게 된 보수가 과분하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꼭', '쉬었다 가야 허네'는 당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오랜만에 고향에 온 '나'에게 부면장네 아들이 호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기분', '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이장을 한 '나'의 행동과 행동의 이유, 심정 등에 대한 관심을 의문문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밝힌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 달리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나'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같이 큰 정신적·물리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은 후 날이 밝기 전에 쫓기듯 고향인 월곡리를 떠나게 되는 과정은 '나'가 겪은 탈향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자기네들'은 아버지를 부리던 주인의 아들들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덮어씌우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는 전쟁, 이념 대립 등으로 인해 전통적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나'가 시키는 대로 '주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무덤에 덮을 멧장을 떠 오는 것은 '나'가 시도하는 복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꿈을 꾸며 듣게 된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나'의 행동이 도리어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수가 갈등의 해결책이나 '나'가 입은 정신적 상처의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05~10 갈래 복합

㉮ 채수, 「석가산폭포기」

해제 이 글은 조선 시대의 문신인 채수가 지은 수필로, 글쓴이가 인공으로 돌산과 폭포를 만들게 된 과정과 그 즐거움을 기록한 글이다. 글쓴이는 비록 자신이 만든 석가산이 진짜 자연은 아니지만 어느 절경보다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만든 석가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세상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후 거기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족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생각은 독자에게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주제 석가산을 만들게 된 경위와 석가산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삶의 즐거움

구성

- 처음: 산수를 찾아 경치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연로하여 산수화로 경치 구경을 대신함.
- 중간 1: 남산의 별장에 석가산을 만듦.
- 중간 2: 석가산의 위용과 아름다움
- 끝: 석가산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삶의 즐거움

㉯ 김훈, 「꽃 피는 해안선」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자전거로 전국을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서술한 기행 수필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봄날 자전거 여행을 하며 관찰한 꽃들의 개화와 낙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참신한 비유와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꽃들의 개화와 낙화 과정을 글쓴이의 시각에서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자전거 여행을 하며 본 꽃들의 개화와 낙화 과정 및 이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

구성

- 처음: 월동 장구를 버리고 봄날을 맞아 자전거 여행을 준비함.
- 중간: 자전거 여행을 하며 동백꽃, 매화, 산수유, 목련의 개화와 낙화 과정을 바라봄.
- 끝: 꽃들의 개화와 낙화를 통해 봄이라는 계절의 의미와 삶의 시간에 대해 생각함.

0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글쓴이는 산수를 좋아해 유명한 산들을 찾아다녔지만 늙은 후에는 몸이 힘들어 산수를 직접 찾아다닐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의 산수화를 수집하여 이를 감상하지만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한 후 남산의 별장에 석가산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월동 장구를 모두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남쪽 바다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이유로, 봄이 되니 겨울에 다녔던 길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정건이나 왕유와 같은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며 자신이 만든 석가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나)는 동백의 낙화를 백제의 멸망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빗대고 있을 뿐,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인위적으로 만든 석가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 삶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글쓴이가 봄날 꽃들의 개화와 낙화 과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의 이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삶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 글쓴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든 석가산과 폭포와 비교하며 자신이 남산의 별장에 만든 석가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글쓴이는 자전거 여행을 하며 바라본 여러 꽃들의 개화와 낙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을 뿐, 다른 대상과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여러 꽃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글쓴이는 산수를 직접 찾아 즐겼던 과거의 모습과 석가산을 만들어 이를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현재의 모습을 대비한 후, 남들이 비웃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글쓴이는 겨우내 끌고 다녔던 월동 장구를 다 버리고 봄날을 맞아 여수 남쪽의 해안선을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06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1문단의 '모두 세속의 걱정을 깨끗이 씻어 내고 의지와 기개를 키우기 충분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글쓴이가 속세의 잡념으로 힘들거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유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타인들이 비웃는 글쓴이의 취미는 유명한 화가들의 산수화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유람하는 선비와 승려들을 만나 산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③ 글쓴이는 자신이 만든 석가산은 봉래산과 방장산을 축소해 넣은 것이기에 정건이나 왕유가 그린 그림보다 더 빼어나다고 말하고 있을 뿐, 정건이나 왕유가 만든 폭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별장에서 솟는 샘물이 달고 시원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서 아침저녁 그 샘물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샘물이 이웃들의 입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천지와 사람이 모두 가짜를 합친 것이므로 가짜와 진짜를 논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자신이 싫어하는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들이 피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변하는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에서는 돌산도 향일암 앞바다, 돌산도 율림리 정미자 씨 집 마당, 선암사 뒷산 등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개화하고 낙화하는 동백과 매화, 산수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C]에서는 봄이 되어 피었던 매화 꽃잎이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의 변화가 대상의 모습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글쓴이는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기에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는 점을 이유로, 겨우내 끌고 다니던 월동 장

구를 모두 다 버리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B]에서 글쓴이는 자전거를 타면서 바라본 돌산도 향일암 앞바다의 동백꽃, 돌산도 율림리 정미자 씨 집 마당의 매화, 선암사 뒷산의 산수유의 개화와 낙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③ [C]에서 글쓴이는 봄 바다로 매화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의 생명 속을 흐르는 시간의 풍경과 봄 바다 위의 시간의 빛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④ [B]에서 동백과 매화, 산수유, 목련의 개화와 낙화를 바라본 글쓴이는 [C]에서 봄은 숨어 있던 운명의 모습들을 가차 없이 드러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의 모습과 연관 지으며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이라는 '춘수'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08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는 '없고', '없으며', '없다'와 같이 '없다'라는 말을 서술어로 사용하며 글쓴이가 담박함을 즐기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가산을 담박한 곳에 만든 이유를 ㉢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못을 파고', '물을 담아', '연꽃을 심고', '괴석을 가져다', '가산을 만들고는', 여러 나무를 심은 행위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며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과 석가산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② ㉡에서는 '작은 것'과 '큰 것',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라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석가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는 '열렸다'라는 피동 표현으로 글쓴이의 신체 변화를 나타내며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봄날의 바람과 조응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 글쓴이는 느리고 무거운 목련꽃의 죽음을 '펄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목련꽃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09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글쓴이는 '샘물(ⓐ)'의 물맛이 좋고 시원해 마루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 석가산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는 글쓴이가 석가산이 있는 연못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향일암 앞바다(ⓑ)'에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바라보며 사람의 생명 속에 흐르는 시간과 봄이 되어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따라서 ⓑ는 글쓴이가 낙화하는 꽃들을 바라보며 봄이라는 계절의 의미를 탐색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글쓴이에게 미각과 시각, 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에서 떨어지는 꽃들을 바라보며 봄의 의미와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인 '춘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뿐, 꽃들로 인해 슬퍼하고 있지는 않다.
② ⓐ는 남산에 있는 글쓴이의 별장에 있을 뿐, 글쓴이가 남산에 있는 별장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는 글쓴이가 자전거를 타며 마주한 장소일 뿐, 글쓴이가 다시 자전거를 타기로 마음을 먹는 장소와는 관련이 없다. 글쓴이는 봄이 왔기에 다시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했다.
④ ⓐ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과 비교했을 때 글쓴이 자신이 만든 석가산이 빼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글쓴이가 만든 석가산과 다른 이들이 만든 석가산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는 글쓴이가 봄의 의미와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인 '춘수'에 대해 생각하는 장소일 뿐, 낙화하는 꽃들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장소와는 관련이 없다.
⑤ ⓐ를 즐기는 글쓴이의 취미를 세상의 호걸들이 비웃는다는 점에서 ⓐ는 글쓴이의 취미가 지닌 멋스러움을 다른 이들이 확인하는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에서 글쓴이는 봄의 의미와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인 '춘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뿐, 낙화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글쓴이는 산수유의 개화를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는 것으로, 산수유의 낙화를 '지우개'로 자신을 지우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개화하고 낙화하는 산수유에 대한 글쓴이의 참신한 시각을 암시적 묘사를 통해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암시적 묘사는 산수유가 개화하고 낙화하는 모습과 관련이 있을 뿐, 산수유가 위치한 공간인 선암사 뒷산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글쓴이는 '이 못은 둘레가 겨우 ~ 나무는 네댓 치이다.'와 같이 자신이 만든 석가산이 위치한 못과 석가산의 모습을 설명적 묘사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글쓴이가 만든 석가산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석가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의 글쓴이는 고요한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듣는 석가산의

샘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공후나 축을 연주하는 맑은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석가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
③ (나)의 글쓴이는 동백이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 절정의 순간에 '백제'가 무너지듯이, '눈물처럼 후드득'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절정의 순간에 낙화하는 동백에 대한 글쓴이의 참신한 시각을 드러낸 표현에 해당한다.
④ (나)의 글쓴이는 돌산도 율림리 정미자 씨 집 마당에 피어나 군집을 이룬 매화를 '꽃구름'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화 숲 전체의 포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또한 글쓴이는 꽃잎 하나하나로 낙화하는 매화를 '꽃보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화 숲을 이루는 매화의 낙화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해당한다.

11~14 고전 시가

■ **이건창, 「전가추석」**

해제 이 작품은 구한말의 문인 이건창이 26세 때인 1877년에 지은 서사 한시이다. 작가는 당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권세에 굴하지 않고 지방 관아의 비리를 매섭게 처리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그때 직접 보고 들은 일을 제재로 삼아 쓴 작품 중 하나가 이 작품이다.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부분은 '지난해'의 참혹한 흉년을 겪고도 살아남은 농민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구가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지난해'는 1876년인데 '병자년 기근'이라 하여 조선 후기에 가장 혹심했던 흉년을 기록했던 해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시적 분위기가 어둡고 슬퍼진다. 유복자를 안은 과부의 사연이 진술된다. 그의 남편은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도 끝까지 종자로 쓸 곡식을 먹지 않고 간수하여 봄에 논에 파종하고 곡식을 가꾸다가 그만 기운이 다해 목숨을 잃고 만다. 굶주려 죽은 남편의 시신은 땅속에서 썩어 가고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심은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역설적인 장면은 당대의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상황을 절절하게 보여 준다.

주제 풍년을 맞이한 풍요로운 추석 정경과 가난한 농민이 겪는 비참한 상황

구성
- 첫 부분: 풍년을 맞이한 풍요로운 추석 정경
- 둘째 부분: 굶주려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과부의 모습

1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작품에서 시간적 배경은 추석이다. 풍년을 맞아 풍성한 느낌을 주는 추석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여 풍년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이 앞부분에 제시된다. 그러나 작품의 뒷부분에는 지난해의 흉년과 기근 때문에 유복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남편을 애도하면서, 풍요로운 추석이어서 더욱 불쌍한 남편 생각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홀어미의 비극적 정경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정경이 대비되면서 가난한 농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단한 삶의 조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정경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올벼, 콩, 팥, 알밤, 막걸리와 같은 사물은 농민의 삶과 관련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없으므로, 농민의 삶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 대상 인물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유복자 안은 홀어미'의 회상을 통해 지난해의 혹심한 기근이 남편의 죽음의 원인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인물의 회상을 통해 현실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작품에서 다루는 사건은 '지난해 큰 흉년', '유복자 안은 홀어미'가 겪은 남편의 죽음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배경은 '지난해'라고 제시되어 있을 뿐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작품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한 인물의 이름 또한 작품에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시간적 배경과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발생의 실제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작품의 전반부는 풍년을 맞이한 농민들의 기쁜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는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과 거리가 먼, 가난한 홀어미의 비극적 상황이 그려져 있으므로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가을이 되어 익어 가는 '논에 심은 곡식'은 '유복자 안은 홀어미'의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해 '유복자 안은 홀어미'는 '벼 이삭 익은들 무엇하리오?'라고 말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의 희생으로 얻은 결실에 감사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화자인 가난한 농민들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대해 그

것이 '우리들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농민들은 큰 흉년 이후에 대풍이 들게 된 이유를 하늘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 감사해하는 농민들의 순박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③ ㉢에는 흉년으로 인해 극심한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종자로 쓸 곡식을 차마 먹지 못하고 끝내 몸이 쇠약해져 죽을 지경이 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⑤ ㉤에는 남편의 죽음 때문에 상심한 '유복자 안은 홀어미'가 남편을 따라 죽고 싶어도 돌봐야 할 젖먹이 아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에서 '막걸리 거르고', '누렁소 잡는데'로 표현된 상황은 풍년을 맞아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정경이다. 한편 '섧디섧게 밤새도록 곡'을 하는 인물은 지난해 기근으로 남편을 잃은 홀어미이다. 둘 다 유랑민의 비극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작가는 계절마다 명절을 챙기는 서울의 부귀한 사람들을, 가을 추석 말고는 다른 명절을 챙길 여유가 없는 시골의 빈천한 사람들과 대비하여 계층 간 불평등을 비롯한 현실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그가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 [B]에는 풍년을 맞이한 농촌의 즐거운 수확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올랐고', '깐다네'와 같은 동사를 사용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의 흉년을 견뎌 내고 풍년을 맞이한 농민들의 풍요로움과 활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④ [D]에는 '지난해'에 닥쳤던 흉년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여기서 '지난해'의 흉년은 '병자년 기근'이다. 따라서 '병자년 기근'으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을 드러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E]에는 백성이 겪는 비극적 상황과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두들기며 세곡을 걷으려 하는 아전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가혹한 정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14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는 '유복자 안은 홀어미'이다. 「전가추석」의 후반부는 이 홀어미의 목소리를 통해 농민이 겪는 비참한 현실이 진술되고 있다. 여기서 '유복자 안은 홀어미'는 자신의 진술을 통해 현재의 비참한 상황이 흉년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는 '큰애기 새각시'인데 「익주채련곡」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먹을 것이 부족해 구황 식물로 연뿌리를 캐서 먹어야 하는 농민들의 상황이 사실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여기서 '큰애기 새각시'의 진술을 통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연뿌리를 캐어 먹는 현재의 상황이 작년의 큰 가뭄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게 자연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 자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는 남편의 죽음을 겪은 인물이다. 그 비극적 경험으로부터 ⓐ는 죽은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그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여 허무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의 경우는 '문득 문을 두들기는 소리 / 아전이 세곡 바치라 외쳐 댄다.'에서 가난한 백성을 대상으로 관료들에 의해 자행되는 수탈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와 ⓑ 모두 현재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5~17 현대시

㉮ 김남조, 「생명」

해제 이 시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을 배경으로 초록의 겨울 보리를 관찰하게 된 화자의 정서와 이로 인해 촉발된 인식의 확장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혹독한 추위 속에 움트고 있는 생명의 모습과 겨울나무를 관찰하며,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으며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혹독한 시련의 계절인 겨울을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제 혹독한 시련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속성과 본질

구성

- 1연: 혹독한 추위 속에서 움트는 생명
- 2연: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진리
- 3연: 고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겨울나무
- 4연: 고통과 시련의 소중한 가치
- 5연: 혹독한 추위 속에서 움트는 생명

㉮ 문정희, 「성에 꽃」

해제 이 시는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서린 '성에 꽃'을 보며, '성에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인간사의 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핀 '성에 꽃'을 보며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삶으로 확장하여 인간 역시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욱 성숙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있다.

주제 추운 겨울에 핀 '성에 꽃'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사의 진실

구성

- 1~9행: 추운 겨울 창가에서 발견하게 된 '성에 꽃'의 아름다움
- 10~12행: 자연의 섭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인간사의 진실
- 13~19행: 혹독한 추위 속에 피어 있는 '성에 꽃'

1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생명은 ~ 온다', '~고 ~면서 온다', '~ㄹ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와 같이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며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또 (나)에서도 '~ 있을 때 ~ 누가 ~ 을까'와 같은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며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에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가)와 (나)에는 독백적 어조가 일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온다', '아니다' 등의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단정적인 종결 표현이 아니라 의문형 종결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에서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확인할 수 없다.

1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은 추운 겨울 유리창에 나타난 '성에 꽃'으로 화자에게, 시련과 고통의 끝에 더욱 성숙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사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을, 화자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하얗게 드러눕는 / 함박눈 눈송이'라는 표현에 제시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에서는 '유리창에 피어난', '투명한'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은 추운 겨울에 나타나는 일기 현상에 의해 내리는 것이고, (나)의 ㉡은 겨울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에 의해 유리창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 ㉡은 모두 화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가)의 5연에서 '생명'은 '하얗게 드러눕는 /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고 하였으므로 ㉠은 생명의 탄생을 위한 통과 의례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역설적으로 핀 아름다운 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나)의 '이런 황홀한 꿈', '투명한 꽃', '슬픈 향기', '꽃송이' 등의 표현을 통해 ㉡이 혹독한 추위라는 가혹한 상황에 나타나게 된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 수 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얇고 날카로운'은 '성에 꽃'이 피어 있는 유리창을 수식하는 말로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추운 겨울이라는 혹독한 계절에 초록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겨울 보리'를 보고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간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 (나)의 화자는 생명력이 잦아든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름다운 '성에 꽃'을 발견함으로써 '추위'가 다가든 부정적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초록의 겨울 보리'를 본 후 생명이 추위와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인간사로 확장하여 '진실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나)의 화자도 혹독한 추위 속에 아름답게 핀 '성에 꽃'이라는 자연적 현상에서 촉발된 인식을, '허긴 사람도 그렇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성숙한 인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인 '겨울나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느끼는 정서와 인식의 확장을 중심으로 시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 (나)의 화자는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유리창'과 그곳에 핀 '성에 꽃'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생명'이 혹독한 겨울이 주는 고통과 시련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나)의 화자는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라는 표현을 통해 혹독한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소중한 결과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312~328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②	14 ④	15 ③
16 ④	17 ②			

01~03 고전 시가

■ **권호문, 「한거십팔곡」**

해제 이 작품은 총 19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이다. 사대부인 작가가 겪은 공명과 은거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출(出)과 처(處)를 상반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그려 낸 서사 부분인 〈제1수〉를 제외하고 6수씩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스승인 이황의 「도산십이곡」을 계승하여 지은 육가(六歌) 계열의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제2수〉부터 〈제7수〉까지는 공명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을, 〈제8수〉부터 〈제13수〉까지는 자연 속에서의 은거하는 삶을 선택한 후의 모습을, 〈제14수〉부터 〈제19수〉까지는 내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세계와 강호에 대한 인식,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

주제 공명과 은거 사이의 갈등과 한가로운 강호의 삶에 대한 긍정

구성

- 제1수: 충효를 추구하는 마음
- 제3수: 세사를 잊고 임천을 추구하는 마음
- 제8수: 출과 처에 대한 깨달음과 처에 대한 의지
- 제9~10수: 강호의 삶에 대한 마음
- 제12수: 강호의 삶에서 도달한 정신적 경지
- 제13수: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마음
- 제17수: 도에 대한 깨달음
- 제19수: 내적 갈등 해소를 통한 정신적 성숙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1수〉의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르리야'에서 '충효'를 추구하는 마음을, 〈제9수〉의 '백구인들 제 알랴', 〈제10수〉의 '어느 분이 아실꼬'에서 강호의 삶에 대한 추구를, 〈제17수〉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처의 삶에서 추구하는 도가 성현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과거의 삶에 대한 술회를 독백의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즉, '출'과 '처'에 대해 갈등하던 화자가 '처'를 선택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한 과정을 독백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③ 〈제8수〉의 초장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에서 대구의 방식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의 삶, 즉 '출'과 '처'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제9수〉와 〈제10수〉에서 화자는 강호에서 느끼는 마음을 '백구'와 '어느 분'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처'에 대한 지향 의식을 드러내어 긍정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⑤ 〈제1수〉에서 화자가 '충효'를 이루고자 '십재 황황'한 것이 〈제19수〉의 '십 년 전 진세 일념'과 연결되고 있다. 첫 수인 〈제1수〉와 끝 수인 〈제19수〉가 대응을 이루는 구성을 통해 화자가 겪은 십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제9수〉에서 '벽계림'은 화자가 '청산'이라는 자연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다. 〈제12수〉의 '벽계중'은 자연 속에서 화자가 보고 있는 '제월'의 '청광'이 비치는 곳이다. 따라서 이들 공간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9수〉에서 화자는 자연의 공간을 나타내는 '청산'에서 시내, 시내 위에 안개 낀 마을, 그리고 화자가 거처하는 '초당'으로 공간을 점차 축소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12수〉에서 '제월'의 '청광'은 하늘의 공간인 '구름'으로부터 지상의 공간인 '솔 끝'으로 확대되어 비추고 있다. 그러므로 〈제9수〉와 〈제12수〉에는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며 풍경을 바라본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제9수〉의 '일장금'은 화자가 거처하는 '초당'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제12수〉의 '청광'은 화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제9수〉의 '백구'는 자연에 거처하는 화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제12수〉의 '갈매기'는 화자를 따르려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④ 〈제9수〉의 '야월명'은 자연 속 거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제12수〉의 '제월'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고결해진 화자의 정신적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3수〉에서 '조만에 세사 잊고' '무심'한 '어조'를 좇겠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의미이다. [A]에서 작가가 좋아하지 않고 억지로 했던 것은 과거 공부이다. 그러므로 〈제3수〉에서 과거 공부를 억지로 했던 과거의 삶을 긍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작가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뜻을 굽히고 과거 시험을 본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제1수〉에서 화자가 십 년이라는 시간을 황망하게 보낸 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③ [B]의 속세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서 가난을 즐기는 작가의 모습은 〈제8수〉에서 '조월경운'하는 '처'의 삶을 선택하여 '빈천거'를 하겠다는 화자의 모습에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④ 〈제13수〉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날이 저물도록 할 일이 전혀 없는 한가한 것이지만 때 묻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데, 이는 [B]를 통해 외진 자연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고민하지 않으며, 이것으로써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려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17수〉에서 화자는 '도'를 추구하는 것은 '은'의 상황이든지 '현'의 상황이든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B]를 통해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책 속에서 성현의 자취를 탐구하려는 작가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4~07 현대 소설

■ **임철우, 「곡두 운동회」**

해제 이 소설은 가상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이념 갈등 속 권력자들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이며 비인간적인 면모를 그려 낸 작품이다. 권력자들이 반란군 동조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스스로 반란군으로 위장한 후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 그들이 꾸민 연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생사가 갈리는 모습 등을 통해 한반도를 휩쓸었던 이념 갈등으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풍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전쟁과 이념 갈등의 비극성

전체 줄거리 가상의 한 마을, 어느 날 갑자기 반란군이 진주해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혔다고 여기며 숨죽이는데 오로지 그간 반란군에 몰래 동조해 왔던 소금 장수, 대장장이 등은 기세가 등등해진다. 곧 사람들을 모두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한 반란군들은 운동장을 새끼줄로 분할하여 동조자와 비협조자로 나누고, 비협조자들로 분류된 이들은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다. 마을 사람들 모두에 대한 분류가 끝나고 죽을 운명에 놓인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군들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반란군 복장을 했던 이들이 아군 군복으로 갈아입는다. 이 모든 것이 반란군 동조자를 색출하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안 마을 사람들의 희비가 갈리고, 소금 장수, 대장장이 등은 속았다며 절규한다.

0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는 교문에서 운동장으로 트럭이 차례로 들어오는 모습과 트럭에서 아군이 내려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사람들이 교문에 시선을 집중했다가 군인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시선의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 이전에 운동장에서 벌어지던 상황의 국면이 변화하여 이에 사람들이 놀라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어 역순행적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청색 깃발', '저벅저벅' 등의 어휘를 통해 아군 병사들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감정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저벅저벅', '유유히' 등의 어휘를 활용하여 아군 군인들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⑤ 새로운 인물들인 아군 부대의 등장이 [A] 이전의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5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매부리코 장교는 반란군으로 위장하고 일련의 일들을 벌였지만 이제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밝히고 정말 색출하고자 했던 불순분자를 체포하는 일을 앞두고 있다. 12시가 되자 과장된 행동을 하는 ㉢의 모습은 위장극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 사전에 협의했던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몸짓이지,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바다보다도 더 까마득하게 멀고 먼 거리'는 새끼줄 반대편과 이쪽 편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멀리 느껴지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② 앞으로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모두 침묵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④ 매부리코 장교의 지시 때문에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목사가 장교의 행동을 '악마의 신탁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클라이맥스는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절정 지점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예상을 뒤엎고 일어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서사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0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읍장은 불순분자를 잡아들이는 일의 성공을 위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극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매부리코 장교는 시계를 보고 있다가 열두 시가 되자 팔을 올렸다 내리고, 이에 따라 사이렌이 울리며 배불뚝이 부대장을 비롯한 아군 부대가 들어온다. 이는 배불뚝이 부대장과 미리 약속한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사람들을 새끼줄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그들의 생사를 가름하는 일이 끝나자 매부리코 장교는 다 끝났다고 중얼거리며 물을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읍장은 연극과 위장을 통해 진행한 일이 모두 마무리되자 흡족하게 웃으며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즐거워하고 있다.

④ '꿇어앉아' 있던 것으로 보아 읍장은 반란군 비협조자로 분류되었지만, 연극의 진행을 돕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일이 마무리되자 모든 것이 불순분자를 찾아내기 위한 위장극이었다는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있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소금 장수와 푸줏간집 곰보는 마을에 반란군이 주둔하였다고 믿고 자신들이 반란군의 우호 세력임을 드러냈던 이들이다. 이들이 속았다고 느끼는 것은 반란군 우호 세력임이 탄로 나 이번에는 자신들이 불순분자로 지목되어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부조리한 행태를 취해 왔음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반란군이 마을의 권력을 장악했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무장한 아군 트럭이 세 대나 들어오는 걸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의 혼란과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두 개의 전혀 판이한 운명'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한 마을에 반란군으로 위장한 세력이 주둔하게 되면서 타인에 의해 이념적 성향을 둘 중 하나로 판별당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루아침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③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양편으로 갈리게 된 모습은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해 분열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반란군 동조 세력을 '불순분자'라고 부르며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속임수를 써 가며 사람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밝히고 있는 읍장의 모습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권력자들이 저지른 부조리한 행태를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8~1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임진록」**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웅군담 소설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화가 여러 담당층을 거쳐 전승되다가 후일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다른 고전 소설처럼 특정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면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많은 인물의 활약상을 파노라마처럼 전개하고 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인물과 인물 간의 관련성이 적은 편이며, 인물의 활약상에 허구적인 내용이 많기도 해서 설화적 측면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일제 강점기에는 금서로 지목받아 불태워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가치가 더 높아져 은밀히 전파되어, 현전하는 이본이 100종이 넘는다.

주제 임진왜란에 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전체 줄거리 선조 25년(1592, 임진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다. 왜란을 경고한 우의정 최일경의 진언을 무시한 조선 조정은, 아무런 방비 없이 왜군을 맞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부산을 시작으로 삽시간에 도성까지 쳐들어오는 왜군에 위기를 느낀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달아난다. 다행히 이순신과 곽재우, 김덕령, 김응서 등의 활약으로 왜장을 물리치고 조선 땅을 서서히 되찾아 간다. 그리고 좌의정 유성룡의 구원 요청에 의해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된다. 조선군은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군을 남쪽 끝까지 몰아낸다. 그사이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왜군은 일본 땅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러한 왜군을 이순신이 크게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전쟁은 끝난다. 그 뒤 이여송은 왜군을 물리친 조선이 혹여 명나라를 넘볼까 걱정하여 조선의 혈맥을 끊으려 조선 산천을 돌아다니지만 도리어 혼쭐이 나서 명나라로 돌아간다. 전쟁이 끝난 후, 김응서와 강홍립이 군사 수만을 이끌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지만, 강홍립의 고집으로 인해 일본 정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두 장수는 항복한다. 그 후 김응서는 왜왕에 대한 복수를 꿈꾸지만 실패한 후 자결한다. 일본 정벌 실패 후, 서산 대사의 제자 사명당이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왜왕을 혼쭐낸 후 항복 문서를 받아 돌아온다.

08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왜왕은 천기를 살피다가 조선이 기병하여 일본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제신을 모아 의논한 뒤 대장 예팔도와 예팔낙에게 매복하였다가 조선군이 도착하면 기습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왜왕이 조선이 기병하였다는 제신들의 보고를 받고 군사들을 불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선 임금은 '경 등은 삼가 적을 얕보지 말고 속히 성공하여 돌아와 군신이 서로 반기게 하라.'라고 말하며 왜국으로의 원정길에 나서는 강홍립과 김응서에게 신중하게 왜병과 맞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② 어득광은 '마침 장군의 운수를 살핀즉 행군을 서서히 하여야 반드시 성공하리라.'라고 말하며 왜국 원정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김응서에게 알려 주고 있다.

④ 김응서는 왜국으로 떠나기 전 어득광의 말을 강홍립에게 전하지만, 강홍립은 김응서의 말을 무시한 채 행군을 서두른다. 이에 김응서는 후회함이 있더라도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싸움에서 패한 후 김응서가 강홍립에게 '이는 다 장군의 허물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강홍립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행군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있다.

⑤ 강홍립은 왜왕을 죽이고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김응서의 말을 듣고 바로 왜왕을 찾아가 응서의 말을 고한다.

0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강홍립은 '사불범정'이라는 문헌의 구절을 인용하여 행군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에서 왜왕은 자신을 죽이려는 김응서의 행동이 중국 한나라 시대의 인물인 왕망과 비슷하다며 부하들에게 김응서의 목을 벨 것을 지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강홍립은 '어찌 내 말을 듣지 아니리오.'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김응서에게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반어적 진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에서 강홍립은 군법 시행을 언급하며 김응서의 말을 막고 있다. 그러나 ㉡에서 왜왕은 과거 자신이 김응서를 부마로 삼았던 일을 언급하며 자신을 죽이려 한 김응서를 비난하고 있을 뿐, 김응서를 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 강홍립은 김응서가 병법을 모른다고 비하하며 자신에게 충고를 건네는 김응서를 비난하고 있을 뿐, 김응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에서 왜왕은 자신을 죽이려 한 김응서를 비난하고 있을 뿐, 김응서의 무지를 비하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에서 강홍립은 자신은 군중 주장이요, 김응서는 아장이라는 점을 언급한 후 김응서에게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왜왕은 김응서가 부마라는 점을 언급하며 비난할 뿐, 김응서에게 왜왕인 자신의 선택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강홍립과 김응서가 왜왕에게 항복을 하는 것은 두 장수가 후금에 항복을 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홍립이 왜왕의 누이와, 김응서가 왜의 공주와 혼인을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소설적 장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강홍립과 김응서는 일본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행군을 늦추는 문제로, 일본국에 도착한 후에는 전쟁에서 패한 문제로 서로 갈등한다. 또한 김응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임금을 배반하는 것이라 말하며 일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강홍립과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왜왕의 가족과의 혼인이라는 소설적 장치로 인해 강홍립과 김응서의 대립 구도가 해소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귀신은 강홍립이 행군을 서서히 하라는 자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자, 강홍립과 김응서가 화를 당할 것이라 통곡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는 김응서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민중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일본 땅에 상륙한 후에 강홍립은 길이 좁아 행군이 어렵다는 전군의 보고를 무시하고 행군을 강행하다 전쟁에 패해 병사를 모두 잃게 된다. 이는 장수로서 강홍립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강홍립에 대한 민중들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강홍립과 김응서는 싸움에서 패한 후 왜왕에게 항복하지만, 일본에서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며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강홍립과 달리 김응서는 왜왕을 죽이고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는 김응서의 변함없는 지조를 보여 주는 것으로, 김응서에 대한 민중들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김응서는 왜왕이 겉으로는 자신들을 후대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점과, 왜왕을 베어 임진년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김응서의 말은 일본에 대해 적대감과 복수 의지를 지녔던 민중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 김응서는 왜왕을 비난한 후 강홍립을 죽이고 자결할 뿐,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기〉에서 김응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내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혀 주기를 너만 믿나니'라고 말하며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김응서는 '내 너를 베어 후인을 징비하고, 내 죽은 후에 혼이라도 성상께 나아가 뵈오리라.'라고 말하며 강홍립을 처단하는 이유를 직접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김응서가 강홍립을 처단하는 이유를 직접 밝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A]에서 김응서는 '슬프다, 하늘이 무심하시고'라고 말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라는 임금의 명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김응서는 말을 향해 '나를 따라와 공을 이루지 못하고 임자를 떠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리요마는'이라고 말하며 임금의 명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④ [A]에서 김응서는 '내 너를 베어 후인을 징비하고, 내 죽은 후에 혼이라도 성상께 나아가 뵈오리라.'라고 말한 후 비수를 빼어 강홍립을 베고 있는데, 이를 통해 김응서가 자신이 자결하는 이유를 밝히는 대상은 강홍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김응서는 조선의 임금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죽는 연유를 쓰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김응서가 자신이 자결하는 이유를 밝히는 대상은 조선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

⑤ [A]에서 김응서는 조선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강홍립을 처단할 뿐, 강홍립이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 김응서에게 잠시 동안 현실과 타협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보기〉에서 강홍립은 김응서에게 '장군은 권도를 써 부귀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김응서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일 뿐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 잠시 동안 현실과 타협하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2~17 갈래 복합

㉮ 함민복, 「오래된 잠버릇」

해제 이 시는 인간과 파리가 공존하는 일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과 파리가 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시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파리의 관점에서 불안하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존재하는 것들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를 '낯설게하기'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

구성

- 1연: 인간의 눈으로 본 파리의 슬픈 삶
- 2연: 파리의 눈으로 본 인간 소외와 불안

㉯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해제 이 시는 낡고 누추한 화자의 자취방에 드리운 어둠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어둠 속 세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화자는 누추한 어둠의 세계를 오랜 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빛이 되어 주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주제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

구성

- 1~9행: 낡고 누추한 어둠의 공간
- 10~13행: 어둠 속 세계에 대한 관찰
- 14~20행: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빛의 세계

㉰ 법정, 「거꾸로 보기」

해제 이 작품은 우연히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게 된 일상 속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 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대상의 참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일상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고정 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거꾸로 보기를 통해 대상의 좋은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제 거꾸로 보기를 통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

구성

-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산을 거꾸로 본 경험과 새로운 발견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 형성되고 변모한 것인데: 대상에 대한 고정 관념에 의해 발생하는 그릇된 오해
- 그러나 보는 각도를 ~ 있을 거라는 말이다: 열린 눈을 통해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 친구가 될 것이다: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내기

1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집 안에 있는 파리와 공존하고 있는 일상적인 경험을, (나)는 화자가 살고 있는 월세방의 일상과 어둠을 관찰한 경험을, (다)는 일상에서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와 글쓴이가 발견하게 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파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부분과 (나)에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를 비추는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가)~(다)에는 모두 대상을 관찰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찰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생각이 드러날 뿐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다)에서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에서는 화자가 '저 사내'에서 '파리'로 바뀌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에 의한 시상 전개는 찾아볼 수 없다. 또 (나)에서는 동일한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시상 전개는 찾아볼 수 없다. (다) 역시 대상에 대한 관찰과 그와 관련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을 뿐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소개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1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1연과 2연에서는 각각 인간과 파리를 화자로 설정하고 그들이 관찰한 '파리'와 '저 사내'에 대한 화자의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1연의 8행은 7행에 제시된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2연의 5, 6행은 4행에 제시된 문장의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치법의 사용을 통해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도치의 방식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방'이라는 명사로 종결된 여러 개의 시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의 종결을 통해 '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에서도 명사로 종결된 시행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는 '~는 ~을 깔고 잔다', '~는 ~는 슬프다'와 같이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며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에서는 '~던 방', '~ㄹ 때까지'와 같은 시구가 반복되며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는 파리를 의인화하여 '저 사내'가 기거하고 생활하고 있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또 (나)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의인화하여 어두운 방이라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눈알'이 어둠에 박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낯선 표현인 것은 맞지만 이는 어둠 속에서 대상을 보려는 화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눈알을 굴려도 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2연에서는 파리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1연에 제시되었던 동일한 공간과 상황에 대한 낯선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낯설게하기'를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독자의 주의가 환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잠을 자는 공간으로 '천장'을 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잠자는 공간이라고 인식되어 온 바닥의 세계와는 상반되고 낯선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낯선 표현은 결국 잠자는 공간에 대한 독자의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둠'은 빛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러한 어둠을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퀴퀴하고 걸쭉한'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어둠'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역설은 모순을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으로, (나)에 제시된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이라는 시구가 역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과 모순되는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낯선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역설적 표현 속에 존재하는 의미와 진실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15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2연에서 '파리'는 '저 사내'를 바라보며 그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간이 끝없이 변모하고 형성되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파리'가 슬플 것이라는 인식과, '파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날개 휘젓던 공간'과 '날개의 길'뿐이라는 인식은 모두 1연의 화자인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들은 모두 1연의 화자인 '내'가 가진 인간 중심적 사고가 굳어져 나타난 것으로, 인간이 파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과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보는 각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고정 관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파리'의 입장에서 '저 사내'를 외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곧 '열린 눈'을 통해 '저 사내'의 실체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파리'가 생각하는 '천장'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볼 때 '바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파리'와 '저 사내'가 인식하는 '천장'은 상이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천장'을 상이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파리'와 '저 사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에 따라 공간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16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는 고정 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난 시선을 통해 대상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미나 깨달음을 나타낸다. 이런 맥락에서 (나)의 화자는 어둠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캄캄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어둠 속에서 보잘것없는 물건들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비춰 주는 은은한 빛이 밝혀져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읽고, 어둠 속에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동일한 화자가 어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어둠의 새롭고 긍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관련하여 권태로운 일상의 시·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화자는 어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어둠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의 화자는 어둠의 세계를 오랜 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찰나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화자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막연히 암울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광명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무수한 빛과 색깔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다. 또 ㉡은 열린 눈을 갖기 이전의 눈으로, 고정 관념과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 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열린 눈'을 갖기 전의 눈으로 선입견과 고정 관념에 따라 대상을 인식하는 눈이다. 그러므로 ㉡을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포착하는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 ㉠은 어둠의 세계를 관찰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눈이다. 그리고 어둠에 대해 이와 같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화자의 주관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을,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보편적인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어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눈이다. 그런 맥락에서 ㉠을 즉물적 사고에 의해 왜곡된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은 자신이 지닌 고정 관념과 선입견에 휩싸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록 글 출처]

『우리 한시를 읽다』 이종묵, 돌베개(2009) | 본문 50쪽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01 ③ 02 ①–ⓐ, ②–ⓓ, ③–ⓒ, ④–ⓑ 03 ③
2강	01 ㉠: (가) ○, (나) × ㉡: (가) ×, (나) ○ ㉢: (가) ×, (나) × ㉣: (가) ○, (나) ○ 02 ⓐ: 하더라, ⓑ: 묘사 03 ③
3강	01 (1) ×, (2) ○, (3) ○ 02 ③ 03 ⓐ: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 나쁜
4강	01 ㉢ / 회산군 댁 부인은 김생보다 광대들의 재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 일행을 집 안으로 들였다. 02 ② 03 연기(연극)
5강	01 ③ 02 인간 부재 03 (가), (나), (라)
6강	01 ㉠: 교술, ㉡: 이스탄불, ㉢: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 성찰(반성) 02 중국, 유럽 03 ②
7강	01 (1) ○, (2) ×, (3) ○, (4) × 02 ④ 03 보리피리
8강	01 유추, 가족 02 ② 03 ⓐ: 선행(전제) 조건, ⓑ: 태평, ⓒ: 경천근민
9강	01 ② 02 ③ 03 ㉠: 가시적인 폭력, ㉡: 비가시적인 폭력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01 ① 02 ⑤ 03 ④
	02	01 ② 02 ⑤ 03 ⑤ 04 ③
	03	01 ④ 02 ③ 03 ⑤
	04	01 ④ 02 ② 03 ⑤
	05	01 ① 02 ② 03 ④
	06	01 ④ 02 ③ 03 ⑤
	07	01 ③ 02 ⑤ 03 ④ 04 ④
	08	01 ⑤ 02 ① 03 ③
	09	01 ③ 02 ③ 03 ⑤
	10	01 ⑤ 02 ⑤ 03 ③
	11	01 ① 02 ④ 03 ②

현대시	01	01 ① 02 ② 03 ③ 04 ④
	02	01 ① 02 ⑤ 03 ④
	03	01 ③ 02 ③ 03 ③
	04	01 ① 02 ⑤ 03 ④
	05	01 ③ 02 ⑤ 03 ①
	06	01 ② 02 ④ 03 ① 04 ②
	07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8	01 ④ 02 ⑤ 03 ④
	09	01 ③ 02 ① 03 ③ 04 ②
	10	01 ⑤ 02 ④ 03 ④ 04 ②
	11	01 ① 02 ③ 03 ⑤ 04 ③

고전 산문	01	01 ④ 02 ③ 03 ③
	02	01 ⑤ 02 ③ 03 ⑤
	03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4	01 ④ 02 ① 03 ⑤ 04 ①
	05	01 ① 02 ① 03 ⑤ 04 ④
	06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7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8	01 ① 02 ③ 03 ③ 04 ⑤
	09	01 ⑤ 02 ③ 03 ① 04 ⑤
	10	01 ⑤ 02 ② 03 ② 04 ④
	11	01 ③ 02 ④ 03 ③ 04 ④

현대 소설	01	01 ⑤ 02 ② 03 ④ 04 ②
	02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3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4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6	01 ① 02 ④ 03 ⑤ 04 ②
	07	01 ② 02 ① 03 ③ 04 ②
	08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9	01 ④ 02 ④ 03 ④ 04 ③
	10	01 ③ 02 ③ 03 ④ 04 ①
	11	01 ③ 02 ② 03 ③ 04 ①

극·수필	01	01 ② 02 ⑤ 03 ④
	02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3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4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6	01 ③ 02 ② 03 ⑤
	07	01 ⑤ 02 ⑤ 03 ④
	08	01 ③ 02 ④ 03 ①

갈래 복합	01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③ 06 ⑤
	02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⑤
	03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⑤
	04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⑤ 06 ④
	05	01 ⑤ 02 ⑤ 03 ② 04 ④ 05 ② 06 ④
	06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②
	07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③
	08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① 06 ③
	09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④
	10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③ 06 ②
	11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③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①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④ 17 ③
2회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② 14 ④ 15 ③ 16 ④ 17 ②